

양양 3·1만세 운동사



양양문화원

양양 3·1만세 운동사



양양문화원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양양군민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양의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 양양의 장날부터 결행하여 남녀노소 종파 신분의 구별 없이 일심동체가 되어 연일 요원의 불길처럼 각 면으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양양의 만세운동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조직적이고 격렬했던 독립만세운동으로 양양지역 유림세력, 기독교계, 천도교와 농민, 현산학교 졸업생과 학생 등 계층을 뛰어넘는 전 군민의 독립만세운동이었고,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양양군내 7개면 132개리 중 6개면 82개리에서 4,600여명이 참가하였다하나 실제 15,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 결과 총칼에 사망한 12명과, 부상자 등 43명, 체포인원 142명 중 옥살이 87명과 태형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의 주역인 선열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양양 3·1 만세 운동사”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4월4일 양양시장에서 시작하여 온 군민이 들불처럼 피어올랐던 만세운동으로 100년전 일제의 총칼 앞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그 분들의 행적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 사료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료 조사와 정리에 수고해 주신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과 당시의 생활상을 스스로없이 증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알리고, 교육하여 굳건한 양양의 정체성을 이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간 사



양 양 군 수
김 진 하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군의 3·1만세운동의 역사를 총망라한 『양양 3·1만세 운동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0년 전 하나된 우리 민족이 외쳤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거룩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이 일시에 용솨음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3천리 방방곡곡에서 민족 자존의 횃불을 높이 들었으며, 민족의 높은 기상과 존재를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총칼로 위협하는 서슬 퍼런 무력앞에 당당하게 대한의 독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3·1만세 운동은 세계사에 뚜렷이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심대한 영향을 끼친,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펼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저항한 양양 3·1만세운동은 6일동안 연인원

15,000여명이 참가한 영동지역 최대의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피 흘려 되찾은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번영된 나라로 가꾸어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목숨을 희생하며 찾고자 했던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양 3·1만세 운동사』의 발간은 그러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은 노력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군의 3·1만세 운동의 역사가 집대성된 이 책이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알게 되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양양 3·1만세 운동사』의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이 책을 펴내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의회 의장
고 제 철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장 고제철입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역사로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양 3·1만세 운동사’가 편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기쁜 일입니다.

지금은 인구 3만의 도시인 양양에서 100년 전 전국적으로 손뼉을 만뼉 치열한 3·1 만세 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에 양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일본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 두 팔을 잃고 숨진 함흥기열사와 버선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퍼뜨린 조화벽 지사의 후손입니다.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조상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격렬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양양의 가치를 지키고, 양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느라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한해를 지내고 있는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차



I. 서론	11
II. 당시 양양의 사회상	17
1. 지리적 특성	19
2. 역사 문화적 배경	19
3. 일제의 침탈과 만행	22
4. 유림사회	23
5. 농민사회	24
6. 현산학교 교육의 영향	25
7. 기독교 사회	26
8. 천도교 사회	27
9. 불교 사회	28
III. 양양 3·1 만세 운동 계획과 전개 상황	29
1. 독립선언서의 입수	31
2. 양양 3·1만세 운동 계획	38
1) 1차 회합	39
2) 2차 회합	40
3) 양양면	41

4) 서면	42
5) 손양면	43
6) 강현면	44
7) 현북면	46
3. 양양 3·1만세 운동 전개	48
1) 4월 3일	48
(1) 양양면	48
(2) 강현면·도천면	50
2) 4월 4일	50
(1) 양양면	51
(2) 손양면	52
(3) 서면	53
(4) 양양장터	53
(5) 양양경찰서	55
3) 4월 5일	60
(1) 강현면·도천면	60
① 강현면	60
② 도천면	62
(2) 양양면	63
4) 4월 6일	64
(1) 서면	64
(2) 양양·손양·강현·도천면	65
① 손양면	65
② 강현면·도천면	66
③ 양양장터	67
④ 양양보통학교 학생 만세운동	68
5) 4월 7일	74
(1) 양양장터	75
(2) 서면	76

(3) 낙산사	76
(4) 현북면	77
6) 4월 8일	79
7) 4월 9일	80
(1) 현북면사무소	80
(2) 기사문주재소	82
8) 현남면 및 그 외의 만세운동	90
9) 양양군의 독립유공자 현황	92
(1) 독립유공자 현황	92
(2) 독립유공자 공훈록	96
10) 양양 3·1만세 운동 공로자 공적	161
(1) 주요인물 공적	161
① 이석범	161
② 함흥기	163
③ 조화벽	168
(2) 개인별 공적(가나다 순)	172
 IV. 양양 3·1만세 운동의 의의	 219
 V. 결론	 223
 부록	



I. 서론



I. 서론

양양은 3·1독립 만세 운동의 성지(聖地)이다. 양양이 만세운동의 성지가 된 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수한 문화와 함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명의 삶을 살았던 기록으로 이 중환의 『택리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저(大抵) 살 곳을 택할 때 처음에 지리(地理)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생리 인심 산수(生理 人心 山水)를 돌아본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살기 좋은 고을이 못된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하면 오래 살 곳이 못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좋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다 해도 인심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아름다운 산수가 없으면 맑은 정서를 기를 수 없다.”¹⁾

인간의 성품은 지세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양양은 한반도의 중심부분에 위치하며 장엄한 설악산의 정기와 열정적인 동해를 접하면서 강인한 정신과 우수한 문화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 왔다. 이처럼 양양은 지리적으로 풍수가 뛰어나 풍요와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였다.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와 평야에 남대천이 흐르면서 풍부한 음식과 기후가 온화하여 선사시대부터 남대천을 중심으로 오산리와 도화리에서 삶이 시작되었다. BC 6000년경의 오산리 선사유적이 신석기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

양양인은 동예(東濊)의 후손으로 집단적인 생활을 했고, 가무와 유희의 제천행사로 문화 예술을 즐기면서 살았다. 승지(勝地)를 찾아 멋을 즐기는 풍속으로 천성이 순박하고 성품이 낙천적이다.

삼국시대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을 먼저 점령한 것은 통일을 위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신라는 불교를 통한 일심(一心)과 불국정토(佛國淨土)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양양의 불교는 불교의 성지(聖

1) 『擇里志』

擇里志 大抵卜居之地 地理爲上 生理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地理雖佳 生理乏不能久居 地理雖好 地理惡則亦不能久居 地理及生理俱好而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

地) 답게 우수한 문화유적이 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양양인은 하나 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다.

『여지도서』 [(영조33년) 1757-1765]와 『관동지』 풍속 조에 양양인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다.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貴禮儀(무농상 홀상장 희유연 귀예의)

- 務農桑(무농상) : 농사일과 누에치는 일에 힘쓰고
- 恤喪葬(홀상장) : 장사지내는 일과 상중에는 도우며
- 喜遊宴(희유연) : 놀이로 베푼 잔치를 즐겨하고
- 尙文學(상문학) : 학문을 숭상하면서
- 貴禮儀(귀예의) : 예의를 빼어나게 숭배한다.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며 함께 즐겁게 생활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은 양양인의 풍속과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삼국시대 양양은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다. 양양의 역사를 말하면서 화랑의 역사를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양은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화랑은 그 명예에 어울리는 교육방법이 있었다.

- 相磨以道義(상마이도의) :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
- 相悅以歌樂(상열이가악) :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 遊娛山水(유오산수) :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 유람하였으니
- 無遠不至(무원부지) : 멀어도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화랑들의 순례지인 양양이 의리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장, 최고 관광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랑들의 전통이 오늘날 양양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양양은 대표적인 유림사회²⁾이다. 양양의 유림들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조선조는 왕조의 외친향(外親鄉)이라 하여 양양을 부(府)로 승격하고 특별히 관리해 왔다³⁾. 그리고 양양도호부건물을 왕궁의 형태로 축조하면서 양양의 유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조 유가사회가 망하자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만세운동을 통해 조선왕조에 대한 의리와 충절, 그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였다.

당시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총독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4월 7일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대포(大浦)를 습(襲)하려 한 8백 명의 군중(群衆) 작(作) 6일에 지(至)하여 천 이삼 백명에 달하여 읍내(邑內)를 습(襲)하나 병력(兵力)을 공(恐)하여 폭행(暴行)한 불 온(不穩) 주모자(主謀者) 7명을 인치(引致)함에 차(此)의 인치건(引致件)을 경찰서장(警察署長)에게 청원(請援)하므로 간유(懇諭) 퇴산(退散)케 하다. 상(尙) 동군(同郡) 현북(縣北) 현남(縣南)의 양면(兩面) 민심(民心) 동요(動搖) 불온(不穩)의 조(兆)있음”⁴⁾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9개면 132리 중 6개면 82리에서 6000명이 참가하였다고 기록⁵⁾하고 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규모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막강하였다.

유림의 고장답게 다른 지역⁶⁾에 비해 3·1독립 만세 운동이 치열했던 것은 양양 향촌사회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인하였다.

2) 유교문화의 유적으로 향교, 서원, 사우, 루정, 효렬각, 신도비 등이 있다.

양양의 유교문화유적은 향교1개, 서원1개, 사우4개, 루정 : 33개-루(8), 정(23), 대(2)-(襄陽의 樓亭臺 襄陽文化院 2013년), 기념비 11개, 선정비 28개, 선행비 10개, 신묘, 불교, 신도비 17개, 효렬비 18개, 향일독립운동비 5개(襄陽地方의 金石文, 襄陽文化院, 2014년)가 있다. 양양의 유교문화유적은 영동지방 주에서 다양하게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고 유실되었지만 기록을 토대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

본래 고구려 翼峴縣인데(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翼嶺이라 고쳐서 守城郡의 屬縣이 되었다. 고려 顯宗 때 縣令을 두었다. 高宗 8년(1221)에 거란군사를 방어한 공이 있다고 하여 읍호를 襄州로 하고 防禦使를 파견하였으나 高宗 44년 적에게 항복하여 德寧으로 읍호를 바꾸고 강등하여 監務를 두었다가 元宗 원년(1267)에 다시 양주로 회복하고 知襄州事를 파견하였다. 본조 太祖 6년(1397)에 임금의 외가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府로 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예에 따라 都護府로 하였고, 태종16년(1416)에 지금의 명칭인 襄陽으로 고쳤다.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I, 715쪽

5) 양양군의 역사와 유적, 1994.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I, 712쪽

昨日 강릉시장에서 八, 九名 舊韓國旗를 持하며 獨立萬才를 高唱하니 二十여명 화창 하였으면 他群衆은 참가하지 않고 解散 主謀者 取調中



II. 당시 양양의 사회상

1. 지리적 특성
2. 역사 문화적 배경
3. 일제의 침탈과 만행
4. 유림사회
5. 농민사회
6. 현산학교 교육의 영향
7. 기독교 사회
8. 천도교 사회
9. 불교 사회



1. 지리적 특성

당시 양양군은 7개면으로 개편되었는데 상업의 중심지는 양양장터와 강현면 물치장터였다. 동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국도가 준공되었으나 아직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강릉과 고성군과의 교류는 미약하였다.

영서지방과의 교류는 오색령이나 구룡령 산길을 도보로 넘어 다녔다. 이에 양양장터는 영서지방의 물화(物貨)를 교류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당시 이곳의 문호는 대포항 이었다. 바닷길을 이용하여 원산으로, 이어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여 경성(일제강점기 서울의 이름)으로 갔다. 또한 뱃길이 러시아의 연해주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대포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부근의 물치장터가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이 같은 대포항의 특성은 조화벽이 독립선언서를 숨겨 들어온 장소로써 지리적 특징을 보여준다.

2. 역사 문화적 배경

기후가 온화하여 일찍부터 문화가 크게 번성하여 BC 6000년경의 오산리 선사유적이 우수한 신석기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나라가 고조선 옛 땅을 점령했으나 토착세력에 밀려나면서 자치세력이 형성된다. 이 무렵 영동지역은 동예(東濊)와 실직국(悉直國)이 있었다. 양양은 동예의 후손으로 집단적인 생활의식을 하였고, 가무와 유희의 제천행사를 하는 등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살았다. 승지(勝地)를 찾아 술과 놀이를 즐긴 풍속은 천성이 순박하고 낙천적인 성품임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고구려에 속하였지만 후기에는 신라에 속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제6대 태조 4년(56) 7월 함남지방의 동옥저를 정벌하고 동으로 창해로 진

출하였다. 19대 광개토대왕 18년(409) 동해안을 고구려 영토에 편입하였다. 제20대 장수왕 42년(454)에는 신라의 북방을 정벌하였다. 장수왕 56년(468) 2월 말갈군사 2 만 명으로 신라의 실직주성(悉直州城:삼척)을 공격하여 삼척 이북의 모든 땅은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제21대 문자왕(文咨王)5년 (496)신라의 우산성(牛山城:청양)을 공격하자 신라는 군사를 보내어 니하(泥河:강릉)상류를 공격하였다. 니하는 양양 남대천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양양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으로 분쟁이 계속되었다.

신라 제5대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3년(102) 삼척지방에 있던 실직국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신라에 편입하였다. 제6대 지마이사금(祗摩尼師今) 14년(125) 고구려의 침입으로 니하 남쪽까지 퇴각하였다. 제6대 지마이사금 11년 하슬라 사람이 15세 이상을 징집하여 니하에서 성을 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영토였던 양양을 신라가 자주 침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니하는 양양의 남대천으로 양양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격전지였다. 제21대 소지마립간(昭知麻立干) 때 신라가 고성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제21대 소지마립간 3년(481) 2월 북열성(北列城:안변)에 행차하여 군사를 위문하고 군복을 하사하였다. 제22대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6년(505) 실직주(悉直州:삼척)에 이사부(異斯夫)를 군주로 삼았다. 이때 비로소 동해안의 삼척지역은 확실한 신라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지증마립간 13년 우산국(于山國:울릉도)을 정복하였다.

양양을 고구려에서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고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수성군의 관할을 받는 익령현(翼嶺縣)으로 바뀌게 되었다. 수성군은 익령현과 오늘날의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에 치소가 있었던 동산현(童山縣)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익령현은 통일신라시대에 불교의 성지로 화랑들의 순례지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낙산사의 의상, 범일, 영혈사의 원효, 진전사의 도의, 오색석사의 법성, 무염, 억성사(사림사)의 염거, 체징, 홍각선사 등의 고승들이 불법에 정진한 불교도량지로서의 전성을 이루었다.

『근재집』에 의하면 고려 충숙왕 17년(1330) 안축(安軸, 1287~1348)이 강릉도준무사로 있을시 관동지방을 돌아보고 빼어난 풍광을 읊은 관동별곡 제6장에 양양(襄陽)의 지명이 나온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이상적인 인간은 화랑이나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으로 그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襄州)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제6대 성종(成宗)때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익령현은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다. 제8대 현종 때에 지방제도가 오도양계(五道兩界)로 고쳐진 뒤 양양지방은 東界에 속하였으며 현종9년(1018)에 사도호부 팔목(四都護府 八牧)을 둘 때 현령이 파견됨과 동시에 동산현(洞山縣)을 속현으로 하였다. 제23대 고종8년(1221) 몽고군을 격퇴시킨 공이 있어 양주로 승격되고 방어사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종41년(1254)에 양주성이 함락된 후(고종44년 1257) 몽고군에게 항복하여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제24대 원종원년(1260)에는 다시 양주로 회복되었다.

고려조는 북방민족의 침입과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여진족과 거란족, 몽골, 왜구가 침입했다.

조선조 왕조(1392년 창건)를 보면, 조선왕조를 창건하면서 양양을 특별히 관리해 왔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의 외친향(外親鄉)이기 때문이다. 조선조는 태조6년(1397) 1월에 양주를 임금의 외친본관이기 때문에 부로 승격시켜 양주부라고 하였다. 태종13년(1413) 예(禮)에 따라 양주부를 왕조의 외친향이라 하여 양주도호부로 승격하였다. 태종16년(1416) 양주를 양양이라고 개칭하여, 양양도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왕조에서 특별히 관리해 왔다. 왜 이곳을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개칭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해신묘와 조선왕조의 외친향이라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르는 고을로, 조선왕조의 태동이라는 의미로 양양이라는 명칭을 나라에서 정하였다. 조선왕조의 뿌리를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하고 자신의 뿌리를 양양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태조실록권일, 총서에 의하면, 낙산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도조인 이선래를 낳았다. 즉, 낙산사 관음굴은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의 후사를 접지한 기도처로 해마다 강향사를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고 사전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낙산사는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이름 하였다.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홍예문을 축성하였다. 이때부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와 부인이 여기서 빌(기도)어 도조를 낳았다고 하여 아기 빌이 굴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종실록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비)가 일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에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양이라는 지명은 조선조 태조6년(1397) 외친향(外親鄉)⁷⁾이라 하여 부로 승

격하고 태종 13년(1413) 도호부로 고쳤고 16년(1416) 양양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조와 조선조에 북방민족과 왜구가 자주 침범하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양양인은 단합된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였던 역사가 있다.

3. 일제의 침탈과 만행

일제의 만행은 1908년 6월 손양면 송전리 쌍호에 오리사냥을 온 일본순사가 송전리 고씨 집안에서 베를 짜고 있던 부인을 보고 희롱하자 당시 이 마을 서당 오산재에서 훈장을 하던 고익주가 분개하여 일본인을 꾸짖고 추방하려 하자 이에 무참히 총으로 사살 시켰다. 이를 목격한 고혁주와 고광하가 항의하자 역시 차례로 흉탄에 맞아 즉사하였다.

1910년 이후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통하여 무력을 앞세워 무단통치를 하면서 산림령, 광산령, 어업령을 내려 이 지방의 산업을 침탈하였으며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내려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여 농민들은 생활이 곤란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 강화는 신문화의 강요와 함께 경제적 착취로 이어지게 되면서 보수적인 유림과 근대적 교육을 받은 진보적 청년에게 식민지의 각성을 만들게 되었다.

7) 조선조 『太祖實錄』 권 1에 의하면 翼祖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없으므로 최씨와 함께 낙산 관음굴에서 기도하였더니 밤에 꿈에 한 승복을 입은 중이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善來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얼마 안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宜州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善來라고 했으니 이분이 度祖이다. 관음굴은 지금도 양양부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낙산사 관음굴은 이 태조의 조부인 度祖의 후사를 점지한 기도처로 이태조는 해마다 강향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사전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낙산사는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이름 하였다.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흥예문을 축성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권11 6년(1397) 1월 24일(정축) 강원도 양주를 승격하고 부로 만들었으니 이는 임금의 외친 본관이기 때문이다. 태조의 증조부인 익조가 비 정숙왕후가 여기서 아기를 빌어 도조를 낳았다고 하여 아기빌이 굴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임금의 외친이라는 말은 도조의 첫 번째 부인이 간성의 박씨 朴得賢의 딸이기 때문이다.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왕실에서는 그 보답으로 낙산사를 중창하고 봄가을 제를 올렸다. 특히 세조는 낙산사에서 정성을 다 하였다. 태종실록 권10 5년(1405)11월 21일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정하자 왕이 이에 따랐으나 낙산사는 제외하였다. 태종실록 권32 16년(1416)8월 10일 군현의 칭호를 고치었다. 이조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칭하니 이에 襄州를 襄陽 이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권208 18년(1487) 10월 5일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의 비)가 일 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격적인 항일운동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1907년 군대 강제 해산 이후 군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부터이다. 1907년 8월 19일에 의병 대장 우수길(禹秀吉)이 부하 약 200여명을 거느리고 양양을 공격하고 토벌대와의 교전 중 우편물취급소와 경찰주재소를 파괴하고 명주사 부근의 산중으로 피신하였다.

동년(同年) 11월 3일에는 민궁호(閔肯鎬)가 박채남(朴萃南), 주광석(朱光錫) 등과 함께 약 400여명의 부하를 이끌고 양양으로 진입 경찰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현산학교와 민가 2동이 불에 타는 등 민재가 발생하였으며 의병은 경찰서를 파괴하고 퇴각 피신하였다.

1908년 5월 6일에는 이강년(李康年)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을 공격하여 양양군청 뒷산에서 5시간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고 퇴각 피신하였다.

양양에서 이와 같이 항일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첫째, 초기의 의병활동은 주로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봉기하였는데 양양지방에는 유림세력들이 당시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는 포수(砲手)가 많았기 때문에 의병들의 전투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셋째로는 산악이 많은 이곳은 의병들의 유격전 활동에 지리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의병들의 활동은 불가능하였다.

4. 유림 사회

양양은 유림중심의 사회이다. 향교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유림의 세력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고려조부터 양양은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학의 고장이다. 유림들은 씨족과 집성촌을 토대로 하여 양양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었다.

각 마을에 서당이 있어 훈장이 학동들에게 한자를 가르친 다음 유교의 사상을 가르쳤다. 유림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의병처럼 항일의식과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날 때는 가장 앞장서기도 했다. ‘을미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때 양양지역에서도 의

병장 민공호가 이끄는 의병군이 관찰사 서정규의 토벌대와 양양에서 전투를 벌였던 기록이 있다. 이 전투에서 관군과 왜병의 증원으로 의병들이 퇴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병의 활약을 볼 때 양양은 유학의 고장이자 지역사회에 유림의 보수성향이 상당하였다.

5. 농민 사회

앞의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양양지방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장엄한 설악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열정적인 동해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의하여 양양인은 강인한 정신력과 우수한 지리 환경 속에서 외부세력과 간섭에 야합하지 않는 배타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예국(濊國)시대 이래 마을마다 종족마다 상부상조하는 계 문화와 두레가 발전되어 왔고, 또한 마을마다 마을의 안녕과 대동단결, 마을의 수호를 위한 성황문화가 발전하여 왔으며 이에 농상(農桑)에 힘써오면서 국가와 지방에 변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계 조직을 통하여 구휼(救恤)함으로써 어려움을 같이하였다.

특히 나라에 국상(國喪)이 발생하면 경성을 향하여 망곡(望哭)하고 일부 가정에서는 뒤란에 임시제단을 설치하고 조석(朝夕)으로 망곡하기도 하였으며, 농민들 스스로 국상을 같이 입는 애국충정의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국권이 쇠하여 일제가 강점한 비참한 사회 환경 속에서 농민들에 대한 핍박으로 궁핍은 날을 더해가는 때에 1908년 6월 일본경찰이 손양면 송전리에서 부녀자를 희롱하면서 무고한 농민을 3명이나 살상하는 등의 만행을 꺼리낌 없이 자행하였으니 농민사회에서는 일제에 대한 철천지원한(徹天之冤恨)이 쌓여갔으며 농민사회에서의 분노는 어느 때이든 폭발할 것이 예견되었었다.

이러한 민심이 바탕이 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된 양양의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에 희생을 무릅쓴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벌였으니 이는 농촌 가정을 소중히 여긴 양양인의 주인의식의 특성이며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농민이 단합하여 양양인의 자긍심을 잘 보여 주었다.

6. 현산학교 교육의 영향

현산학교는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이다. 양양은 초등교육기관 졸업생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체결로 국권을 빼앗겨 일반 국민은 국권회복을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계몽강연, 언론활동, 교육구국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남궁억(南宮億) 선생은 독립협회와 황성신문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는 민중의 자각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궁억(南宮億) 선생은 근대의 대표적인 개화파 지식인으로 1905년 11월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통분을 참지 못하고 성주목사를 사임한 뒤 귀경하였다.

남궁억 선생은 고종 42년 을사(1905) 12월 26일 양양군수로 임명받고, 1906년 2월에 부임하여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 유지들은 비협조적이었다. 하는 수 없이 자기 문중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기본금으로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어렵게 세운 학교가 1906년 9월 8일 (음력 7월 20일)에 동헌 뒷산에 개교한 현산학교 였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호별 방문을 통해 설득해 보았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반 강제로 자녀가 있는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한 명씩 학교에 보내도록 했지만 몰래 서당으로 보내는 일이 일어났다. 남궁억 선생은 형리를 시켜 그를 데려다 묶어놓고 불기를 치게 했다.

“양학을 하면 허가 꼬부라지느니, 눈알이 노래지느니, 난리가 나면 죽느니”하는 유언 비어를 유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학생이 200명, 학제는 3학년 과정인데 학생들의 나이는 17~8세까지 상투를 튼 학생도 있었다. 남궁억 선생은 직접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고 산수, 역사, 일어, 체조, 국문과 한문도 가르쳤다.

또한, 남궁억 선생은 조립사업과 축산을 장려하고 청년회를 조직하여 애항심과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적 역량을 기르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 현산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양양에는 1898년 정부로부터 “공립소학교 특설령”이 지방에 하달되면서 소학교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유림들의 반대운동으로 좌절되었다. 이항렬, 최영삼이 향교 소유인 밭과 기타 재산으로 소학교 설립을 주도했으나 군내 유림이 ‘소학교 설립 반대’를 결의하여 좌절되었다.

그 이후 양양군수로 남궁억 선생이 부임하면서 양양의 신문화 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현산학교는 수업료는 없었고 공책과 연필을 무료로 공급하였다. ‘국권갱생(國權更生)의 길은 오직 하나인 교육 밖에 없다’라는 교육 정신을 내걸어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구국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으로 현산학교 출신들은 당시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7. 기독교 사회

양양의 보수적인 유림들은 현산학교와 감리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선교활동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만세운동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양양문화의 일원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양양감리교회는 1901년 10월 5일 캐나다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어 1908년 백설화에 의해 양양읍 조산리에 조산감리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이후 1910년 경 충청도에서 안순학이 강현면 물치리에 사는 처남 이덕운을 찾아 이사를 온 후 기독교 복음을 전하여 강선리 전달원이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되고 자신의 집을 예배장소로 제공하면서 전달원의 처남 김도일, 한문훈장 오현영 등에 의해 강현면 물치리의 물치감리교회가 설립하였다.

이풍운 목사는 1885년 3월 23일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엔 한문을

배우고 1910년 4월 5일 세례를 받았으며, 그 후 현북면의 상광정리에 광정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양양지역에는 4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양양감리교회 내에는 엽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엽 청년회는 당초 순수 신앙 단체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회와 성경공부 외에도 시사성이 있는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대거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충군애국(忠君愛國)’과 ‘국권회복(國權回復)’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엽 청년회는 ‘애국운동 단체’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때 부흥운동과 남궁억 선생, 김영학 목사의 애국독립사상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적 사상이 발전하였다.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는 양구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양양 감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활동을 하면서 양양 지방의 근대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딸 조화벽을 16세에 원산 성경학교로 유학을 보내 성경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다시 개성 호수돈여학교에 보내서 애국심을 길러 3·1독립만세운동과 양양 3·1만세 운동 뿐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성장시켰다.

8. 천도교 사회

양양의 유림들은 동학군의 세력이 확산되자 양양에서 동학군을 토벌할 정도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1860년 최재우(崔在宇)가 창시한 인내천(人乃天) 동학사상이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에 의해 양양에 유입되었다. 최시형은 1869년 3월부터 1870년 10월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다. 최재우의 장남 최세정(崔世貞)은 인제, 양양 등지로 피신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교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양양 김덕중의 집에 머물다 더 안전한 첩첩산중인 인제 귀둔리로 거처를 옮겼다. 귀둔리는 오색령과 점봉산에 인접해 있어 귀둔리에서 양양이 8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곰배령을 지나 양양 북암령(소동라령)을 넘어 양양 장을 이용하였다. 이때 최시형

에 의해 포덕(布德)된 양양의 신도들은 서로 오가며 신앙생활을 함께하였다.

양양, 인제, 영월, 정선 지방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려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교세가 확장되면서 농민들은 불만이 늘어나고, 1894년 고부에서는 민란이 일어나 점차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농민군은 가장 큰 사회 모순인 양반 신분제를 타파하는데 앞장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수탈과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군 토벌대가 증원되고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의 파견으로 전국에서 농민군은 패퇴되고 동학 농민군은 더 깊숙이 숨어들었고 농민군은 신분을 숨기고 술집이나 옛 장사로 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9. 불교 사회

통일신라시대 이후 불국정토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워온 불교의 성지인 양양!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조계선종의 근본도량인 조계종찰 진전사가 설악연화지(설악산 봉우리들이 진전사를 연꽃잎처럼 감싸고 있는 모습)에 있었다.

1919년 3·1만세 운동 당시 양양에는 설악산 신흥사에 원적을 두고 낙산사에 주소를 두었지만 큰 뜻을 품고 전국을 다니며 민족의 깨우침과 독립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은 스님은 용성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 중에 불교 대표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을 추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출가 수행자이면서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만해는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대의 정신이었다.

또한 칠혹같이 어두운 시기에 민족에 대한 믿음으로 올곧은 길을 걸은 민족의 스승이었다. 특히, 전국의 주요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동참을 호소한 일은 널리 알려졌다.

만해가 3·1만세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신흥사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신흥사와 낙산사 승려들이 물치 삼거리에서 환영식을 했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양양 3·1만세 운동은 이러한 만해의 정신과 실천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계종찰 진전사는 2005년 복원 되었고, 2009년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Ⅲ. 양양 3·1만세 운동 계획과 전개 상황

1. 독립선언서의 입수
2. 양양 3·1만세 운동 계획
3. 양양 3·1만세 운동 전개



1. 독립선언서 입수

독립선언서가 전국적으로 배포 확산될 때 우리 양양에서는 독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입수하였다. 하나는 유림의 이석범 선생이 파고다 공원 3·1운동 현장에서 배포될 때 취득하였고, 다른 하나는 당시 개성 호수돈여학교 조화벽학생이 가지고 왔다.

1919년 1월 21일 고종(高宗) 황제(皇帝)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2월에 양양에 전해지자, 2월 20일 저녁에 현산공원에 이종만(李鍾萬) 옹을 비롯한 유림(儒林) 20여 명이 모여 경성을 향하여 ‘망곡(望哭)’을 한 후 임천리 이교완(李敎完)의 집에 모여 ‘국상(國喪)의 예(禮)는 복상(服喪)으로 조의(弔意)를 표하는 것이 도리’이라며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10여명을 상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월 25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유림들이 육로를 이용하여 경성에 올라갔다.

이때 61세이신 이석범 선생이 경성에 가서 파고다 공원 3·1독립만세운동의 현장에서 배포하는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취득하여 비밀리에 몸에 숨겨 오던 중에 일본군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검문소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면서 버선 속에 숨겨 무사히 일행과 함께 3월 20일에 귀향할 수 있었다.

유림의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양양 유림대표 이종만 옹을 찾아가 파고다 공원에서 목격한 3·1독립만세운동을 이야기하고 양양에서도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결의하였다.

‘경성처럼 독립운동은 대중화하고, 일원화하고, 비폭력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양양 유림 참여와 함께 양양의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한편 경성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趙和璧)은 개성에 있는 호수돈여학교 재학 중 3월 3일 개성의 학생 비밀결사대원으로 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임시휴교령을 내리자, 독립선언서를 가방에 숨겨 가지고 경원선 열차를 이용하여 원산에 도착한 후 다시 뱃길을 이용하여 대포 항에 도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조화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학교(호수둔여학교)에서 만세운동을 한 후 학생들이 지방으로 분산하였다. 내가 대포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가방과 몸의 소지물건을 전부 압수하고 나를 일경서장 관사로 끌고 가 심문을 하였다. 그러나 가방의 버선목 숨 속에 숨겨놓은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았다.”

양양감리교회에서는 개화 세력 조화벽을 중심으로 청년부 김필선(金弼善), 김재구(金在龜), 김규용(金圭容), 김계호(金啓鎬), 김주호(金周鎬), 김봉운(金鳳運) 등이 비밀리에 합력(合力)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양양감리교회 5대 김영학 목사와 조영순 전도사의 신앙지도를 받은 청년부는 항일정신과 독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 입수한 獨立宣言書(독립선언서)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여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여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吞(함)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強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여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검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 | 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 | 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毀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 | 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니 무릇 幾何(기하) | 노.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卹恤(우휼)하려 하면 장래의 嫌(혐)을 삼제(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과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產(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영구)완전(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해야 取(취)하매 何強(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해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였다 하여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味人遇(토매인우)하여,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犖(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여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命(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的(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여, 自然(자연), 又(우) 合理的(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國併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 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

죽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금래) 實積(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 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여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수록 濃厚(농후)케 하여,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여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 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이 리오.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巴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여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水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蝨(폐척)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이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이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踰(주)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여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여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吾等(오등)이 滋(자)에 奮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并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여 萬彙(만휘)군象(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

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桴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桴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功成(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더.

公約三章(공약 삼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舉(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이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朝鮮 民族 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鎭 權秉憲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承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에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퍼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는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억누름에 빠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

미 십 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 생존권에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명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버리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러져 찾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면과 도리를 떨치고 뺏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려면 자지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천만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써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피함에 무슨 뜻인들 피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에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펼쳐나갈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도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마침내 억누름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인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결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서로 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이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의 안전과 위태로움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지나인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같고 닳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구나. 흑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꿈쩍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시대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2. 양양 3·1만세 운동 계획

양양군의 만세운동은 이석범 선생이 양양군 전체의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 계획과 실행은 동생 이국범(李國範)과 아들 이재훈(李載勳: 異名 能烈)에게 맡겨 놓고, 이석범 선생은 양양군 전체의 독립 만세 운동의 준비를 위해 양양면 임천리로 갔다.

이석범 선생의 고향인 임천리 이교완의 집을 본부로 하여 양양의 유림과 청장년들을 참여시키고자 양양보통학교 1회 졸업생 최인식(崔寅植)을 계획에 참여시켰다.

최인식은 직업이 목수로서 군 관내의 대소규모의 토목사업은 거의 도맡아 시공함으로써 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의 신분을 이용하여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4월 4일 독립 만세 운동의 동지들을 규합하는데 앞장섰다. 최인식의 처남인 거마리 김명기의 활약이 컸으며 유림이 접근하기 힘든 청장년 사회와 농민사회에 만세 운동의 동참을 권유하는 한편,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을 참가시켰다.

같은 시기에 양양감리교회에서는 3월 하순 조화벽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당시 교회 청년지도자이며 양양보통학교 8회 졸업생인 김필선과 김계호, 김주호 등에게 전달되어 조화벽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양양보통학교 출신인 최인식과 김필선 등이 선후배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림 세력과 감리교 세력은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연결되어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어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함께 하게 되었다.

1) 1차 회합

3월 27일 저녁에 율계(律契)를 계기로 이교완의 집에 추진세력들이 모여 계획을 논의하고 독립선언서 등사 및 복사의 책임자와 태극기 제작 책임자와 각 면의 연락책임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양양면은 최인식, 김필선, 김명기, 강현면은 장세환, 김원식, 손양면은 신세묵, 김종택, 현북면 오세옥, 박규병, 이성윤, 도천면은 이국범, 이재훈, 김영경, 서면은 노용수, 박춘실 이었다.

독립선언서 등사 및 복사 책임자는 김필선이고, 태극기 제작은 성내리의 김두선과 거마리의 김종태 그리고 각 면의 책임자로 정했다.

양양의 유림이 중심이 되었고, 조화벽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최인식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양양군민 전체참여를 통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각 면과의 거리는 양양읍내 군청으로부터 각 면사무소까지 걸어서 서면과 손양면은 30분 정도, 강현면은 1시간 정도, 현북면은 2시간 정도, 현남면은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따라서 양양면, 서면, 손양면은 계획과 운동현장을 함께하였고, 강현면과 도천면, 현북면, 현남면은 각 면의 계획에 따라 만세운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독립 만세 운동 계획의 중요 세력과 각 면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독립 만세 운동 계획의 주요 세력

유림 세력(보수 세력)	감리교(개화 세력)
이종만, 이석범, 이교완	김영학, 조영순, 조화벽

〈표 2〉 양양군 책임자

면 별	책임자	면 별	책임자
양양면	김필선, 최인식, 김명기	강현면	장세환, 김원식
서 면	노용수, 박춘실	도천면	이국범, 이재훈, 김영경
손양면	신세묵, 김종택	현북면	오세옥, 박규병, 이성윤

2) 2차 회합

4월 1일 각 면의 연락원이 이교완의 집에 모여서 독립 만세 운동을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다.

- 양양면은 양양장터에서 4일부터 9일까지 만세 운동을 실행한다.
- 손양면, 서면은 양양장터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양양면과 함께 만세 운동을 실행한다.
- 강현면, 도천면은 물치리 물치장터와 대포리 대포주재소에서 5일 만세 운동을 전개한다. 6일은 양양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실행한다.
- 현북면은 양양장터에서 9일 만세 운동을 실행한다.
- 구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을 동원하고 반드시 책임자가 인솔하고, 한 집에서 한 사람 이상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한다.
- 양양군 독립 만세 운동에서 선두의 기수가 사용한 대형기는 다음과 같다.

태극기	- 옥양목, 베, 한지 그림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	- 한지, 옥양목
태극기와 조선독립	- 한지에 쓰고 그림
대한독립	- 옥양목에 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농기

- 손에 들고 흔들 수 있는 소형 태극기는 종이에 태극기 문양을 등사기로 등사하여 수기로 만들었다. 등사기로 '대한독립만세 양양군(大韓獨立萬歲 襄陽郡)'이란 글씨와 태극모양을 인쇄하여 수기로 만들기도 했다.

기미년(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양양군은 7개면이었다. 그중에서 6개면이 만세 운동에 참가하였는데, 양양군 각 면의 만세운동의 계획과 만세운동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양양면의 만세운동 계획

양양면은 유림사회와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계획하였고, 감리교회 신도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양양면 각 마을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감곡리는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 이원희(李源喜)의 삼부자, 거마리는 김명기(金明基), 김종태(金鍾台), 임천리는 최인식(崔寅植), 최항식(崔尙植), 안광수(安光洙)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조산리는 최영덕(崔永德), 최영직(崔永直) 형제, 청곡리 김계호(金啓鎬), 서문리 김주열(金周烈), 김규용(金圭容) 부자, 남문리는 김재구(金在龜), 김주호(金周鎬), 김필선(金弼善), 김봉운(金鳳運), 사천리는 이정희(李貞熙)가 각자 자기 마을을 맡고, 태극기를 수기로 만들기로 하였다.

임천리에서는 이교정, 이건충의 집에서 이현철(李鉉喆), 김형진(金衡鎭) 등이 참여하여 4월 1일부터 옥양목과 백지로 태극기를 1,100여 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김두선(金斗善)이 중심이 되어 김필선, 김주호, 김계호, 김재구, 이원희, 이두형, 김규용 등이 4월 1일 오후 7시부터 성내리 뒷산 곳집(상여보관소)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3일간 5천여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다. 후일 며느리 김정애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서 조화벽도 86장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독립선언서는 면사무소 급사인 김필선이 김주호, 김계호 등과 면사무소 창고에 촛불을 켜놓고 면사무소의 등사관을 이용하여 4월 2일 밤새도록 등사한 뒤 새벽에 김필선이 밀봉하여 임천리 본부에 전달하였다.

김명기는 4월 3일 양양읍내와 서면(西面) 등지에 만세운동 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양양군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는 3개면 즉 양양면·서면·손양면은 양양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임천리 본부를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또 감곡리 이상온(李相溫)은 자기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청곡리, 기정리, 강현면의 금풍리, 사교리, 방축리, 물갑리, 둔전리, 간곡리 등을 다니며 군중을 동원하였고 4월 3일 김규용, 최인식, 김필선, 김재구는 옥양목과 백지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4일 양양 장날에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 가평리 등에서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편, 본부 임천리의 이교완과 이건축 집에서 등사기로 태극기를 대량 인쇄하여 다른 마을로 보내어 수기를 만들게 하였다.

여기서 옥양목은 행렬의 선두에서 기수가 들고 갈 대형 태극기를 만들고, 백지는 손에 들고 흔들 수 있는 태극기 문양을 등사기로 인쇄 또는 그려서 수기를 만들었다.

양양면 조직 결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양양면 조직

책임자	최인식, 김주호, 김명기, 이관진	
마을 책임자	감곡리	이관진, 이원도, 이원희
	거마리	김명기, 김종태
	임천리	최인식, 최항식, 안광수
	조산리	최영덕, 최영직
	청곡리	김계호
	서문리	김주열, 김규용
	남문리	김필선, 김재구, 김주호, 김봉운
	성내리	김두선
	사천리	이정희

4) 서면의 만세운동 계획

서면은 조직을 확대해 북평리, 용천리, 상평리 등에서도 연락책을 뽑고 군중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서면은 양양면에서 5km 정도 거리에 서면사무소가 있고, 서면주재소는 면사무소에서 15km 떨어진 오색리에 있었다.

서면은 양양면과 이웃하여 임천리의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하였다. 임천리 이교완의 집을 본부로 한 만세운동 계획은 이웃한 서면으로 확산되어 북평리 노용수(盧龍秀)를

중심으로 용천리의 구장 노병우(盧炳禹)와 최명옥(崔明玉: 별명 崔鶴吉)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상평리도 임천리에 이웃한 곳이어서 임천리와 직접 연결되었다. 임천리 본부에서 4월 3일 태극기를 전달 받거나 가져다 상평리 박춘실(朴春實)의 집에서 수기를 만들고 또 행군대열의 기수가 들고 갈 대형 태극기도 만들었다. 또한 주민이 독립 만세 운동에 대거 참가하도록 권유와 설득을 하였다. 특히 상평리에서의 만세운동은 박춘실의 활동이 컸는데, 그는 원래 인재 사람으로 한말(韓末)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일제강점기 상평리에 피신하여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서면은 양양읍내에서 양양면 및 손양면과 합세하여 만세운동을 같이 했다.

〈표 4〉 서면 조직

책임자	노용수, 박춘실	
마을 책임자	용천리	노병우, 최명옥
	상평리	박춘실

5) 손양면의 만세운동 계획

손양면의 만세운동계획은 다른 곳과 다르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다.

손양면은 이전의 동면(송현리, 수여리, 금강리, 송전리, 가평리, 오산리, 수산리, 도화리, 동호리, 학포리)와 남면(간리, 왕도리, 우암리, 주리, 와리, 삼촌리, 부소치리, 밀양리, 양혈리, 상운리, 여운포리)이 통합된 면으로 동면은 유림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었다.

동면 지역의 만세운동 계획은 가평리의 전 구장이었던 신세묵(辛世默)이 총 지휘하였고 당시 구장이었던 함홍기(咸鴻基)가 담당하였다. 양양 3·1만세 운동에서 가장 장열(壯熱)하게 순국한 함홍기는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의 동창들과 연락되어 양양면의 만세운동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현북면 상광정리의 친척 관계인 오세옥 등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평리의 만세 군중을 동원하는 데는 신세묵의 역할이 컸다.

옛날 남면 지방은 상왕도리 김종택(金鍾澤), 주리 최한두(崔漢斗), 우암리 김진열(金振烈) 삼존리(현재 남양리) 김주황(金周璜) 등 당시의 구장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에서 양양면과 연락을 취하고 있던 김종택은 현재 손양면 사무소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양 지방의 학문과 도덕의 중심이던 삼익서당(三益書堂) 훈도의 손자였다.

손양면의 만세 군중은 비록 다른 곳과 같이 한 가구당 한 사람씩은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왕도리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획이 단시간에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들고 농악대를 앞세운 점은 특이하면서도 농민들의 반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표 5〉 손양면 조직

책임자	신세목, 김종택	
마을 책임자	상왕도리	김종택
	주리	최한두
	우암리	김진열
	삼존리	김주황
	가평리	함흥기

6)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 계획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 계획을 이석범 선생은 이국범과 이재훈이 추진하게 하였다.

강현면은 장세환(張世煥), 도천면은 김영경(金英經)을 책임자로 하여 마을단위의 구장을 중심으로 조직망을 형성했다. 장세환, 김영경은 쌍천서숙 동문으로 쌍천서숙 졸업생들이 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도천면은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부월리의 이종순(李鍾淳)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1919년 4월 4일 밤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전주 이씨 종갓집인 이종국(李鍾國)의 방에서 대형 태극기를 만들고, 다음 날인 5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장터에서 대한독

립만세 운동을 마을 사람들과 계획하였다.

강현면에서는 마을 구장을 중심으로 책임자를 두고 진행하였다. 적은리 장세환, 물치리 김두영(金斗榮), 박제범(朴劑範), 김대선(金大先) 등이 맡아서 태극기를 만들며 참가하였고, 강선리 전달원(全達元),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복리 이철우(李喆雨), 이형우(李炯雨), 중복리 김창렬(金昌烈), 심한준(沈漢俊), 간곡리 추병원(秋秉元), 장산리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朴鳳來), 침교리 김원식(金元植), 김진선(金振璇), 사교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주청리 김경도(金敬道) 등이 태극기를 만들며 자기 마을을 맡아서 추진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의 연락책은 침교리 김원식(金元植)이 장세환의 지시에 따라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알렸다. 이처럼 강현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일찍이 3월 23일부터 만세운동이 완전하게 계획되었음이 매곡 오윤환⁸⁾선생의 일기에서 유추 할 수 있다.

3월 23일 이동렬(李動烈: 본명 李載型)이 양양의 유지이자 한학자로서 상도문리 서당 훈장으로 활동하는 매곡 오윤환 선생을 심방하고 또 4월 1일 이능렬(본명 이재훈)이 심방하였으니 이때 3·1만세운동 계획과 전개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고 동의를 얻었으리라 본다.

매곡 일기에 4월 14일 매곡선생께서 양양경찰서에 끌려가 4일간 구금되었다가 4월 18일 방면되었는바 고문과 몇 도(度)의 태형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석방 된지 보름이 넘도록 장독(杖毒): 심한 매를 맞은 상처의 독의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서 괴로워하였다라고 5월 2일자 일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같은 일제의 악랄함이 얼마나 지독하였는가를 실존하는 매곡선생의 친필 일기로서 거듭 천명(闡明)하게 된다.

8) 양주지, 양양군, 1990, P.926

호는 梅谷 자는 聖彬이라 하며 상도문리 오씨 문중의 불출세 한학자이시다. 세칭 오학자로 통하며 한시의 대호, 경학의 대가로서 추종할 분이 없다. 성격이 준엄하고 無言의 敎로서 훈도하여 많은 제자를 냈다. 終日終夜 不解冠 하고 단정히 꿇어 앉아서 敎導하셔서 인격자를 교육하시고 3·1독립만세에 참가하여 태형을 받은 애국자이시다. 후손이 매곡유고를 출판하니 선생의 면모가 더욱 빛났으며 지금도 오학자로 존경받고 있다.

〈표 6〉 강현면·도천면 조직

책임자	장세환, 김원식	
강현면 마을 책임자	적은리	장세환
	물치리	김두영, 박제범, 김대선
	강선리	전달원, 윤순범, 이종엽
	하복리	이철우, 이형우
	중복리	김창렬, 심한준
	간곡리	추병원
	장산리	양익환
	회룡리	박봉래
	침교리	김원식, 김진선
	사교리	김철기, 김환기
	주청리	김경도
도천면 마을 책임자	중도문리	이종황
	대포리	박사집
	부월리	이종순

7) 현북면의 만세운동 계획

양양군 독립 만세 운동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기사문리 만세운동은 3월 27일 임천리 본부에서 현북면 연락을 맡은 원일전리 유학자 박규병(朴奎秉)과 서당 훈도인 이성윤(李聖允), 감리교인 오세옥(吳世玉)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한편 상광정리에 있던 감리교회의 오세옥, 이응열(李應烈) 권시는 양양군 관내의 양양감리교회 및 물치 감리교회와 연락하여 만세운동의 정보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림세력과 감리교회 세력이 연합한 계획은 4월 9일 양양 장날 양양읍내 양양장터까지 가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었다.

양양군 현북면 면내의 유지급인 중광정리 임병익(林秉翼)과 해주 오씨 호족으로 덕망이 있는 오정현(吳鼎鉉)을 참여시키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모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독립선언서의 복사 책임자는 박원병(朴元秉), 태극기는 구장들이 맡아서 대형 태극기와 소형 태극기를 수기로 만들었으며, 연락 문서인 통문은 면서기의 경력을 가졌고 학문이 밝은 오정현이 담당하였다. 마을마다 뛰어다니며 연락하는 책임자는 교회청년 이응열과 상광정리 포수 김종대(金鍾大)가 맡았다. 그리고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 각 마을의 책임자 구장은 상광정리 김익열(金益烈), 중광정리 김우근(金禹根), 하광정리 김진혁(金振赫), 명지리 권광식(權廣植: 본명 權彦植), 대치리 김종성(金鍾聲), 말곡리 김창환(金昌煥), 원일전리 박용기(朴容琦), 도리 김재한(金在漢), 어성전리 김두칠(金斗七) 이었다.

광정교회는 교회간의 연락으로 만세운동의 정보를 입수하였고, 또 오세옥과 친척관계인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咸鴻基)와 연락이 되어 있었다.

원일전리 유학자 박용규 형제와 감리교회의 청년 오세옥, 이응열 권사는 1919년 3월 초순 이래 조선 내 각지에서 조선독립 만세 운동이 태극기만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취지에 찬동하여 자기 마을과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옮기고 나아가 독립운동에 이바지하려고 하던 차에 유럽과 기독교인 그리고 각 마을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력하여 모든 계획을 추진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을 때, 박원병이 등사를 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독립선언서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박원병의 형 박규병은 전체 계획에서 독립하여 4월 7일 박용규와 이성윤이 만세운동을 벌여 이성윤은 은신했고 박용규와 박규병은 체포되었다.

〈표 7〉 현북면 조직

책임자	오세옥, 박규병, 이성윤			
마을 책임자	상광정리	김익열	말곡리	김창환
	중광정리	김우근	원일전리	박용기
	하광정리	김진혁	도리	김재한
	명지리	권광식	어성전리	김두칠
	대치리	김종성		

3. 양양 3·1만세 운동의 전개

앞에서 양양군 만세운동 조직에 대한 설명은 그 계획의 연결 관계를 따라 살펴보았다. 양양 3·1만세 운동은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유림의 대표 등이 주도한 면밀한 계획에 전군민이 이에 호응하고 각 면의 계획에 따라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인 청장년 및 마을 구장을 중심으로 양양군 대부분의 농민과 남녀노소가 결집하여 매일 빼앗긴 나라를 만세운동을 통해서 찾아보겠다고 나선 운동으로 양양군의 양양 3·1만세 운동의 전개는 전국에서 유래가 없다.

4월 3일 저녁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해산하려는 순간, 김새를 미리 알아차린 당시 양양군수 이동혁에게 발각 급습과정에서 임천리 마을 주민 동조자 22명은 체포되었으며 청년 층 주력인사들은 재치를 발휘하여 체포되지 아니하고 피신하였으므로 양양 3·1만세 운동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전개되었었다.

1) 4월 3일

(1) 양양면

양양면 4월 3일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독립 만세 운동을 위해 면과 마을 책임자는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양양면은 최인식이 주도가 되어 감곡리, 거마리, 임천리, 청곡리, 서문리, 남문리, 사천리 등지의 청년층을 대표로 뽑아 연락책으로 삼았다. 특히 감곡리 이상온은 정손리, 청곡리, 감곡리, 강현면 금풍리, 사교리, 방축리, 적은리, 물갑리, 둔전리, 간곡리 등지를 다니며 군중을 동원하고, 집에서 태극기 제작을 책임졌다.

감리교인으로 면사무소 급사였던 김필선은 면사무소의 등사기로 종이와 옥양목에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다. 김필선 외에도 김주호, 김계호, 김재구, 이원도, 이원희, 김두선, 이두형, 김규용은 성내리 뒷산 곳집(상여보관소)에서 태극기를 만들며 4월 4일 장날 만세운동을 준비하였고, 임천리는 이현철, 김형진, 이건충 각자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3일 오후에 성내리 곳집에서 태극기를 만들던 청년 동지들은 1919년 4월 4일 양양장터의 독립만세운동 준비 마무리를 위해 임천리 이교완과 이교정 등의 집으로 옮겼다. 김필선, 김재구, 최인식 등은 옥양목으로 대형태극기를 만들고, 등사기로 태극기 문양을 백지에 복사하여 태극기를 수기로 만들었다.

최인식은 자리를 옮겨 뜻을 같이하는 김규용(金奎容)과 함께 임천리 이교정(李教貞)의 집에서 다시 태극기를 만들고 있던 중, 군속 심윤택이 눈치 채고 군수 이동혁(李東赫)이 일경들과 임천리 현장을 급습하였다. 태극기 374매 및 제작도구인 등사기 등을 빼앗기고,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22명이 붙잡혀 일경에 연행되었다.

양양군수 이동혁은 독립만세운동을 봉쇄하고자 4월 4일 양양 장을 철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강원도장관(江原道長官)이 조선 총독부의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본일(本日) 양양군(襄陽郡)에서 10~13명의 청년 집합(青年 集會)하여 태극기 3백70매(三百七十枚)를 제(製)하고 있음을 발견(發見) 압수(押收)하다. 명일(明日)의 시일(市日)을 이용(利用)하여 사(事)를 양(揚)코져 한 계획(計劃)임과 여(如)하여 내(內) 유력(有力)한 면장(面長)도 가(加)하고 있는지 의심(疑心)있기로 경찰(警察)과 협의(協議) 경계(警戒) 중(中)” 9)

이와 같이 사전에 임천리 계획의 일부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동지 김계호, 최인식, 이원도 등 책임자들은 일경의 포위망을 벗어나 만세운동의 준비를 예정대로 강행하였다.

일단 나머지 인쇄물을 가지고 거마리 김종태의 집으로 본부를 옮기고, 다음 날의 만세운동을 위해 거마리 곳집(상여보관소)으로 옮겨 계속 태극기를 밤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임천리에서도 최항식 등에 의해서 계속 준비되었으며, 마침내 3·1만세 운동 당일까지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성내리 뒷산의 곳집과, 감곡리의 이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2-713쪽

상온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마을마다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4일 양양장날 만세운동의 실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2) 강현면 · 도천면

같은 날 도천면에서도 중도문리 이종황의 집에서 친목계를 가장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당시 이 마을에서는 유림들이 열흘에 한번 씩 시회(詩會)을 열어 학문과 친목을 교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5일 물치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강현면 만세군중은 물치장터에서 모여 만세를 부르고, 도천면 만세군중은 대포리에 있는 대포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6일은 양양장터에 가서 강현면과 도천면 만세군중이 함께 만세운동을 펴기로 하였다. 한편 중도문리 전주 이씨 종갓집인 이종국 집에서는 마을 책임자들이 모여, 이종국이 제공한 하얀 옥양목에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였으며, 5일 물치장터에 최대한 많은 만세군중이 나오도록 독려하였다.

구장 이종황, 이종인, 이재훈, 김영경, 장세환 등은 독립만세운동을 할 소형 태극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2) 4월 4일

1919년 4월 4일 양양장날 날이 밝았다. 양양에 입수된 독립선언서가 3월 하순이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석범 선생과 임천리에서 마을 책임자 일부가 전날인 3일 밤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감이 더했다.

그러나 4월 4일은 양양 장날로 양양군에서 첫 번째로 독립 만세 운동이 들불 같이 일어나 산불처럼 타오른 날이다. 4월 1일 각 면의 책임자가 이교완의 집에서 결의한 대로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손양면 송현리 마을 만세군중은 먼저 들어와 장터와 군청, 경찰서가 내려다보이는 구교리 뒷산에 모여 최인식, 김재구, 김필선, 김계호 등과 함께 첫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양양 3·1만세운동의 첫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만세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이십 여리 떨어진 손양면 수여리 이준재(李俊在)는 아침에 논을 다듬는 일을 하다가 만세소리를 듣고 일을 중단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오늘은 양양면, 서면, 손양면이 3·1만세 운동을 주도하여 실행하였다.

양양읍내에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는 다섯 개가 있었는데, 4월 3일 사전에 탐지한 양양군수는 양양장터로 들어오는 주요 길목 다섯 곳에 일경을 배치하여 처음에는 길목에서 “오늘 양양 장은 철시했으니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당시 일경의 힘으로 장날의 수천 군중을 수색하거나 막을 수는 없었다. 태극기도 두루마기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만세군중을 일일이 수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총을 겨눌 뿐이었다.

각 마을 지도자들은 모인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각 마을 주민의 행군 대열 앞에는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행진했다.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났지만 장터에 오는 도중 또는 장터에 와서 만세 군중으로 변화였다.

(1) 양양면

양양면은 동·서·북쪽에서 읍내로 들어와서 읍내의 군중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동쪽은 낙산사로 통하는 신작로에는 최영덕(崔永德), 최영직(崔永直)이 인솔하는 조산리의 군중, 이정희(李貞熙)가 인솔하는 사천리의 군중들이 청곡리 군중들과 합세하여 양양시내로 들어오다가, 연창리 대미 소(沼) 현 연창리 삼거리 부근에서 일경과의 충돌로 최영원 등 다수가 체포되었으나 군중은 일경저지를 돌파하여 계속 들어왔다.

서쪽에서는 임천리로 통하는 방면에서 아침부터 만세 군중이 일경과 대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의 만세 군중과 전날 발각되어 거마리로 갔던 최인식, 김종태 등은 거마리, 임천리의 주민과 장꾼은 점점 늘어나 행군대열이 형성 되었고, 최인식은 태극

기를 군중에게 나눠주는 한편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면, 곧 따라서 군중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터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거마리 주민은 서문 밖 고개로 거마리 김종태가 앞장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장꾼들에게 만세운동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들어왔다. 이 통로를 경비하던 일경이 만세 군중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북쪽에서는 감곡리 군중들이 북문을 넘어 들어오다가 포시(浦市:일본인 상점) 집 앞에서 일경의 저지로 대치하다가 앞장섰던 이원희(李源喜)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 돌파하여 들어왔다. 일경이 철수하자 감곡리 방면의 만세 군중을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가 인근 주민 수 백 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면, 곧 따라서 군민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터까지 행진했다.

또 거마리 김명기, 김종태와 임천리 최항식이 거마리와 임천리의 주민 대열의 앞장에 섰고, 김명기가 선두에 서서 베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휘두르며 장터로 가는 사람들에게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오전 11시경 양양장터에 이르러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2) 손양면

손양면은 동면 구역인 송현리, 수여리, 금강리, 가평리, 송전리, 오산리, 수산리, 도화리, 학포리, 동호리 그리고 인접마을 상운리, 여운포리, 간리까지의 주민이 각 마을의 구장 인술 하에 고송고개에 집결하였다가 가평리 전 구장 신세묵(辛世默)의 지휘 인술 하에 맨 앞에는 구장 함홍기가 선두에 서서 차례로 질서 있게 지축이 꺼져라 독립만세를 부르며 율리 앞을 지나 남대천 다리를 건너 동운교(東雲橋): 현 양양속초산림조합 청사 앞 교차로 지점으로 내곡리와 서문리를 지나 남문리를 관통 연창리 앞으로 흐르던 맑은 소하천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금은 복개(覆蓋)돼 볼 수 없다.] 앞에서 저지하는 일경에 대치하다가 동운교를 건널 수 없게 되자 동운교 위아래로 분산되어 물을 건너 양양장터에 들어가 각 면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과 함께 종일 만세를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양양경찰서 안에서 가평리 구장 함홍기와 의병출신인 간리의 권병연을 다시 볼 수 없는 통곡과 울분 속에서 암흑의 길을 걸어 돌아선 날이 되고 말았다.

(3) 서면

서면은 서쪽에서 노용수가 앞장선 북평리(北坪里)와 의병 출신 박춘실의 지도를 받은 서면 상평리(上坪里)의 주민이 대열을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춘실은 상평리 주민 대열의 선두에 섰고, 노용수도 북평리 주민 대열의 선두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면 곧 따라서 주민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양양장터까지 행진했다.

서남쪽으로는 용천리와 북평리의 군중이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이명 최학길)의 지도를 받으며 선두에는 보통학교 학생 최선극(崔善極)과 노병례(盧炳禮)가 대형 태극기를 세워 들고 장터로 들어왔다. 군중 모두는 태극기를 들었고, 옥양목과 베와 한지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양양장터까지 행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의 만세 군중과 장꾼은 점점 늘어나 행군대열이 형성 되었고, 양양 변두리에서 경비하던 일경병력이 만세 군중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경찰서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4) 양양장터에서

양양장터에는 각 마을 구장들이 선두기를 앞세우고 들어오면서 “대한 독립 만세” 선창하면, 군중이 따라 외치며 다섯 개의 통로를 따라 물밀 듯 들어오니 온 읍내와 장터가 만세소리로 가득 찼다. 양양감리교회의 청년회 김필선, 김계호 등과 교인들은 주민과 장꾼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는 한편 “대한 독립 만세” 선창하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날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작성한 전화보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5일 오전 0:30 접수

“본일(本日) 편(扁)히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 부락(部落)으로부터 야소교도(耶蘇教徒)를 중심으로 한 수백명(數百名)의 일단(一團)이 읍내(邑內)로 진입(進入)하려 함을 저지(沮止)함에 읍내(邑內) 배회자(徘徊者) 수백명(數百名)과 호응(呼應)하여 만세(萬歲)를 창(唱)하다. 주모자(主謀者)를 검거(檢舉)하고 해산(解散)시켰으나 상(尙)불온(不穩)의 상태(狀態)이다.”¹⁰⁾

이와 같이 양양면, 서면, 손양면 만세군중이 만세운동 당일인 4월 4일 오전 11시경 집결지인 양양장터에 모두 모였다.

양양장터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철시가 된 줄도 모르고 장 보러온 사람들까지 모두 4000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부근에 전달되니 논에서 일 하던 농부들까지 모두 참가하였다. 증언자 용조원(龍照輦)의 말을 들으면 서면 북평리에서는 나가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해 도랑을 파고 있었는데, 이날 낮에 갑작스런 회의가 열려 일하던 사람이 모두 삼과 팽이를 버리고 양양장터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였다.

김종현은 양양보통학교 학생(당시 10세)으로 독립만세운동 대열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나이 어린 학생임을 감안하여 석방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양양 독립 만세 운동은 양양군의 남녀노소와 어린학생이 동참한 운동이었다.

점심때를 전후하여 만세소리와 태극기의 물결이 장터와 경찰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군청주변의 취산루(醉山樓)를 메우고 흡사 독립을 쟁취한 듯이 만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경찰서와 군청 마당 근처에도 군중이 모여 있었고, 또 뒷산에도 군중이 모여 군청과 경찰서를 내려다보면서 만세를 불러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축제 분위기에서 한편에는 복수심에서 온갖 구호를 외치며 만세를 부르니, 마치 독립을 쟁취한 듯 만족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질서 있고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3-714쪽

(5) 양양경찰서에서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 임천리에서 태극기를 만들던 중 군수 이동혁에게 발각되어 책임자 22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삼엄한 일경의 감시와 불안 속에 오늘 양양만세운동은 예정대로 질서 있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낮부터 만세운동 주도자는 전날 체포된 책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했다. 또 오늘 장터에서 만세운동 중 체포되어 경찰서에 들어가면 못 나오고 또 들어가면 감금되어 나오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만세군중은 서쪽 서문리에서, 남쪽 동운교에서, 동쪽 장터에서 경찰서와 군청 마당으로 신작로를 따라 늘어난 만세운동 군중 수천 명이 노도와 같이 몰려들었다. 경찰서 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그리고 주도자 몇 명이 경찰서로 들어가 또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서 마당과 주변 신작로 거리의 군중의 외침이 한창일 때, 양양 경찰서에 체포 구속되어 있는 만세운동 지도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가평리 구장 함홍기(당시 24세)가 경찰서장 사타쿠를 면담하고 그들을 석방하라고 항의 하는 과정에서 서장실 화로를 집어 들자 그때 경찰서장실에서 옆에 섰던 두 명의 일본 경찰 아끼야마와 오오이시의 칼에 양팔이 잘린 후 목에 칼을 맞아 무참하게 살해되자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군중은 격분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이때 간리에서 장사를 하던 권병연(權炳淵)(당시 28세)이 뛰어 들어가 항의 하자 일본 경찰이 휘두르는 칼에 목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은 뜻하지 않게 만세운동은 더욱 격렬해 졌다.

“구금자를 석방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두 사람이 피살되는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은 돌과 몽둥이를 잡히는 대로 쥐고 군청과 경찰서를 향해 던지면서, 시위진압에 앞장서며 군민을 탄압한 “이동혁 군수를 죽여라!”고 외쳤다. 이에 일경은 경찰서로 쫓겨 들어갔다. 이날 만세운동으로 도청에서 출장 온 산림기수 1명은 군청 마당에 나왔다가 군중에게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

이 때 군중 속에 있다가 격분한 상평리 김학구가 경찰서를 향하여 뛰었다.

양양경찰서 마당에서는 탕 탕 탕하는 총소리가 저녁노을을 깬다.

김학구가 쓰러졌다.

앞에 선 사람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낭자했다.

이 때 경찰서 마당에서 김학구는 숨을 거두게 되었다.

계속하여 젊은 청년들이 쓰러지게 되자 시위대가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며 격하게 항의를 하자 일본경찰들은 계속 총을 발사하여 총에 맞은 부상자는 용천리의 이흥달(李興達), 노병우(盧炳禹), 박의명(朴義秉), 한원일(韓元一), 한원팔(韓元八), 남순극(南淳極), 박경화(朴京化), 이두하(李斗夏), 노병택(盧炳澤), 남성극(南成極), 최명옥(崔明玉), 김경숙(金敬淑) 등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북평리의 용조원(龍照輦), 가평리의 신세묵(辛世默) 등 13명이었다. 그러나 부상자는 이외에도 더 많았다.

부상자가 더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일경에 의해 주동 또는 가담 등이 밝혀지면 감옥에 갇히거나 태형(笞刑)을 맞아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다.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노용수가 “끌고 가자!”라고 소리치고 친구들이 모여들어 이형우가 업어서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멍석으로 김학구를 안치하였다.

피비린내 풍긴 치열했던 만세운동이 끝나 모두 각 마을로 돌아간 일몰 후 적막이 감돌자 ‘나라의 독립을 목적’으로 서면 용천리 주민들은 총상을 입은 최학길(이명, 명옥)의 선동으로 다시모여 양양경찰서로 달려 내려가 적막을 깨고 낮에 희생된 함흥기, 권병연, 김학구의 고향을 부르며 대한독립민세를 부르다 기진맥진 눈물을 흘리며 어둠을 뚫고 용천리로 돌아갔다.

경찰서장에 덩벼들다 피살당한 함흥기의 시신은 경찰서 내 복도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다가 10여 일 후 가족에게 인계되어 마을 주민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으나, 하관(下棺)직후 일본경찰이 파헤치고 관을 깨버렸다. 사설묘지라는 이유와 장례식 때 동네 전 주민이 모여서 울었기 때문이었다.

이날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신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5일 오전 10:00 접수

“작야(昨夜) 다시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 부근(附近) 인민(人民) 약(約)육백(六百) 읍내(邑內)로 내습(來襲), 읍내민(邑內民) 약(約)오백(五百) 차(此)에 화(和)하여 소요(騷擾)를 극(極)하며 특(特)히 유치인(留置人)탈감(脫監)을 위하여 경찰서(警察署)에 침입(侵入) 약탈(掠奪)을 극(極)함으로서 무기(武器)를 사용(使用)하여 일단(一旦) 진압(鎮壓)하나 형세(形勢)불온(不穩), 폭민(暴民)사상(死傷) 있었다.”¹¹⁾

▶ 권병연의 장녀 권선희의 증언

아버지는 고송고개(일명 말령고개)에 있는 이상춘(李相春)이 살던 집에서 엿을 고아도매상을 하면서 살았다. 일명 엿 덕대라고 한다. 4월 4일 함흥기 의사가 오후에 오셔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면서 “어머니 하고 저녁 먹고 있으면 곧 돌아 올 태니 잘 놀고 있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얼마 후 논두렁 가래질을 하던 아저씨들이 선산 맥, 선산 맥하고 불러 어머니가 나가보니 아버지가 경찰서에 구금되었으니 가보라는 것이었다.

놀라서 어머니는 허겁지겁 나를 업고 경찰서 주변을 사방으로 가시철망으로 둘러 설치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왜경 보초가 못 들어가게 막았으나 무조건 밀고 들어가 아버지를 내놓으라고 애원하였다.

한 왜경이 어머니가 너무 애처롭게 보였던지 솔직히 말해주겠다며 대강 그 경위를 설명하며 죽었다는 것이었다.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등에 업은 나를 생각지도 않고,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털썩 정신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어머니 등에 업혀있던 나도 그대로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뒹굴어 떨어지면서 대성통곡하는 어머니와 같이 울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무실 유리창은 다 깨져 엉망이었다. 왜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맨손과 총 가진 사람과 싸울 땐 맨손이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우리 집 구조는 방 세 칸에 마루 봉방 뿐 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지낼 때 만세를 부르기 위해 대형기와 수기(태극기)를 만들며 준비를 하였다. 이날 용천 사람 9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이때 경찰서 앞에는 취산루(醉山樓)가 있었는데 이 취산루 돌기둥에 만세군중이 숨기도 하였다.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3-714쪽

함흥기 의사가 서장실로 들어가 화로를 들어 서장을 내려치려고 하니 일본도로 옆 구리를 찌르며 오른팔을 다시 일본도로 내리치고 또 왼손으로 의자를 들어 치려고 하니 그 다음에는 목을 쳤다고 한다. 뒤 따라 권병연 의사도 또 달려드니 또다시 일본도로 목을 쳐 쓰러졌다. 뒤이어 달려 들어가던 김학구 의사도 왜경의 총에 맞아 순국했다.

시체를 찾으려고 하니 내어 주지 않다가 음력 3월 15일 경 일반 구속자를 석방하고, 16, 17일경 시체를 찾아가라고 하여 행상(상여)을 가지고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니 못 들어가게 하여 들것으로 운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큰 기와 큰 태극기는 전부 불태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그마한 태극기만 행상 틀에 꽂고 새이골(현 간리)에 장례를 마쳤다.

3년 상을 마치고 왜경의 감시 눈을 피해 5월경 우리 모녀는 이사래야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만 싸가지고 대관령을 넘어 걸어서 허기를 참지 못하여 어머니가 따주는 딸기를 먹으면서 며칠 동안 기진맥진 걸어서 고향인 영월 주천까지 갔다.

그 후 고향으로 이장하였다. 이세원(새말댁 할아버지, 당시 사슴을 키웠다)가 도와주어서 왜경 모르게 이장하였다. 1940년 10월경 영월 주천 마래미에 있는 집 근방에 밭에 가매장했다가 신일리 나르신(공동묘지)에 모셨다. 그 후 권병연 의사의 처도 이곳에 쌍분으로 모셨다.

장녀 권선례(權先禮)

주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135

본적: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268

▶ 이종우 선생의 증언

양양 3·1만세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였던 손양면 수여리 이준재(李俊在) 옹이 몸소 겪은 사실을 그의 자제인 이종우 선생의 부친의 체험담을 정리한 내용으로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3·1만세 운동 당시의 양양인의 아픈 사연이라 소개한다.

1919년 4월 4일 각 마을 구장의 인솔 하에 손양면 송현리 고송고개에 집합하여 청년들이 앞장서고 노 장년층과 부녀자들이 뒤에 이어 오던 중 율리를 거쳐 남대천 나무다리를 건너 당시 동운교(東雲橋)를 건너 양양장터 마당에 각 면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만세운동에 참여 하였다.

장마당에 출선하여 참여한 인원이 인산인해였으며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 소리 높이 울려 퍼지자 왜경들은 놀라 경찰서 마당에 모여 만세군중의 동태를 살필 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전날인 4월 3일 임천리에서 체포된 이석범 선생과 마을 주민들의 석방을 외치며 손양면 청년들이 맨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며 전진하다가 왜경의 저지선을 뚫고 양양경찰서로 진입하였다.

그때 체포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거부하는 일경들과 격렬하게 대치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에 격분한 청년들 선두에서 혈기가 넘친 가평리 구장 함홍기가 경찰서장 실로 들어가 화로를 집어던지려하니 서장을 호위하던 순사가 일본도로 화로를 든 두 팔을 내려치고 이어 허리와 배를 찔러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간리에 사는 권병연이 격분하여 서장실로 들어 닥치니 서장을 호위하던 순사가 역시 권병연에게도 일본도로 내려치는 것을 본 우리군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경찰서로 돌진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경이 일제히 사격하므로 우리 군중은 더 이상 돌진하지 못하고 총소리를 뒤로하고 모두 엎드리며 흩어지는데 나도 겁에 질려 동운교 쪽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계속 총소리가 나므로 당시 제방 둑 넘어 율리 쪽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상황이 어떠한가 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고노야로”라고 소리치는 일경이 인정사정없이 군화발로 안면을 걷어차니 나는 순간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앞니가 모두 부러지고 피투성이인데 왜경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일어나 밤이 되어 집으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누어있으니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적개심에 만감이 교차하였다.

때는 논 가래질을 할 시기라 가래질 짚을 짜고 4월 9일 이품을 무릅쓰고 툭툭하게 부은 얼굴을 싸 동이고 송전리 앞 쌍호 부근 논에서 가래질을 하고 있는데 만세소리가 들려오므로 나를 비롯한 가래질 일꾼들 모두 몸도 씻지 않고 그대로 양양 장마당으로 달려가 입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나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경에 맞았다는 사실도 두려워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으며, 만세운동 후 10여년이 지나니 그나마 성치 않게 남아있던 이마저도 한대도 없이 모두 빠져 평생 동안 먹을 것도 편하게 먹지 못하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삶을 살았다.」 끝.

이와 같이 양양에는 가슴앓이 하는 슬픈 사연을 가진 가정이 아주 많다.

3) 4월 5일

양양 3·1만세 운동 이틀 째 날로,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 4 개면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손양면은 율리에서, 양양면은 양양장터에서, 강현면은 물치장터에서, 도천면은 대포주재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였다.

(1) 강현면·도천면

강현면, 도천면이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율림과 물치감리교인, 쌍천서숙 졸업생 그리고 마을 구장이 주도하여 물치장터와 대포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되었다.

오전에는 강현면은 면사무소와 물치장터에서, 도천면은 대포주재소에서 각 면별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후, 오후에는 강현면, 도천면이 합세하여 양양독립만세운동을 하였다.

① 강현면

강현면은 장세환, 김두영, 김원식을 책임자로 정하고 각 마을 구장과 함께 해 나갔다. 또한 물치감리교회는 교회대로 별도로 물치장터에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룡리 구장 박봉래, 물치리 구장 김두영과 박제범, 김대선, 강선리 구장 전달원과 윤순범, 이종엽, 중북리 구장 김창렬과 심한준, 하북리 구장 이철우 및 이형우, 간곡리 구장 추병원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손으로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장산리 양익환, 침교리 김원식과 김진선, 사교리 구장 김철기와 김환기, 주청리 구장 김정도, 적은리 장세환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마을 구장은 자기 마을에서 한 집에서 한 사람 이상 주민을 동원하였다.

이 날은 물치 장날 이었다. 당시 대포항은 교통의 중심으로 대포의 이웃 마을인 물치리는 자연히 상업의 중심지로 물치 장날은 번성했다.

1914년 일제는 통치수단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당시 강선면과 사현면을 강현면으로 통합했고 면사무소는 장산리에 두었다. 과거 사현면의 주민들은 물치장터로 오다가 당시 강현면사무소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땅이 꺼져라 외쳤다. 그러자 겁에 질린 면장 및 면사무소 직원들은 모두 도망가고 서기 김남훈(金南薰)만 남아 있다가 만세군중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면사무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군중을 구장이 선두 지휘하여 물치장터로 행진했다.

강선리 김두영과 전달원은 감리교인으로 교회의 조직망을 펴서 아침 일찍부터 감리교인 약 60여 명을 데리고 물치장터에 모여 있었다. 또 강현면의 북부 지역 마을 주민은 물치장터로 모여 들었다.

이렇게 약속된 물치장터에 강현면에서 집결한 500여 명의 만세군중은 저마다 소형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독립선언식 장소인 물치장터 쌀가게 앞에 모였다.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는 각 마을 군중 선두에서 펼쳐졌다. 또 장대에 대형 태극기를 달아서 높이 세웠다. 하늘과 땅과 세계만국에 알리려고 아주 높게 세웠다. 동해의 바닷바람과 설악산 바람에 태극기는 힘차게 휘날렸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군중은 침묵하며 새겨들었다.

공약삼장을 낭독 할 때는 군중도 큰 소리로 따라 했다.

낭독이 끝나자 지도자의 “대한 독립 만세” 선창에 만세군중은 “대한 독립 만세”를 설악산이 울리도록 외쳤다. 삼창이 끝나고도 독립을 맞이한 것처럼 “대한 독립 만세”를 연이어 부르고 불렀다.

물치 마을 앞 동해의 거센 파도 소리가 몽돌을 굴리는 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대한 독립 만세”에 화답하는 뜻 했다.

이때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동군(同郡) 강현면(降峴面) 시장(市場)에 폭민(暴民) 약(約) 오백(五百)집합(集會) 점차(漸次) 증가(增加)의 형세(形勢)이다. 금야(今夜) 대포(大浦)또는 읍내(邑內)를 습(襲)할 계획(計劃) 있음에 엄중(嚴重) 경계(警戒) 중(中)”¹²⁾

물치장터의 만세운동에는 물치리의 계획을 담당하던 김두영(金斗榮)과 박제범(朴劑範), 김대선(金大先)의 활동이 컸는데, 김두영은 원래 도천면 대포리 사람으로 대포주재소가 설치되면서 집을 빼앗긴 후 물치리로 이사하여 살았으니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그리고 김대선과 박제범은 나이 어린 감리교인 이었다.

이렇게 장세환을 대표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오후에는 그 기세를 이어서 물치장터에 운집한 강현면 만세군중은 500여 명은 장세환과 김원식의 지휘하에 구장이 선두에 서고, 또 도천면(현 속초시) 중도문리 김영경, 부월리 이종순, 대포리 박사집이 인솔하여 물치 장터로 모여든 도천면 일부 군중들과 합세하여 도천면의 집결지인 대포주재소로 행진했다.

② 도천면

중도문리 이재훈과 이종국은 집에서 대형 태극기 제작하여 주민들의 앞장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대포주재소까지 행진하였다.

중도문리 김영경, 부월리 이종순, 대포리 박사집의 활약으로 많은 군중이 대포주재소 앞에 모였다.

이렇게 도천면 군중은 약속된 대포주재소에 집결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을 때, 강현면 만세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봉래의 선장으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왔다. 또 이철우도 물치장터에서 대형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할 때 보다 늘어난 만세운동 군중은 소형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포주재소로 행진하여 도천면민과 합세하였다.

대포 마을 앞 동해의 흰 파도 물결도 군마가 대열을 지어 달려오고 만세군중이 행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4쪽

군하여 오는 것 같았다.

전날(4일) 양양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일경의 사전 대비책도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였다. 일경의 가족과 일본인은 모두 대포 항구의 배에 태워 바다에 피신시켰다.

물치장터에 모인 군중은 오전에는 5백여 명 정도 였는데, 오후에는 도천면민과 함께 대포주재소에 합세하였을 때는 점점 증가하여 만세군중은 1000여 명이 훨씬 넘었다.

이에 도천면 만세운동 군중은 강현면 군중과 함께 대포리 일경주재소 앞에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은 물러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니, 정말 일본인들이 쫓겨 가면 독립이 되는 줄 알고 기세가 높아지게 되었다. 겁을 먹은 수석이 직접 나와 군중에게 허리를 굽혀 빌었다.

일경이 물러가겠다는 설명을 듣고, 날이 저물도록 천여 명의 만세군중은 내일(6일) 양양에 가서 독립만세운동을 할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무력이 없는 평화적인 만세운동으로 일경의 굴복과 사죄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쳤다.

이 상황을 알리는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4월 6일 오전 7시 50분

“오일(五日)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에서 양반(兩班)을 중심(中心)으로 한 군중(群衆) 삼백명(三百名),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 읍내(邑內)를 통과(通過)하려 함으로 진무(鎭撫) 해산(解散)시키다.”

(2) 양양면

양양면은 양양장터에서 읍내주민들이 어제와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양양만세운동의 이틀째인 5일은 평화적 만세운동을 하였다.

4) 4월 6일

양양 3·1만세 운동 사흘 째 되는 날로, 양양면, 손양면, 서면, 강현면, 도천면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날 만세 운동은 세 곳에서 전개되었다.

첫째는 서면의 농민들이 4일 경찰서 앞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김학구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일제에 반항한 장례만세운동 이었다.

둘째는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만세운동을 한 것이고, 셋째는 양양면 양양보통학교 4학년 학생이 경찰서 뒤 언덕에 올라가 만세를 불렀는데, 나이 어린 학생도 스스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1) 서면

이날은 독자적으로 일으킨 김학구의 장례 만세운동이었다.

김학구(金學九)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 사람이었는데, 서면 상평리 권성심(權聖心)에게 데릴사위로 와서 처가살이를 하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용감한 청년이었는데 양양 장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이 발포한 총탄에 경찰서 마당에서 숨졌다.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서면 책임자 노용수가 “끌고 가자” 라고 소리치자 이형우가 업어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멍석으로 덮어 안치했다가 다음날 가족이 찾아가 장례를 지내며 나타난 특수한 만세운동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의 눈물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건이었다.

서면 상평리의 주민은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만세운동은 농사철이 한창 바쁜 때 일어났다. 그러나 만세를 열심히 부르면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마을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했다. 김학구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는데 통곡의 행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서면사무소까지 갔으나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격분한 마을주민 100여 명이 먼저와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자 면장과 면 직원들은 도망쳐 버렸다.

구룡령 너머 서면 조개리의 지석화(池石化)는 만세를 부르는 군중이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상평리로 운반하여 합세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상여를 멘 사람들은 상여소리로 원통한 영혼을 위로하다가 ‘조선 독립 만세’를 또 부르며 울부짖었다. 김학구(金學九)의 상여는 상평리 면사무소를 떠나 산길을 따라 30여리 되는 그의 고향 침교리로 가던 중 강현면 물잡리 고개에 이르렀을 때 강현면 침교리에서도 상여를 꾸며 놓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관(棺)이 서면의 상여에서 강현면의 상여로 옮겨질 때, 마침 양양장터로 가던 강현면과 도천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함께 통곡하니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후일 충도문리 이종인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동기가 죽은들 그렇게 눈물이 나겠습니까?”라며 눈시울을 적시며, 침교리에서 장례를 지냈지만 일경은 산림법을 위반하여 묘를 썼다고 하여 다시 파내어 공동묘지로 옮겼다고 한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7일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2) 양양면·손양면·강현면·도천면

① 손양면

손양면은 왕도리 구장이던 김종택을 중심으로 주리 구장 최한두, 우암리 구장 김진렬, 삼존리 구장 김주황이 주동하였다. 어제(5일) 양양읍내로 와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비대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양양으로 가는 도중에 일경의 제지를 받았으나 물리치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행렬의 선두에는 대형 태극기 밑에 ‘조선독립’이라고 쓴 깃발과 함께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깃발을 세웠으며, 주리 마을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들고 농악대까지 그 뒤를 따랐다.

고송 고개를 넘을 때 그곳 주민들도 합세하여 남대천 나무다리를 건너 동운교 앞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일경에게 저지당했다. 이렇게 수비대와 대치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연창리 대미소 앞에서 강현면, 도천면 면민이 모여 있다는 전갈을 받고, 만세군중은 용기를 내어 수비대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오늘은 무사히 집결지 양양장터로 들어왔다.

② 강현면 · 도천면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들이 5일 물치장터와 대포주재소에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마치고 약속대로 6일은 양양에 와서 만세를 부르려고 장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베주머니에 주먹밥을 싸서 망태에 집어넣고 15km 이상을 걸어서 양양까지 왔다.

이 날도 이재훈, 김영경, 이국범, 장세환, 김원식, 김두영 등 강현면, 도천면 주도자들이 앞장서서 양양읍내로 진출하였다. 800여 명 정도가 되는 군중이 다시 모여 만세운동을 펼치기 위해 양양장터로 향했다. 읍내로 향하는 만세군중 대열이 양양면을 통과 할 때, 양양면 조산리, 사천리, 청곡리 등의 주민이 합세하여 군중은 점점 늘었다. 어제 대포항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미 배를 타고 피신해 있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기는 충천했다.

어떤 이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양양에 가서 일본사람을 쫓아내기 위하여 나갔다. 이 날 만세군중들은 우리도 만세를 부르니 정말 독립이 되겠구나하는 믿음이 생겼다. 물론 마을 책임자의 격려도 있었지만 오늘은 농사일과 바다의 고기잡이를 모두 미루고 양양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일경들은 만세군중들에게 “우리는 돌아 갈 것이니 조용히 만세만 불러라”고 간청하는 말을 믿었기에 독립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흥겨운 기세가 아주 높았다.

그러나 당시 양양면의 사정은 달랐다. 양양읍내 진입 통로인 동쪽 연창리 대미소에 일경과 수비대는 새끼줄로 길을 가로 질러놓고 일반인의 통과를 막고 있었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군중 특히 장세환, 김원식 등이 이끄는 강현면 군중들이 조산리를 지나 연창리 대미소 부근 수비대 앞에 당도했다. 당국에서 증원된 일본헌병들에 의하여 연창리에서 저지당하게 되었다. 이 때, 주동자 장세환은 선두에 섰던 6명의 시위대와 함께 무자비한 구타와 폭력을 당하고 해산되는 뜻 하였으나, 물러나 군경과 대치하다가 손양면민이 동운교에 모여 있다는 전갈을 받았다. 수비대 군경의 포진(鋪陳)에도 불구하고 군중 900여 명은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시에 집결지인 양양장터로 들어갔다.

이때 주리 장두용은 체포되어 태형을 받았다.

▶ 당시 김종극 선생의 수기

6일 강현면 만세 상황을 당시 14세였던 김종극(전 양양군초대문화원장)이 강현면 중북리에서 동네 어른들을 따라서 물치장터에 운집한 만세운동 군중들과 함께 물치리

부터 양양 연창리까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던 상황과, 만세운동 후 주동자(김창열)가 연행되기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일기 형식으로 기술한 『풍상구십 평생행적소회록(風霜九十平生行績所懷錄)』의 내용을 소개한다.

『1919년 4월 6일 己未年(기미년)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大中(대중)을 따라갔다. 동리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러 간다기에 無酌定(무작정)으로 따라갔다. 물치리에서 태극기를 얻어 들고 萬歲陳列(만세진열)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세를 부르며 따라갔다. 四列宗代(사렬종대)로 列(열)을 지어 만세를 부르며 津軍(진군)하였다.

선두에는 큰 깃발을 나부끼고 만세를 연창하면서 連昌里(연창리) 대미 沼(소) 밑에 다르니 憲兵五名(헌병5명)이 銃(총)에 칼을 꽂고 守備(수비)하며 길 中間(중간)에 出入禁止線(출입금지선)인 沮止線(정지선) 거어 놓고 萬若(만약) 이 線(선)을 넘어오면 發布(발포) 한다고 겁을 주며 暴力(폭력)을 가하자 軍中들이 解散(해산)되고 말았다.

萬歲 後(만세 후) 檢舉逮捕(검거체포)하기 始作(시작)하였다.

우리 洞里(동리)에도 巡查(순사) 2명과 守備隊(수비대) 1명이 와서 金昌烈(김창열) 氏를 逮捕連行(체포연행)하는 것을 보고 驚愕(경악)하였다. 그때 그 동생이 質問(질문)하니 장작 개피를 들어 毆打(구타)한다. 나는 恐怖(공포) 끝에 집으로 逃亡(도망) 하였다. 日本植民地政策(일본식민지정책)이 苛酷(가혹) 함을 맛보았다. 金昌烈(김창열) 氏는 萬歲運動(만세운동) 主動者(주동자)로 逮捕(체포)되어 二年間(2년간) 威興監獄(함흥감옥) 살이를 하였다.』

③ 양양장터

이와 같이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의 군중은 집결지인 양양장터에 모두 모였다.

먼저 양양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던 양양면 군중 300여 명, 손양면 군중 300여 명, 강현면, 도천면 800여 명이 합세한 군중의 기세는 의기양양했다.

이때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襄陽郡 大浦 습하여한 팔백명(八百名)의 群衆 昨六日에 千二,三百名에 달하여 읍내를 襲히려 하였으나 병력을 恐하여 폭행을 불위 주모자 七名을 引致함에 차에 引致件을 경찰서장에게 청원하였음으로 懇諭 退散케하다. 상 동군 헌북, 현남의 양반민심 동요 不穩의 兆가 있음”

이렇게 장터에 모인 1500여 명의 군중은 선두의 선창에 따라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잠시나마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만세군중은 “일본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외치며 행진하여 경찰서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일본인은 너희 나라로 떠나라” 외치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이재훈과 김원식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군중의 대표로서 서장과 군수에게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일경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하며 군중의 대표와 군중에 대하여 “자기들 일본 사람은 돌아 갈 테니 군중도 돌아가라”고 군중에게 허리를 굽혀 간유(懇諭)하며 빌었다. 석양이 붉게 빛날 때, 일경이 물러가겠다는 회유의 설명을 듣고 만세 군중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④ 양양보통학교 졸업반 학생의 참여

이 날 양양보통학교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 군중이 양양면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제4학년 학생인 김억준(金億俊), 이창식(李昌植)이 주동하고, 약 1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 나왔다.

그 후에 일경(日警)은 시위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양양면에서 옥고를 치른 복역자는 17명이었다. 그 명단은 최인식(崔寅植), 김재구(金在龜), 김필선(金弼善), 김주열(金周烈), 김봉운(金鳳運),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 이원희(李源熙), 김주호(金周鎬), 김규용(金圭容), 김계호(金啓鎬), 최영덕(崔永德), 김종태(金鍾台), 김명기(金明基), 최항식(崔尙植), 최영원(崔永原), 김봉도(金鳳道), 이경근(李敬根) 등 이다.

양양면 강산여, 김암이, 문달문, 홍대갑, 이상온은 2개월 자유형으로 60대의 태형을 받았다. 또한 이두형, 김두선, 안광수도 태형을 받았다. 박왕근, 박재룡, 박태석, 방덕홍, 성광호, 박성문, 우길록은 3개월 자유형으로 90대의 태형을 받았다. 또한 이두형, 김두선, 안광수도 태형을 받았다.

4월 5, 6일 양일간의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더욱 많았다. 시위 후에 도망한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못자리 설치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사

람도 많았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옥고(獄苦)를 치룬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함흥지방법원이나 강릉지청의 판결문이 현재 없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한 사람의 것도 일부만 남아있으며, 일제시대에는 옥고를 치룬 것을 스스로 감춰야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75 문서번호 : 771429 성명 : 최인식 외 4인 쪽번호 : 58-66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4월 1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조선총독부 검사 삼곡유부(澁谷有孚)가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식(寅植), 필선(弼善), 재구(在龜)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규용(圭容)을 징역 1년에, 피고 계호(啓鎬)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전부 몰수한다.

이유

피고 인식(寅植), 필선(弼善), 재구(在龜), 규용(圭容)은 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피고들의 거주지 면(양양면) 양양읍 장날에 모인 군중을 선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 아래에 서로 함께 안녕을 방해 할 것과 군중에게 배부하여 기세를 올리기 위해 구(舊)한국 기를 다수 만들 것을 공모하여, 4월 3일 피고 재구는 옥양목 및 백지를 구입하고 피고 필선과 모의하여 구(舊)한국 기를 인쇄하기로 하고, 해당 옥양목과 백지를 동 피고에게 교부하고, 동 피고는 양양면 면사무소에서 등사관을 이용하여 해당 백지 중 200매에 「대한국 독립만세 양양군」이라는 문구와 태극모양을 인쇄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서 가는 도중에 만난 피고 재구, 규용과 함께 피고 인식을 방문하여 서로 돕기로 하고, 인식이 사는 마을 이교정(李教貞) 집에 이르러 위의 옥양목을 원료로서 구(舊)한국 기를, 또는 미(未)인쇄용지에 국기모양을 인쇄한 것을 그리던 중 피고 계호(啓鎬) 외 1명이 찾아와 합석하여 위 사실을 말하며

참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계호는 이에 응하였으므로 이상의 피고들은 위 작업에 종사 중 군수 이동혁(李東赫)이 와서 위의 인쇄기(증 제3호), 베로 만든 깃발(증 제2호), 종이에 그려 만든 깃발의 일부(증 제4호)를 빼앗고 그 좋지 못한 마음가짐을 타이르자 위 피고들은 계획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나머지 종이에 그려 만든 깃발(증 제1호)를 가지고 양양면 차마리로 도주하여, 그 마을 이종태(李鍾台) 집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 4일 아침 그 장소를 출발하여 이종태는 베로 만든 깃발을 휘두르며 선두에서 나가고, 피고들은 이를 따라가는 도중에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위의 계획을 말하고 참가를 권유하며 위 증 제1호의 깃발을 배부하여 이를 흔들게 하고, 동일 오전 11시경 양양읍 시장으로 가서 피고 인식이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그 나머지 피고는 이에 같이 따라 함께 외쳐, 모인 군중 50여명으로 하여금 따라 외치게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의 당 공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공술, 증 제1호에서 제4호의 압수물건이 있음에 의하여 이를 인증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필선, 재구의 출판의 소위는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들 전부가 구(舊)한국 국기를 인쇄하고 또는 만들어 양양읍 시장으로 가서 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소위는 형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형법 제55조,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와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제1조를 대조하여 가벼운 전단의 법조에 따라 처단할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 필선, 재구의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은 하나의 소위로서 여러 개의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여 무거운 전단의 법조에 정해진 형으로 처단할 것이므로 피고 필선, 재구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 한다. 그 나머지의 피고에 대해서는 위 보안법 소정의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인식은 징역 1년 6월에, 피고 계호는 징역 8월에, 피고 규용은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 압수물건 중 증 제4호의 구(舊)한국 기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며 그 나머지는 범죄 행위를 조성하거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물건이며 모두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할 것이다. 그런데 원 판결에서 위 신규 법률을 대조를 하지 않고 바로 보안법 제2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또 보안법 위반의 소위를 병합죄로 문의(問擬)하고, 증 제4호의 압수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언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을 적용함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공소는 이유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손양면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김진열(金振烈), 최한두(崔漢斗), 김종택(金鍾澤), 신세묵, 이국범 등은 붙잡혀 원산 감옥에서 1년의 옥살이를 했고, 주리의 장두용(張斗容)은 태형을 받았다.

강현면에서는 강현면 물치리의 김두영(金斗榮), 박제범(朴濟範), 김대선(金大先), 김대광(金大光), 강선리의 전달원(全達元),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북리의 이철우(李喆雨), 이형우(李炯雨), 이능우(李能雨), 중북리의 김창열(金昌烈), 심한준(沈漢俊), 사교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침교리의 김원식(金元植), 김진선(金振璇), 김태선(金泰善) 등과 간곡리의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의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朴鳳來), 적은리의 장세환(張世煥), 주청리의 김경도(金敬道) 등과 윤형집(尹亨集), 김승식(金昇式), 박순범(朴淳範), 박관홍(朴寬弘) 이었다.

이중에서 박제범과 김대선은 미성년자로 함흥 유치감(幼稚監)에서 옥고를 치렀다.

또한 도천면은 도문리의 이석범, 이재훈(李載勳, 능렬), 이종국(李鍾國), 이춘재(李春載), 김영경(金英經), 김정식(金鼎式), 이동열(李東烈) 등과 부월리의 이종범, 이종은(李鐘殷),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등 이었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 이재환(李載煥)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의 태형을 받았다.

김사만도 강현면(降峴面)에서 만세시위를 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태형 180대를 나누어 맞는 일도 있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449 문서번호 : 840052 성명 : 이국범 쪽번호 : 559-568

피고인 이국범(李國範)의 상고취의는 본 피고는 독서로서 생명을 이어가는 단순한 서생이다. 어찌 허위를 말하여 양심을 혼탁 시킬까? 이번 독립운동에 대하여 장세환(張世煥), 이능열(李能烈), 김영경(金英經) 등을 교사 선동하였다고 추측하여 제1, 2심 같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부적법의 판결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피고가 대정 8년(1919년) 4월 5일 신흥산(신흥사)에 갈 때 강현면 장산리의 도중에서 장세환, 이능열, 김영경을 만남에 그 행로를 묻기에 강현면 박류시장에 만세를 부르러 가는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본 피고는 2가지의 이유로 말하면서 말렸는데 그 하

나는 '오늘 오전 11시경 잠목 상을 만났는데 그 시각 시장 상인 일동이 만세를 외친다고 말하였으니 오늘 시장에 가도 이미 시간이 늦었고 또 만세도 끝난 후라 가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오후 2시에 10여 리(里) 떨어진 시장에 가면 3시가 지나는 시간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 말하자 위의 3명은 '우리들은 단순히 만세를 부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4월 3일 만세사건으로 인하여 잡힌 사람들의 해방을 주민들과 단합하여 경찰서에 청하러 가는 것이다.' 고 말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권유하여 오늘 시민을 집합하는 것은 폭행의 염려가 있으니 각 부락의 양반 유생들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담보를 한 후 방면을 구하는 것이 방책이다.' 라고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시장에 가서 시민들을 모아 만세를 외쳤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 청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 3명 중의 1명은 1년 8개월 다른 2명은 각각 1년 4개월의 형을 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장세환은 금년 4월 5일 만세를 부른 후 바로 도주하였다가 1개월 만에 자수한 자이나 심문을 받을 당시 자기의 범죄행위는 본 피고의 교사에 의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심히 의심스럽다. 본 피고에게서 교사를 받았다면 위와 같이 동군 양반 유생의 서명을 받아 잡힌 사람들의 석방을 경찰서에 간청하여야 하는데 시민을 모아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장세환의 심문조서에 의하여도 본 피고의 교사에 의하였다는 말이 전혀 없고 장세환의 진술은 다르다 자기의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부실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교사의 본질에 있어 교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교사를 받은 자의 행위가 교사자의 교사와 매우 다르다. 교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다. 그러나 제1, 2심에서는 본 피고에게 과도한 형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형법 61조의 정신을 반복해석하면 본 피고는 어떤 형을 받을 것이 없다. 이에 문명의 재판을 하여 무죄판결 있기를 간청하고 있다.

관리번호 : CJA0000178 문서번호 : 771432 성명 : 이재훈(능렬) 외 2인

쪽번호 : 454-460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1919년) 4월 23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등으로부터 공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태랑(寺田恒太郎)이 관여하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능렬(能烈)을 징역 1년 8월, 피고 원식(元植), 형우(炯雨)를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 이능렬(李能烈)은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의사를 계속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밤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李鍾國)의 집에서 차압에 관계되는 태극기 2개를 만들고, 동 마을 주민 수명에게 내일 5일 동군 봉현면 물류시장에서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뜻에 참가할 뜻을 알리고 선동하여 다음 날 5일 정오경 물류시장에서 선동에 응하여 모여온 군중 수백 명을 지휘하여 위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위의 군중을 인솔하여 약 20가(街) 거리에 있는 도천면 대포경찰관주재소부근에 도착하여 재차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위의 군중에게 양양경찰서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자를 구속하였는데 이는 불법이라 다음날 6일 양양읍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또 피구속자 방환(放還)을 요구해야 함에 일동도 모이라는 뜻을 알리고 선동하여 다음날 6일 오후 1시경 수백 명 의군중과 함께 양양읍 시장에서 전시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고,

피고 김원식(金元植), 이형우(李炯雨)는 동 정치변혁의 목적 하에 의사를 계속하여 피고 능렬(能烈)이 위의 행동에 가입하여 물류시장 및 양양면에서 군중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고,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능렬(能烈)이 당 공정에서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밤마을 주민 여러 명을 선동한 점을 제외한 그 밖의 사실을 자백, 사법경찰관이 동 피고 신문 조서 중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밤마을 주민 여러 명을 선동한 사실의 자백 기재, 피고 원식(元植)의 당 공정에서의 자백, 사법경찰관이 피고 형우(炯雨) 신문 조서 중 자백 기재, 압수에 관계되는 태극기 2개가 현존함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니 피고 등의 소행은 형법 제6조, 제8조에 의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5조와 대정 8년(1919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 형법 제55조와를 대조하여 가벼운 전단의 법조에 의해 처단해야하는 범죄이므로 그 소정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능렬(能烈)을 징역 1년 8월, 피고 원식(元植), 형우(炯雨)를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해야 한다. 압수물건은 범죄의 공용물건이고 또 범인 이외의 사

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처분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신구 법률의 대조를 하지 않고 쉽게 보안법을 적용 처단함은 의을 부당함으로 피고 등의 공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추모시

- 양양 3·1만세 운동에 직접 참가한 김철기(金鐵起)가 해방되고 첫 번째 3·1절 기념식 행사장(1946년 3월1일)에 참가하여, 그 날을 회상하며 순직한 독립운동가를 ‘마음 터놓고 추도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추도한 한시를 소개한다.

桓疆舊域建新機(환강구역건신기)	환단의 옛 강역에 새로운 기틀을 세우려
既着念頭時不違(기착염두시불위)	생각은 때를 어기지 않고 이미 착수했네.
陷死後生今日是(함사후생금일시)	죽음에 빠졌던 후생들이 오늘을 시인하며
要譽先毀去年非(요예선훼거년비)	명예를 얻고자 헐뜯던 지난해를 비난하네.
看靑白髮愁何在(간오백발수하재)	우리가 보는 백발의 수심 어디에 있나
挽彼黃河運復歸(만피황하운복귀)	저 만장은 황하에서 복귀하는 운수로다.
中途幾人含怨逝(중도기인함원서)	중도에 몇 사람이나 원한을 품고 가셨나
表衷追悼淚霑衣(표충추도루점의)	마음 터놓고 추도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5) 4월 7일

오늘은 나흘째 날 양양 3·1만세 운동이 4곳에서 있었다.

양양읍내에서는 4일부터 9일까지 양양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6일부터 증강된 일본군인 1개 소대가 양양에 주둔하여 양양경찰서와 주재소에 배치되어 수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7일부터는 읍내에서 주도적인 만세운동을 할 수 없었다. 4월 7일은 양양군에 수비대 병력이 증강되어 양양읍내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 다섯 곳에 일경과 수비대를 배치하여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각 면에서 진입하던 만세 군중은 돌파하지 못하고 길목 외곽에서 만세만 부르다가 해산했다.

전국적으로 가열해 지는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제가 6개 대대의 증원부대를

보냈는데, 4월 5일 1개 중대는 제20사단 제79연대에 편입되어 강릉에 왔다. 그 중에 1개 소대가 양양에 주둔하여 양양경찰서와 주재소에 배치되어 수비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양양읍내 주민과 천도교인의 합세 만세, 서면의 야간 면사무소 습격, 현북면의 위로만세, 낙산사 스님들 횃불 만세운동, 봉화대 만세운동이 있었다.

(1) 양양장터

천도교인과 양양면 만세군중 300여 명이 합세하여 양양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 양양의 천도교는 1869년에 김경서(金慶瑞), 최혜근(崔惠根)이 경상도 영양군 일월산에 있는 최시형(崔時亨)에게 다녀왔다. 최시형은 그해 3월부터 1870년 10월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는데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김덕중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인제 귀둔리로 떠났다. 그 후 1908년 4월경에 천도교 회당 1개소에 교구장 및 교역자 2명과 신도 213명으로 창립하였다.

당시에 신분이 확실 치 않는 손양면 간리 권병연, 서면 상평리 박춘실, 도천면 논산리 손계원은 엿장수나 술장사를 하면서 살았고, 서면 조개리 구룡령 산기슭에 사는 지식화도 양양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의병이나 천도교인으로 유추된다고 하겠다.

당시의 강원도장관의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7일 오후 2시 반 천도교도(七日 午後 二時半 天道教徒)를 중심(中心)으로 약 3백명(約 三百名)의 군중(群衆)이 운동(運動)을 개시(開始)하여 양양읍내(襄陽邑內)에 압기(押奇)하여 부수모자 4명(付首謀者 四名)을 체포(逮捕)하여 해산(解散)시켰다.”¹³⁾

4월 6일 서면 조개리 지식화는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식에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걸어서 왔다가 일경에 체포되자 다음날 7일에는 천도교인들이 양양장터에 모여 거세게 항거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I, 715쪽

(2) 서면

앞에서 말한 김학구(金學九)의 순국 및 장례식에서의 처절한 슬픈 광경과 일제의 탄압에 격분되어 폭발한 서면 지역 상평리 일대 농민 100여 명이 7일 저녁에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창문을 깨고 목 놓아 울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치는 소리가 남대천 건너 북평리 까지 들렸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7일야 양양군 서면사무소(七日夜 襄陽郡 西面事務所)에 약 백명(約 百名)의 폭민 내습(暴民 來襲)하여 창문(窓門)을 파괴(破壞)하고 면 직원(職員)에 대(對)하여 폭행(暴行)을 가(加)하다, 그런데 중요서류(重要書類)는 팔일중 군청보관(八日中 郡廳保管)을 탁(托)하여 1시 면사무(一時 面事務)를 중지(中止)하다.”¹⁴⁾

그 후 4월 11일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사흘 동안 면사무가 중지되었다.

이때 유리창을 깨고 면서기를 폭행하던 주동급 김동섭(金東燮)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또 4월 4일 양양경찰서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상을 입은 최학길(崔學吉, 명옥)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 낙산사

낙산사에 주소를 두고 3·1독립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불교 대표로 참여한 만해 한용운의 민족정신에 감응된 낙산사 스님들은 7일 저녁 술시정각(戌時正刻 : 오후 8시 정각)에 범종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고각에서는 범고소리 계속 울리고, 스님들은 모두 오봉산 정상에 올라 바라소리 울리면서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 소리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이르도록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고서 절로 내려와서는 법당에서 자정까지 대한독립을 염원하는 불공을 올렸다.

한편 각 면에서는 산위에서 봉화를 올려 전군민이 봉화를 바라보며 조선독립을 염원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6쪽

(4) 현북면

현북면의 원래 계획은 4월 9일 양양장날에 만세운동을 할 목적으로 원일전리의 박원병이 독립선언서를 복사하려고 소지한 혐의로 4월 6일 양양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그의 형 박규병은 현북면의 계획에서 독립하여 박용규와 장리에서 서당 훈장으로 학생을 가르치던 이성윤과 뜻을 같이하고, 가마터에 모여든 약 40명의 군중에 대하여 만세운동을 하자고 하여 찬동을 얻었다.

6일 원일전리에 모여 내일의 계획을 설명하고 찬성을 얻어 7일 양양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 기회를 타서 다수 군중을 선동하고, 한쪽으로는 그 기세를 믿고 구속된 동생 박원병의 석방을 청원하기를 시도하였다.

7일 아침에 9일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일부 대형 태극기와 소형 태극기를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200여 명의 주민과 서당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소지하게 하고, 선두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박용규, 박규병의 선창에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남대천을 따라 2시간 정도 걸어서 서면 용천리에 내려왔으나, 일본 군경이 남대천 건지산 및 두물 머리에 미리 대기하고 있어 얼마동안 대치하다가 임천리에 건너가 만세를 부르고, 용천으로 되돌아오다가, 용천리에서 만난 일본 군경을 보고 조선독립 운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이날은 지난 4일 양양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용천리 주민의 부상자가 많았다고 위로하는 뜻에서 만세를 불렀다하여, 이 만세를 ‘위로만세(慰勞萬歲)’라고 부른다.

당시의 주동자 이성윤은 그 후 은신하고, 박규병은 체포되어 1년 2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75 문서번호 : 771429 성명 : 박규병 쪽번호 : 94-99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4월 19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삼곡유부(澁谷有孚)가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 판결 중 피고 박규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박규병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베로 만든 국기 1개는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유

피고인은 대정 8년(1919년) 3월 초순 이후 조선 내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그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한 사람이 선창하고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거주하는 마을에서도 역시 이와 동일한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도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4월중 친동생 아무개가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이 작성한 조선독립선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양양경찰서에 구속되자 이 기회를 틈타 다수의 민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하고 그 방법으로서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위 경찰서로 몰려 들어가는 한편, 그 세력을 이용하여 친동생의 석방을 청원할 것을 계획하고, 동년 4월 6일 거주하는 마을 가마솔 제조장에서 모인 약 40명의 군중에게 위 계획을 알리고 그 찬성을 얻어, 다음 7일 아침 거주면 장동리 고개에 모여서 구(舊)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함께 양양읍내로 몰려 들어가지는 내용을 약속하고, 그날 밤(6일 밤) 자택에서 원심 피고 박용규(朴容圭)와 함께 구(舊)한국 국기 1개(증 제1호)를 만들어 준비하고, 다음 날 7일 아침 위의 약속에 따라 위 장동리 고개로 건너가 그 장소에 모인 민중 100여명의 선도자로서 위의 구(舊)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양양 읍내를 향해 행진하던 도중에 양양읍 서쪽 끝 임천리에서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집단의 대표자 외 2명과 함께 양양경찰서로 가던 중 양양군 서면 용천리에서 만난 양양경찰서 대원에게 조선독립 운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져 물음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정에서 피고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 압수된 증 제1호의 베로 만든 국기가 있음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신구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해야 한다.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구법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각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9조에 의하여 두 개의 형을 비교하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 보안법을 적용하여 소정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1년 2월에 처해야 한다. 압수 증 제1호의 국기는 본 건 범죄

를 조성하고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데 원 판결에서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하지 않고 바로 보안법을 적용하고, 또 관시의 범행을 두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병합죄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본 건 공소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4월 8일

오늘은 다섯째 날 양양 3·1만세 운동이 있었다.

현북면은 독자적으로 4월 8일 말곡리 구장 김창환이 노약자를 제외한 마을 주민 대다수를 인솔하여 현북면사무소와 기사문리 주재소에 몰려가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벌리다가 불상사 없이 저녁때 마을로 돌아와, 내일(9일) 만세운동 준비를 위하여 각자가 소지할 수기를 다시 만들었다.

도천면은 논산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운동이 일어나니 논산리에서도 만세운동에 대한 명분론이 일어났다. 원래 이 마을에는 중심인물 김주혁(金周赫)이 당시 강원도청 주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시는 없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온 군민이 만세운동에 참가하는 형편이 되었으니, 당시의 구장 김주철(金周哲 : 김주혁의 종형),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등이 주동하였고 마을 앞에서 술장사를 하던 손계원이 힘을 모아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지로 하여 큰길로 갔다.

큰길은 부월리를 거쳐 대포리로 이어졌는데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이미 도천면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면서 만류하여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

이날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하여 김주철,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은 검거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김주철을 제외한 4명이 90대의 태형을 받았다. 태형을 맞은 4명은 상처가 심하여 거적으로 만든 들것에 얹드려 이틀 동안 집으로 와서 일 년 동안 영당이 상처에서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하였다고 한다.

7) 4월 9일

양양 3·1만세운동 여섯째 날 이었다. 양양 마지막 3·1만세운동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소위 '기사문리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1) 현북면 사무소

오세옥, 이용렬 등의 상광정리 감리교회와, 오익환, 김재한, 박원병, 오정현 같은 한 학자, 포수 김종대 등의 젊은 청년과 현북면 각 마을의 구장들이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김재한은 김익열,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운성,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등이 현북면사무소 앞에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소리쳐 부르게 하였고, 김종대는 수기로 만든 태극기 34개와 대형 태극기 1개를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많은 군중이 신작로까지 가득 메운 가운데 황선주, 윤명종은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했다.

각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되어 장날인 양양면에 갈 계획으로 현북면 사무소 앞에 모였다. 이에 어떤 집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참가하고, 가까운 마을에서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른, 아이들도 모였다. 일본 측 기록은 6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군중을 모으기까지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이국범과 김재한의 역할이 컸다. 이국범이 4일 도리 김재한의 집에 와서 경성 지방은 조선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 양양군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

기 혼자 양양군 전체를 알리기 어려우니 자신에게 손양면, 현북면이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주선하라고 하였다. 이에 김재한은 면민 다수를 권유하고 말곡리 구장 김창환 집에 가서 권유하였다.

또 김재한은 상광정리 김종대 집을 방문하여 “이 번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하면서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양양읍내에서 크게 독립만세를 불러 양양경찰서에 체포된 동지를 구하자고 했다. 그리고 김종대 집에서 이희원에게 “이번 양양군 각 면 모두 대한독립운동을 위해 양양읍에 모여 조선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오직 우리 현북면에서만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면으로부터 후일 면목이 없겠지. 내가 다른 마을에는 이미 권유를 마쳤는데, 모두 이에 찬동하여 9일에는 양양장터에서 현북면민이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칠 것이니 자네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하여 이희원도 도리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이에 찬동하였다.

또한 6일 권광식도 김재한이 나와서 모이라고 말하였는데, 김재한이 말하기를 “본군 내의 다른 면민은 대한독립운동을 하므로 현북면도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서 명지리 구장 권광식은 “다른 면민이 실행한다고 하면 본 면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명지리는 자신이 맡겠다.”고 말하고, 8일 마을 주민을 모아 협의하여 각 집에서 1명씩 나오기로 결정하고 9일 마을 주민 40여 명이 모여 참가하였다.

대치리(大峙里) 마을 주민은 구장 김종성과 황선주가 선도하였다. 황선주가 8일 밤 와서 “내일 9일 현북면 내 다른 마을 사람은 전부 현북면사무소로 집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하였는데, 이 마을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기에, “다른 마을 사람이 집합한다면 대치리 마을 주민도 간다.”고 대답하고, 한윤성 외 여러 주민을 불러 협의한 후 대한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9일이 되어서 20명이 나왔기에 이들을 이끌고 갔다. 후일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구장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반드시 대한제국이 독립한다는 소문을 들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구장 김익열은 김종대에게 현재 여러 곳에서 성대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니 우리들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권유하였다. 그리고 윤명중은 마을 주민 몇 명에게 권유도 하면서 전체 마을 주민이 모여 함께 현북면사무소 앞으로 갔다. 이렇게 구장들이 마을 주민을 선도하여 면사무소에 모였다.

일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줄 알고 참가한 이도 있었다. 마을마다 구장들이 선

두에 섰고, 현북면에서 신망이 있는 임병익, 김재한 등과 감리교인 오세옥 등이 앞장 선 이 모임은 마치 면민대회와 같은 분위기였다.

당시 상황을 강원도장관의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 주재소(四月 九日 襄陽郡 縣北面 其士門 駐在所)를 습(襲)한 폭민(暴民)은 면장(面長)을 협박(脅迫)하기를 심(甚)히 하여 면장(面長)은 부득이 일시 사무(不得已 一時 事務)를 중지(中止)하고 피난 중(避難中)이다.”¹⁵⁾

위의 보고문 중 기사문주재소는 면사무소를 잘못 보고하였으며, 현북면사무소는 중요 서류를 이미 감추어 버렸고, 면장과 면직원은 모두 도망하였다. 군중은 면사무소 주변에 모여서 기세 높게 만세를 부른 후 면장을 앞세우고 양양면으로 가려고 먼저 면장을 찾았다.

그러나 면장은 하광정리 구장이었던 김진혁의 집에 3일간 숨어 있었다. 김진혁은 만세운동의 지도자이며 자신이 태극기도 만들고 군중도 동원하였다. 그러나 면장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자기 집에 숨겼고, 면사무소의 서류도 자기 집에 보관하여 놓고 비밀을 지켰던 반면, 기사문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선창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여 그 뒤, 모든 마을의 구장들이 징역을 살았는데 김진혁은 징역을 면하였다.

현북면의 군중이 면사무소의 주변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양양면으로 가려고 할 때 양양군 남부에서 신망이 높던 김익제(金翼濟)가 양양면에 가려던 군중을 저지 시켰다. 그는 손양면 동호리의 사람으로 그가 하광정리에 온 이유는 양양면에 수비대가 주둔하여 그곳으로 간다면 인명 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만류하러 왔다고 하였다. 만세군중은 한창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는 주먹밥을 싸가지고 와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2) 기사문주재소

이에 계획을 바꾸어, 군중은 하광정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사문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하광정리와 기사문리 사이에는 해발 50m 정도 되

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7쪽

는 관 고개(만세고개)¹⁶⁾가 있는데, 김익열, 문종석(文鍾錫),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韓允聲),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등이 각 마을 주민의 선두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면, 모인 군중, 장꾼, 구경나온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만세 군중이 되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고개를 올라갔다, 때 마침 신작로에 가로수를 심고 지주를 바쳐놓고 있을 때여서 일부 군중들은 지주를 뽑아들고 관고개를 넘어갔다.

기사문주재소에는 며칠 전부터 현북면 일대의 만세운동 분위기를 짐작하고 강릉수비대가 도착하여 있었다. 군중이 주재소 전방의 다리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재소 순사이홍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 한참동안 군중과 일경이 대치하여 옥신각신하다가, 하광정리 구장 김진혁의 선창으로 만세를 불렀고, 이에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군중들의 만세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자,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숨어 있던 5명의 수비대와 일경이 발포하였다. 순식간에 군중의 선두와 고개를 넘는 군중은 쓰러졌다. 현장은 피바다가 되면서 군중은 흩어졌다. 현장에서 9명이 사망하고 약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상황을 4월 10일 10:00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야소교도(襄陽郡 縣北面 下光丁里 耶蘇教徒)를 중심(中心)으로 한 600명 4월 9일 오전10시(限600名四月九日午前10時) 지개 봉(棒)을 휴(携)하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면서 기사문경찰관주재소(其土門警察官駐在所)를 습(襲)하여 폭행(暴行)하다 때마침 강릉수비대(江陵守備隊)로 부터 래(來)한 보병 5명(步兵 五名)과 공력(共力)하여 발포진압(發砲鎮壓)에 노역 폭민사자 9명(努力 暴民死者 九名)을 출(出)함 외(外)에 부상자 약간(負傷者 若干) 있는 모양(模樣)이나 불명(不明)”¹⁷⁾

앞의 전화보고 내용의 나무 반침대를 곤봉으로 운동 군중이 주재소를 습격, 폭행한다는 내용은 그들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한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허위 보고였다. 즉 이 때 만세운동 참가자들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총격으로 참상은 가혹하였다. 또한 관고개는 만세운동 이후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만세고개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다.

16) 관 고개 또는 기사문고개를 양양만세운동 때 현북면민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이 고개를 넘는 만세군중에게 일제군경이 무차별 발포하여 무수한 사상자가 생겼던 고개이다. 지금은 관 고개 보다는 만세고개라 부르고 있다.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716쪽

당시의 피살자는 전원거(全元擧, 하광정리), 임병익(林秉翼, 중광정리), 홍필삼(洪必三, 어성전리), 김석희(金錫熙, 어성전리), 고대선(高大先, 어성전리), 황응상(黃應想, 어성전리), 문종상(文鍾祥, 말곡리)¹⁸, 진원팔(陳元八, 어성전리), 이학봉(李學奉, 명지리) 모두 9명이었다. 그러나 1923년 12월 1일자 개벽 42호에는 사망자 1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상자도 당시 일본의 탄압 때문에 숨겨져서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20여 명의 부상자 중 확인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하광정리 이종남(李鍾南), 이종우(李鍾雨)와 김응옥(金應玉), 상광정리 오세관(吳世管)과 오문환(吳文煥) 그리고 오세풍(吳世豐), 대치리 황중칠(黃中七), 어성전리 함병원(咸秉元), 강춘실(姜春實), 정홍엽(鄭泓燁), 홍금석(洪金石), 김봉구(金奉九) 등이다.

그리고 이날의 독립만세운동 후 검거되어 태형을 받은 사람을 전부 찾아낼 수 없어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시에 일경이 만세 참가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살살이 찾아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였다.

이날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옥고를 겪은 독립운동가는 오세옥(상광정리), 김창환(말곡리 구장), 김익열 (상광정리 구장), 문종석(말곡리), 오정현(상광정리 한학자), 김재한(도리 한학자), 김종대(상광정리 포수), 박원병(원일전리 서당훈도), 김우근(중광정리 구장), 박용기(원일전리 구장), 김두철(어성전리 구장), 권광식(명지리 구장), 이형규(어성전리), 김종성(대치리 구장), 한윤성(대치리), 이원규(어성전리), 황선주(대치리), 이희원, 이응렬(명지리 감리교인), 우흥수(어성전리), 박용규, 이희택, 이선택 등이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49 문서번호 : 771443 성명 김창환 외 13인 쪽번호 : 498-520

위 14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14명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의 간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18) 기사문리 만세고개 기념탑의 사망자 명단 중 현재까지 기록상으로는 문종상(文鍾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8년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문종상은 1912년 출생(1919년 당시 8세)하여 1979년까지 생존하였으며, 문종상의 형 文鍾熙(문종희)는 1902년 출생으로 남평문씨 족보에 1919.4.9. 만세운동당시 만세고개에서 일경이 발포한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여 기존의 만세고개 사망자 문종상은 문종희의 오류임을 밝혀 2018년 11월 독립유공자 신청(문종희)을 하였음.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재한(金在漢)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 김창환(金昌煥), 권광식(權廣植), 김종대(金鍾大), 오정현(吳鼎鉉)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김종성(金鍾聲), 한윤성(韓允成), 이희원(李喜源), 김우근(金禹根), 김익렬(金益烈), 문종석(文鍾錫)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황선주(黃璇柱), 윤명중(尹明鍾)을 각 구류 25일에 처한다.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에 대하여 각 미결구류일수 중 각 18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 황선주, 윤명중에 대하여 각 미결구류일수 중 각 25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오세옥(吳世玉)은 무죄.

피고 김재한,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황선주, 한윤성, 김종대,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윤명중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각 무죄.

압수물건 중 령(領) 제484-2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 동(同)-3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 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는 각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공소 소송비용 중 돈 32원 30전은 피고 오세옥 이외의 피고 13명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김재한은 대정 8년 3월 이후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다중에게 동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여 동년 4월 9일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 현북면사무소 앞으로 갔는데, 전시 운동을 할 것을 알고 있던 피고 김익렬, 문석중,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등은 그곳에 모여 있었다. 또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피고 김종대도 그곳으로 와서 모였다. 이에 전시 피고 11명은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압수 령(領) 제484호-2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 동(同)-3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 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를 휴대하고 이를 흔들며 군중과 함께 독립운동방법으로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황선주, 윤명중은 동일 동 사무소 앞인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각 무의미하게 만세를 외쳐 시끄럽게 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한 피고 김재한, 이희원, 오정현의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공술,

피고 김익렬,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김우근의, 자신들은 동년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공술,

검사의 피고 김재한에 대한 조서 중에, 동년 음력 3월 4일(4월 4일) 이국범(李國範)이란 자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에게, 이번의 조선독립운동에 대해 경성지방은 크게 소요하고 있음에 따라 양양군에서도 독립운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신(동인을 가리킴) 한 명으로는 권유하기가 곤란하니 자신에게도 양양면, 현북면을 선동하여 운동을 하라고 명령하였기에 자신은 면민 다수를 선동하였다. 위 선동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김익렬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8일 자신은 김종대라는 자로부터 9일 양양읍으로 만세를 부르러 갈 것이니 자네도 마을 주민은 선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자신의 집 부근 12~13가구를 선동하기로 하고 국기를 만들었는데 이를 순사가 알아차려 도주하였다. 또한 8일 황선주, 김종성이 와서 ‘내일 어떻게 가느냐?’고 말하기에, ‘각 사람이 국기를 휴대하고 또한 점심을 지참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자네들도 그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날 9일 아침 자신은 김종대의 집에 갔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온 자에게 구한국 깃발 1개씩을 건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김재한은 ‘양양읍으로 가는 것은 중지하고 기사문리(其士門里)로 가자’고 말하였으므로 일동 이에 찬성하고 예정을 변경하여 면사무소에서 각 마을 사람이 취합하여 그 곳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

피고 김익렬 예심조서 중에, 자신은 4월 9일 만세를 부르기 위해 현북면사무소로 갔다는 내용,

원심공판시말서 중 피고 문종석의, 자신은 동년 4월 9일 면사무소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문종석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4월 8일 김재한, 김창환, 윤명종과 자신은 상담한 후 자신과 김재한은 한국 대형 국기를 만들기로 하고, 김창환과 윤명종은 소형 국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9일 아침 자신은 조선지(朝鮮紙) 1장을 가지고 와서 김재한과 함께 구한국 깃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기사문리(其士門里)로 갈 때 군중에게 ‘이 마을에 가서도 우리들이 먼저 만세를 부르면 일동이 따라 부르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내용,

피고 김창환 제2회 예심조서 중에, 동년 4월 8일 김재한은 자신의 거주지 마을에 와서 자신들 마을 주민 5, 600명을 불러, ‘내일 현북면사무소로 가서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

기로 하였으니 면사무소로 오라'고 말하므로 자신은 만세를 부르러 갔다. 김재한은 이 국법의 권유에 의해 이렇게 권유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동인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독립운동을 위해 면사무소로 가도록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동월 9일 면사무소에 갔더니 3, 400명이 모여 있었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김창환에 대한 제1회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4월 8일 다수의 마을 주민을 이끌고 현북면사무소 및 기사문리 주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동 피고 권광식에 대한 제1회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오후 2시 현북면사무소에서 약 500명의 면민이 집합한 후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기사문(其土門) 경찰주재소로 갔다. 자신도 그 때 대한민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위는 4월 6일 김재한이 나와서 모이라고 말하였는데, 동인이 말하기를 '본군(本郡) 내의 다른 면민은 대한민국독립운동을 하므로 현북면도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서 자신은 '다른 면민이 실행한다고 하면 본 면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명지리(明池里)는 자신이 맡겠다.'고 말하고, 8일 마을 주민을 모아 협의하여 마을 내 각 집에서 1명씩 나오기로 결정하고 9일 마을 주민 40명이 한 무리가 되어 참가한 것이라는 내용,

동 피고 김종성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자신은 현북면사무소 및 기사문 주재소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마을 주민은 자신과 황선주가 선동하였다. 위는 황선주가 8일 밤 와서 '내일 9일 면 내 다른 마을 사람은 전부 현북면사무소로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하였는데, 이 마을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기에, '다른 마을 사람이 집합한다면 대봉리(大峙里) 마을 주민도 간다.'고 대답하고, 한윤성, 기타의 사람을 불러 협의한 후 조선독립만세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9일이 되어서 20명이 나왔기에 이들을 이끌고 갔다. 자신은 구장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 반드시 조선이 독립한다는 소문을 들어 이러한 일을 한 것이라는 내용,

동 피고 황선주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면민 500명 이상이 현북면사무소에 집합하여 성대히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고, 자신도 외쳤다. 그 선동은 자신과 김종성과 한윤성 등이 하였다는 내용,

동 피고 한윤성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4월 9일 현북면사무소에서 다수와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검사의 피고 김종대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자신은 면사무소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후 경찰관 주재소로 향했다. 그 사람 수는 5, 600명이었고, 만세를 부른 이유는 구장 김익렬이 자신에게 현재 여러 곳에서 성대히 조선독립만세를 외치

고 있는 중이니 우리들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동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
동 제2회 신문조서 중에, 김재한은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번 조선독립운동을 하는데 자신은 손양면과 현북면을 선동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현북면을 선동하는 데에 자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4월 9일 현북면사무소 및 기사문 주재소에서 다수와 몰려갔다. 김재한은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서 형사피고인을 탈환하여 양양읍에서 크게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동 피고 이희원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5일 밤 자신은 자택에 있었는데, 김중대의 집에서 김재한이 부르러 왔기에 갔더니, 동인은 자신에게 ‘이번 양양군 각 면 모두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양양읍에 모여 붙은한 행동을 하였는데 오직 우리 현북면에서만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면(面)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을 지도 모를 뿐 아니라 후일 면목이 없기에 자신은 각 마을에는 이미 권유를 마쳤다. 그런데 일동이 이에 찬동하여 4월 9일에는 양양읍에서 다수 군중이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칠 것이니 자네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하여 자신도 도리(道理)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이에 찬성하였다는 내용,

피고 오정현 예심 제2회 조서 중에, 자신은 4월 9일 현북면사무소 앞에 가서 3, 400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검사의 피고 김우근에 대한 조서 중에, 자신은 4월 9일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수 백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윤명종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동월 9일 마을 주민 및 다수와 함께 현북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친 일이 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동을 한 일이 있다는 내용의 각 공술기재,

순사 구치(具治) 보고서 중에, 동년 4월 9일 정오 12시경 조선독립만세로 내습할 때 김재한 외 다수의 사람은 구한국 국기 대형 2개, 소형 34개를 흔들며 왔기에 바로 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압수 령(領) 제484호-2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 동(同)-3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 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의 현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중대, 오정현, 김익렬, 문종석, 김중성, 한윤성, 이희원, 김우근의 소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제10조 제9조에 의해 신, 구 2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소위는 각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 조선형사령 제42조에서 형명을 변경한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여 이를 대

조하니 각 구범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시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 김재한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피고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을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황선주, 윤명종의 소위는 각 경찰범치벌규칙 제1조 제39호에 해당하여 소정형 중 구류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서 각 구류 25일에 처한다. 전시 피고 13명 모두 그 미결구류일수 중 일부는 본형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21조에 의해 피고 황선주, 윤명종에 대해서는 각 25일을, 그 나머지의 피고 11명에 대해서는 각 18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오세옥이 동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이어서 동 피고 및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김종대, 이희원, 문종석, 황선주, 한윤성, 오정현, 김우근, 윤명종이 기사문(其士門) 경찰관주재소에 몰려가서 치안을 방해하고 경찰관현의 해산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유치 중인 마을 주민을 탈취하자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군중에 술선하여 선동, 지휘하고, 동소 및 동소 근무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기타 폭행을 하여 순사 지내장일(池內壯一) 외 1명에게 창상(創傷)을 입혀 소요를 극심하게 하고, 또한 그때 다중이 취합하여 폭행, 협박을 하는 사정을 알고 이에 부화수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각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 오세옥의 전시 공소사실 및 피고 김재한 외 11명의 전시 공소사실 중 치안방해 이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36조 제224조에 의해 각 무죄의 언도를 한다. 전시 피고 김재한 외 11명의 치안방해의 공소사실은 판시 치안방해 공소사실과 연속범으로서 기소된 것이므로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않는다.

압수물건 중 령(領) 제484-2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 동(同)-3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 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는 판시 범죄의 행위에 사용된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해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공소 소송비용 중 예심에서의 증인 최우길(崔祐吉), 김익제(金翼濟)에게 지급한 돈 32원 30전은 판시 범죄로 요구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형법시행법 제67조에 의해 피고 오세옥 이외의 피고 13명으로 하여금 연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즉, 원판결에서 피고 오세옥에 대한 치안방해, 소요 공소사실, 피고 오세옥, 김익력 이외의 피고 12명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을 각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형

의 언도를 하고, 피소 황선주, 윤명중에 대하여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고, 압수물 령(領) 제484-1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13개를 판시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몰수의 언도를 하고, 또 오세옥 이외 피고 13명에 대하여 그 미결구류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14명의 공소는 각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8) 현남면 및 그 외의 만세운동

양양군 7개 면 중에서 현남면만이 양양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양양읍치(襄陽邑治)에서 현남면까지는 가깝게는 50리, 멀게는 70리에, 도보로는 5시간 이상 거리의 위치이므로 연락과 왕래가 여유롭지 못한 지리적 특성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길목에 기사문리 주재소가 가로막고 있어 현남면 군중은 경계가 삼엄한 기사문리 주재소를 도저히 통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통과한다면 치더라도 양양만세운동에 참가하려면 1박2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현남면 주민들은 양양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려고 마을 마다 구장이 주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을 미리 탐지한 일경은 사전봉쇄작전을 폈으므로 양양장터의 만세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애국충정에 들끓는 현남면민은 계속 동요하였다.

기사문사건 이후의 만세운동으로는 일본 군경의 삼엄하고 철통같은 경계 아래에서도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양면 남대천 앞산에서 37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양양 31만세 운동은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6개면 82개 마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여 연인원 15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만세장소는 양양장터, 물치장터, 양양군청과 경찰서, 대포주재소, 기사문주재소, 강현면 사무소, 서면 사무소, 현북면 사무소 등 이었다.

양양군의 31만세운동 중 일제의 폭압으로 사망자 12명, 부상자 43명, 수형자 87명, 체포 172명 이었다, 그리고 태형은 수 없이 많았다.

○ 양양 3·1만세 운동 당시 만세운동 현장 사망자는 <표8> 과 같다

<표 8> 사망자 명단

성 명	년 령	당시주소	사망유형	비 고
권병연(權炳淵)	28	손양면 간리	왜경의 일본도	양양경찰서
함홍기(咸鴻基)	24	손양면 가평리	왜경의 일본도	양양경찰서
김학구(金學九)	24	서면 상평리	총탄	양양경찰서
고대선(高大先)	24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김석희(金錫熙)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문중희(文鍾熙)	19	현북면 말곡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이학봉(李學奉)	37	현북면 명지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임병익(林秉翼)	24	현북면 중광정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전원거(全元擧)	35	현북면 하광정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진원팔(陳元八)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홍필삼(洪必三)	24	현북면 중광정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황응상(黃應相)	45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	현북면 기사문리

○ 양양 3·1만세 운동 당시 수행자 명단은 <표 9> 과 같다.

<표 9> 수행자 명단

면	이 름
양양면	김계호(金啓鎬), 김규용(金圭容), 김명기(金明基), 김봉도(金鳳道), 김봉운(金鳳運), 김재구(金在龜), 김종태(金鍾台), 김주열(金周烈), 김주호(金周鎬), 김필선(金弼善), 이경근(李敬根),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 이원희(李源熙), 최영덕(崔永德), 최인식(崔寅植), 최항식(崔亢植)
손양면	김종택(金鍾澤), 김진열(金振烈), 신세묵(辛世默), 이국범(李國範), 최한두(崔漢斗)
현북면	권광식(權廣植), 김두칠(金斗七), 김우근(金禹根), 김익열(金益烈), 김재한(金在漢), 김종대(金鍾大), 김종성(金鍾聲), 김창환(金昌煥), 문중석(文鍾錫), 박규병(朴奎秉), 박용기(朴容琦), 박원병(朴元秉), 오세옥(吳世玉), 오정현(吳鼎鉉), 윤명종(尹明鍾), 이선택(李善澤), 이선제(李善濟), 이원규(李元圭), 이형규(李亨奎), 이희원(李喜源), 이희택(李喜澤), 우흥수(禹興遂), 한윤성(韓允聲), 황선주(黃璇柱)
강현면	김경도(金敬道), 김대광(金大光), 김대선(金大先), 김두영(金斗榮), 김승식(金昇式), 김원식(金元植), 김진선(金振璇), 김창열(金昌烈), 김철기(金鐵起), 김태선(金泰善), 김환기(金桓起), 박관홍(朴寬弘), 박봉래(朴鳳來), 박순범(朴淳範), 박제범(朴濟範), 심한준(沈漢俊), 양익환(梁益煥), 윤순범(尹順範), 윤형집(尹亨集), 이능우(李能雨), 이상우(李相雨), 이종엽(李鍾燁), 이철우(李喆雨), 이형우(李炯雨), 장세환(張世煥), 전달원(全達元), 추병원(秋秉元)
도천면	김영경(金英經), 김정식(金鼎式), 박사집(朴士集), 이석범(李錫範), 이재형(李載炯), 이재훈(李載勳), 이종국(李鍾國), 이종범(○○○), 이종순(李鍾淳), 이종은(李鍾殷), 이춘재(李春在)
서 면	김동섭(金東燮), 노용수(盧龍秀), 최학길(崔學吉)

9) 양양군의 독립유공자현황

(1) 독립유공자 현황 (64명)

(2019. 8. 15 현재)

번호	유공자명		서 훈		운동계열	출 신 지	유공자 공훈록	
			훈격	년도			권	면
1	고대선	高大先 (大善)	애국장	1990	3·1운동	현북면 어성전리	9	25
2	권광식	權廣植	애족장	1990	3·1운동	현북면 명지리 326	9	34
3	권병연	權炳淵	애국장	1991	3·1운동	손양면 간리 (총남 서산)	8	315
4	김경화	金敬和	대통령표창	2018	국내항일	강현면 광석리 83		
5	김계호	金啓鎬	대통령표창	1996	3·1운동	양양면 청곡리	14	84
6	김두영	金斗榮	애족장	1990	3·1운동	강현면 물치리	8	334
7	김명기	金明基	대통령표창	2006	3·1운동	양양읍 거마리	0	0
8	김사만	金思晩	애족장	1990	국내항일	강현면 정암리 117	9	70
9	김석빈	金錫斌	대통령표창	2013	국내항일	양양면 성내리 16		
10	김연수	金延洙	애족장	1990	국내항일	토성면 운봉리	7	362
11	김영학	金永鶴	애국장	1990	국내항일	양양면 성내리 15	7	368
12	김우근	金禹根	대통령표창	2006	3·1운동	현북면 중광정리		
13	김재한	金在漢	애족장	1990	3·1운동	현북면 도리	3	53
14	김종성	金種聲	애족장	1990	3·1운동	현북면 대치리 194	9	112
15	김종태	金鍾台	애족장	2019	3·1운동	양양면 거마리		
16	김종택 (종탁)	金鍾澤 (鍾鐸)	애족장	1990	3·1운동	손양면 상왕도리	3	53
17	김중현	金鍾賢	애족장	1990	국내항일	강현면 정암리 111	9	115

18	김진선	金振璿	건국포장	1996	3·1운동	강현면 침교리 20		
19	김진열	金振烈	애족장	1995	3·1운동	손양면 우암리 145		
20	김창렬	金昌烈	애족장	1990	3·1운동	강현면 중복리 217 (홍천)	3	55
21	김창환	金昌煥	애족장	1993	3·1운동	현북면 말곡리	11	91
22	김철기	金哲起	애족장	1993	3·1운동	강현면 사교리 47	11	91
23	김필선	金弼善	애족장	1992	3·1운동	양양면 남문리 45	10	104
24	김학구	金學九	애국장	1995	3·1운동	강현면 침교리	12	476
25	김형석	金亨錫	애족장	1990	국내항일	토성면 아야진리	7	399
26	김환기	金桓起	건국포장	1992	3·1운동	강현면 적은리	10	111
27	노병례	盧炳禮	애족장	1990	3·1운동	서면 용천리 206	7	416
28	노상열 (일석)	盧尙烈 (一石)	애족장	2010	국내항일	현북면 상광정리 (경성원 104)		
29	문명섭	文命燮	애족장	1990	국내항일	토성면 운봉리	7	426
30	문종석	文鍾錫	대통령표창	2019	3·1운동	현북면 말곡리		
31	박규병	朴奎秉	애족장	2017	3·1운동	현북면 원일전리 579		
32	박봉래 (인출)	朴鳳來 (麟出)	애족장	1998	3·1운동	강현면 회룡리		
33	양익환	梁益煥	대통령표창	1992	3·1운동	강현면 장산리 238		
34	오정현	吳鼎鉉	건국포장	1992	3·1운동	현북면 상광정리	10	214
35	윤재형 (동양태)	尹在炯 (東良太)	애국장	2016	국내항일	현남면 남애리 29 (통영 대화 125)		
36	이관진	李寬鎭	대통령표창	2013	3·1운동	양양면 감곡리		
37	이국범	李國範	애족장	2005	3·1운동	손양면 부소치리		
38	이근옥	李根玉	애국장	1991	국내항일	토성면 운봉리 280		

39	이동순 (하중)	李東淳 (河中)	애족장	2003	일본방면	양양면 거마리 (일본 동경)	15	317
40	이두형	李斗炯	애족장	1993	3·1운동	양양면 남문리 236	11	208
41	이원희	李源熙	대통령표창	1992	3·1운동	양양면 감곡리 335	10	267
42	이재형 (동열)	李載炯 (東烈)	대통령표창	2006	3·1운동	도천면 중도문리	3	58
43	이재훈 (능열)	李載勳 (能烈)	애족장	1990	3·1운동	도천면 중도문리 602	3	58
44	이종국	李鍾國	애족장	1992	3·1운동	도천면 중도문리 266	10	274
45	이종엽	李鍾燁	애족장	1990	3·1운동	강현면 강선리	9	363
46	이철우	李喆雨	애족장	1990	3·1운동	강현면 하복리 417	9	371
47	이춘재	李春在	대통령표창	1992	3·1운동	도천면 중도문리 600		
48	이학봉	李學奉	애국장	1991	3·1운동	현북면 명지리	3	58
49	이희택	李喜澤	애족장	2017	3·1운동	현북면 상광정리		
50	임병익	林秉翼	애국장	1991	3·1운동	현북면 중광정리	3	59
51	전원거 (원종)	全元擧 (遠種)	애족장	1990	3·1운동	현북면 하광정리 297		
52	전창렬	全昌烈	건국포장	2011	국내항일	강현면 강선리 616		
53	조화벽	趙和壁	애족장	1990	3·1운동	손양면 상왕도리 116	3	60
54	지용기 (홍민)	池龍起 (弘敏)	독립장	1962	의병	양양 (춘천 서하1작 금산)	1	934
55	최인식 (중헌)	崔寅植 (重憲)	애족장	1990	3·1운동	양양면 임천리	3	63
56	최학길 (명옥)	崔學吉 (明玉)	대통령표창	2010	3·1운동	서면 용천리		
57	최한두	崔漢斗	애족장	1992	3·1운동	손양면 주리 460	70	375
58	추교철	秋教哲	대통령표창	2019	국내항일	강현면 물갑 381		
59	추병원	秋秉元	대통령표창	1992	3·1운동	강현면 간곡리 103		

60	한용운	韓龍雲	대한민국장	1962	3·1운동	낙산사(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		
61	한운성	韓允成	건국포장	2014	3·1운동	현북면 대치리		
62	함흥기	咸鴻基	애국장	1991	3·1운동	손양면 가평리 216	3	64
63	황선주	黃璇柱	대통령표창	1993	3·1운동	현북면 대치리 188	11	322
64	황응상	黃應相	애족장	1990	3·1운동	현북면 어성전리 223	9	534

(2) 독립유공자 공훈록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504			포상정보	
성명	고대선	한자	高大先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高大善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6)	사망년월일	1919-04-09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漁城田				
주소	江原 襄陽 縣北 漁城田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현북면(縣北面)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석했던 그는 어성전리(漁城田里) 출신이었다. 1919년 4월 9일 현북면민들은 독자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본래의 계획은 박원병(朴元秉)이 독립선언서를 많이 제작하기로 하고 마을마다 태극기를 만들어 양양 장날인 4월 9일 양양읍에 가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원병이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가 일제 관헌에게 발각되어 읍으로 가는 것이 저지됨에 따라 관할 주재소를 습격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는 하광정리(下光丁里) 면 사무소 주변 광장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주재소에서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전날 지원부대가 도착해 있었고 일제군경은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서 군중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엎드려 있었다. 1천여군중은 주재소로 향하면서 독립만세를 일제히 불렀고 일제군경이 마구 쏘아댄 총탄에 맞아 그를 비롯한 전원거(全元擧)·임병익(林秉翼)·홍필삼(洪必三) 등 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날의 운동을 '기사문 운동'이라 부른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6面
郷土誌(襄陽文化院, 1976) 105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1591			포상정보	
성명	권광식	한자	權廣植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1886-09-17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明池 326				
주소	江原 襄陽 縣北 明池 326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縣北面 明池里)에서 구장으로 있었다. 현북면의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각 마을의 구장 김익렬(金益烈)·김우근(金禹根)·김진혁(金振赫) 등과 같이 이해 4월 9일의 시위를 위하여 준비해 왔다. 그는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에 태극기 제작을 맡아서 면민에게 배부하고, 1,000여 명을 집결시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鄉土誌(襄陽郡 教育廳) 74·75·76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4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83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7671			포상정보	
성명	권병연	한자	權炳淵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1
생년월일	1882-07-30	사망년월일	1919-04-04	훈격	애국장
본적	충청남도 서산 大山 大竹				
주소	江原 襄陽 襄陽				

공훈록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襄陽) 장터에서 3·1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자 다수의 군중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그는 경찰서를 엄습하고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다가 일경의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3·1운동의사추모비(1963. 3. 1 건립)
양양향토사 104~10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56410			포상정보	
성명	김경화	한자	金敬和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여	포상년도	2018
생년월일	1901-07-18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강현 광석 83				
주소	서울 배화여자학교 기숙사				

공훈록

경성배화여학교(경영배화여학교)는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 조세핀 켈벨이 설립한 근대 대표적인 민족여성의 산실로, 1906년 양양현산학교를 설립한 남궁 억 선생이 8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교가를 작사하였다. 배화여학교가 3.1 운동 당시 활약이 컸던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었고, 양양과 인연이 있는 사립기독교학교이다.

당시 배화여학교 고등과에 재학한 김경화는 이수희와 주도적으로 기숙사 여학생들과 함께 1920년 3월 1일 '3.1독립만세운동 1주년기념식'을 가진 뒤 학교 교정과 기숙사 뒤편 언덕에 올라가 조선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며 독립 의지를 천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때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김경화는 이수희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행에 3년, 나머지 2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기해, 제2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김경화(金敬和)는 98년 만에 동료학생 박양순(朴良順), 성혜자(成惠子), 소은명(邵恩明), 안옥자(安玉子), 안희경(安喜敬)과 공적과 옥고가 확인된 6명이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0297			포상정보	
성명	김계호	한자	金啓鎬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6
생년월일	1902-07-13	사망년월일	1948-09-26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靑谷 411				
주소	江原 襄陽 襄陽 靑谷 411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교회 청년이었던 김계호는 김재귀·김주호(金周鎬) 등을 동지로 포섭하여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양양군 임천리(林泉里)를 거점으로 삼고,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김계호는 4월 3일 김필선·김재귀 등과 함께 양양면사무소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백지 200매에 '대한독립만세 양양군(大韓獨立萬歲 襄陽郡)'이란 글씨와 태극모양을 인쇄하고, 성남동 뒤에 있는 상여 보관처에 숨어 옥양묵으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사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갔다.

그런데 만세운동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일경에 의해 제작된 태극기가 압수되고 말았다.

이때 김계호 등 일부 인사들은 일제의 포위망을 벗어나 만세시위의 준비를 예정대로 강행하였다. 거마리(車馬里) 김종태(金鍾台)의 집으로 본거지를 옮긴 이들은 다음 날의 거사를 위해 태극기를 밤새도록 준비하였고, 마침내 거사 당일까지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었다.

거사 당일인 4월 4일 오전 11시경, 양양읍 장터에는 4,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김계호는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한편 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만세시위의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毎日申報(1919. 5. 3)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12·613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6面

判決文(1919. 7. 3. 高等法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74·975面

判決文(1919. 5. 31. 京城覆審法院)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光復會江原道支局) 第1卷 308·309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4735			포상정보	
성명	김두영	한자	金斗榮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9-12-23	사망년월일	1978-06-28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沕溜				
주소	江原 襄陽 降峴 沕溜				

공훈록

강원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물유리(沕溜里) 등과 함께 강현면(降峴面)·도천면(道川面) 사람들과 합동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인근 주민을 규합하여 4월 5일 물유리(沕溜里) 장날에 모인 다수 군중과 함께 강현면·도천면 일대를 돌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었다.

1919년 5월 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강릉지청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77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421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5985			포상정보	
성명	김명기	한자	金明基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06
생년월일	1899-10-07	사망년월일	1976-03-08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車馬				
주소	江原 襄陽 襄陽 車馬				

공훈록

강원도 양양군(襄陽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양에서는 4월 8일 양양읍내의 장날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김명기는 이에 동참하여 4월 3일 양양읍내와 서면(西面) 등지에 거사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8일 원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원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8일 출옥하였다.

1925년 1월 11일 양양에서 결성된 양양신청년동맹(襄陽新靑年同盟)에 참여하여 경리부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1927년 10월 신간회 양양지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회(準備會)의 재정부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時代日報(1925. 1.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11면
- 中外日報(1927. 11. 7)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대한민국 인명부(내외홍보사, 1949) 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74~975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946			포상정보	
성명	김사만	한자	金思晩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1-05-28	사망년월일	1945-02-16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釘岩 117				
주소	江原 襄陽 降峴 釘岩 117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5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만세시위를 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태 180도를 맞았으며, 1926년 4월 김병환(金炳煥) 동지등과 함께 신간회 양양지회(新幹會 襄陽支會)를 조직하여 공제부장(共濟部長)으로 활동하였고 1931년 3월 농민조합 간부들과 설악산(雪嶽山) 계곡에서 전단을 만들어 700여 동지를 규합 결기하려다 비밀이 누설되므로써 피체되어 1931년 9월 출옥하였다고 한다.

그는 1932년 5월 26일 양양청년동맹회관(襄陽靑年同盟會)에서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東亞日報(1932. 6. 7, 6. 8, 6. 9, 12, 10, 1934. 6. 23)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0卷 182·183·567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53691			포상정보	
성명	김석빈	한자	金錫斌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3
생년월일	1883-02-22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양양 성내 16				
주소	강원 양양 양양 성내 16				

공훈록

1919년 9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모두 거의(擧義)해야 한다는 격문을 붙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9월 21일경 밤 격문이라 제목하고, 상부에 구한국대극장(舊韓國大極章)을 그리고, 그 하부에 연달아 의병이 일어나도록 모두가 일제히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격고문을, 큰길 옆에 있어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강릉군 강릉면(江陵面) 대정정(大正町)의 이계춘(李桂春)의 집 명패에 붙여 일반 민중을 고취하였다. 동년 10월 16일경 밤 격고문이라 제목하고 상부에 구한국대극장을 그리고, 그 하부에 일본인이 횡폭하므로 조선인이 일제히 일어서 의군(義軍)으로 나아가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고 왕실을 봉대(奉戴)해야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격고문을, 큰길 옆에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동군 동면 본정(本町) 이종근(李從根)의 집 명패에 붙였다. 동년 동월 21일경 밤 상부에 구한국대극장을 그리고, 하부에 조선독립만세창의인 원민회 또는 발기인회라 기재한 문서를, 큰길 옆에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동군 동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붙였다 체포되었다.

1919년 12월 27일 구류되어 1920년 2월 20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7월 21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刑事控訴事件簿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0)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815			포상정보	
성명	김연수	한자	金延洙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4-06-24	사망년월일	1928-10-24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주소	미상				

공훈록

강원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에 이근옥(李根玉)의 권유에 의해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양양군단(襄陽郡團)에 가입·활동했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임시정부 지원단체로서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하고, 다시 그 아래 군단(郡團)을 두었는데 양양군단은 강원도단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의 산하조직이었다. 동단의 활동은 임시정부의 선전활동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동년 10월 하순에 그는 이근옥(李根玉)·이석규(李錫圭)·문명섭(文明燮) 등과 함께 상해(上海)로 넘어가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활동할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이때 이들은 서울의 대한독립애국단 본부를 경유하여 상해로 갈 계획이었으나 당시 신현구(申鉉九) 등 본부 단원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다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후 그는 양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20년 1월에 동단의 강원도단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피체되어 1년여 동안 고초를 치르고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1·1004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8344			포상정보	
성명	김영학	한자	金永鶴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77-02-10	사망년월일	(1932-12)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성내 15				
주소	서백리아해삼위신한촌암모룻가야17				

공훈록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양양(襄陽)의 기독교회 목사로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으며, 동년 10월 초 일찍부터 친분을 가져왔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조종대(趙鍾大)로부터 동단의 설립취지를 듣고 이에 찬동하여 그 지부(支部)로서 양양군단(襄陽郡團)을 결성하고 군단장(郡團長)으로 활약했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지단(支團)을 설치했는데, 양양군단은 이러한 강원도단(江原道團)의 산하조직이었다. 동단에서는 주로 임시정부의 선전 및 재정자금의 모집, 그리고 국내의 조직망을 통해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던 임시정부 지원단체였다. 양양군단 결성 직후 그는 김형석(金亨錫)을 비롯해 이근옥(李根玉)·이석규(李錫圭)·김연수(金延洙) 등을 동단에 가입케 하며 조직확대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동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그는 국외로 나아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1922년 9월에 노령(露嶺) 해삼위(海蔘威) 방면의 선교사로 자원하였다. 그리하여 노령 지역에서 선교사업 및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가 1929년 소련 공산당에 피체되어 10년의 중노동형을 언도받고 시베리아에 복역 중 1933년 옥중에서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18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1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0848			포상정보	
성명	김우근	한자	金禹根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06
생년월일	1866-11-23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中光丁				
주소	江原 襄陽 縣北 中光丁				

공훈록

1919년 4월 초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현북면(顯北面)에 거주하는 김재한(金在漢)은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에 영향을 받아, 1919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을 들은 김우근은 거사 당일 현북면 사무소 앞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우근은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벌금 30원을 받았고,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180일 통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24면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12)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3. 8)
매일신보(1919. 2. 4)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1374			포상정보	
성명	김재한	한자	金在漢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9-02-19	사망년월일	1967-05-15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현북 도리				
주소	강원 흥천 내면 창촌 1278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오세옥(吳世玉)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4월 4일부터 7일까지 양양읍과 현북면(縣北面)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틀후인 4월 9일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면서 기사문(其士門)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던 중, 일본 헌병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면
신문장지문조회회보서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622·623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978			포상정보	
성명	김중성	한자	金鍾聲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73-12-13	사망년월일	1950-07-08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大峙 194				
주소	江原 襄陽 縣北 大峙 194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縣北面 大峙里)에 살고 있었으며 중학교 교장(中學校 校長)으로 근무하면서 구장(區長)도 겸임하고 있었다.

이곳 현북면의 독립만세운동은 독자적으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되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각 마을의구장은 그를 비롯하여 권광식(權廣植)·김창환(金昌煥) 등이었다.

드디어 1919년 4월 9일 거사일에 현북사무소 앞에서 김춘열(金春烈)·문석중(文錫鍾)·김창환·권광식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1,000여 명의 군중과 더불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일경이 일제히 발포하여 사망자 9명과 부상자 20여 명이 발생하는 격렬한 시위운동 중에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원형을 언도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3. 8 京城覆審法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3~626面
 每日申報(1919. 12. 4)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포상정보	
성명	김종태	한자	金鍾台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9
생년월일	1898-03-18	사망년월일	1981-06-24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車馬里 335번지				
주소	江原 襄陽 襄陽 車馬里 335번지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깃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는 등 독립에 기여함.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을 국민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4077			포상정보	
성명	김종택	한자	金鍾澤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金鍾鐸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75-09-25	사망년월일	1941-07-30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巽陽 上旺道				
주소	江原 襄陽 巽陽 上旺道				

공훈록

1919년 4월 손양면(巽陽面) 상왕도리(上旺道里)의 이장으로 있으면서, 인근의 주리(舟里) 이장 최한두(崔漢斗), 우암리 이장 김진열(金振烈)과 함께 동리주민 약 20여명을 인솔하여 2개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양읍으로 향하여 입구인 남대천 다릿가에 이르렀다. 이때 일본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그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었다. 다시 연창리(連昌里)에 도천면민(道川面民)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합세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0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76·97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76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289			포상정보	
성명	김종현	한자	金鍾賢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910-02-08	사망년월일	1995-09-11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釘岩 111				
주소	江原 襄陽 降峴 釘岩 111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이 대열에 참가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으나 나이 어린 학생(당시 10세)임을 감안하여 석방되었다고 한다. 1932년 6월 4일 양양농민조합(襄陽農民組合)을 결성하고 교양부(教養部)를 담당하여 군내(郡內) 14개 지부를 순회하면서 야학을 통해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東亞日報(1932. 6. 7, 12, 10, 1934. 6. 23)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1099			포상정보	
성명	김진선	한자	金振璿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金振璇, 金振璇	성별	남	포상년도	1996
생년월일	1885-02-27	사망년월일	1948-01-25	훈격	건국포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砧橋 20				
주소	江原 襄陽 降峴 砧橋 20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6일 양일동안 강현면(降峴面) 회룡리(回龍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4월 5일 강현면과 도천면(道川面) 합동으로 전개되었다. 강현면은 물치장터에서 도천면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서 운동을 펴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들 면의 책임자는 각각 장세환(張世煥)과 김영경(金英經)이었다. 이들은 각 마을 마다 책임자를 두어 각기 태극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특히 강현면은 넓고 담당지역 분할이 철저하였다. 이 지역은 물치리·침교리·적은리·주청리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김진선은 강현면의 침교리지역을 담당하였다.

4월 5일 10시경, 물치장터로 모인 강현면민들은 시장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그리고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1,000여 명의 군중은 손에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장터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들은 독립선언식을 끝마치고 대포리 주재소로 행진하여 도천면민과 합세하였다. 이들은 주재소로 몰려가 그 주변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할 때, 주재소 수석 석전희삼랑(石田喜三郎)이 군중에게 허리를 굽혀 빌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4월 6일 양양읍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속 펼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4월 6일 1,200~1,300명 정도가 되는 군중이 다시 모여 만세시위를 펼치기 위해 양양읍내로 향했다. 그런데 연창(連昌)에 다다랐을 때, 뜻하지 않게 일본 군대와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군중은 제지하는 군대를 밀고 읍내로 들어가 경찰서로 몰려갔다. 때마침 손양면(巽陽面)의 시위군중 300여 명이 합세하여 그 기세는 더욱 등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저자세로 나오자, 결국 시위군중들은 만세만 부르고 해산하였다.

후에 일경(日警)은 시위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도 피체되어 1919년 4월 24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16~620面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7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1104			포상정보	
성명	김진열	한자	金振烈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5
생년월일	1882-11-06	사망년월일	1956-06-27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牛岩145				
주소	江原 襄陽 巽陽 牛岩145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6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巽陽面)에서 최한두(崔漢斗) 등과 군중을 이끌며 만세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양양의 3·1운동은 규모나 내용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다.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4월 4일 양양 장터에서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하여 양양의 3·1운동은 군내 각처로 뻗어 나갔다.

김진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한두·김종탁(金鍾鐸) 등 마을 구장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4월 6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3백여 명이 넘는 군중을 모아서 양양읍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이들은 일경의 제지를 받았으나 물리치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행렬의 선두에는 큰 태극기와 함께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깃발을 세웠으며, 농악대가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남대천 앞에서 일경의 제지를 받았으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인근의 도천면과 강현면민들과 힘을 합하여 읍내로 진입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일경에 피체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0면
매일신보(1919. 5. 3)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6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501			포상정보	
성명	김창렬	한자	金昌烈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85-05-03	사망년월일	1944-12-06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흥천 新場 垞 3				
주소	江原 襄陽 降峴 中福 217				

공훈록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 장날을 이용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구장(區長)으로서 중복리(中福里) 동민을 이끌고 약 1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거리를 누비며 시위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일경에게 체포되어 이해 4월 23일 강릉지청에서 실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그후에도 일제치하에서 혹독한 소작료 등 착취를 반대하기 위하여 1927년 12월경 조직된 양양농민조합에 가입하여, 농민들의 대변기관으로 또는 농촌계몽 등에 활동하다가 1932년 10월 일경에게 발각되어 조합원 130여명과 함께 검거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7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36~63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041			포상정보	
성명	김창환	한자	金昌煥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84-03-26	사망년월일	1968-03-15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挿存 159				
주소	江原 襄陽 縣化 末谷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당시 양양군 현북면(縣北面) 말곡리(末谷里) 구장으로, 마을 사람들을 선도하여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주재소를 향해 시위행진하다가 속칭 「만세고개」에서 황선주(黃璇柱)·권광식(權廣植)·김종성(金鍾聲)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1,000여 명의 군중과 시위 중 피체되었다.

그 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원(圓)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20. 3. 8 경성복심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83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3~626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7534			포상정보	
성명	김철기	한자	金哲起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3
생년월일	1883-11-24	사망년월일	1946-02-18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沙橋 47				
주소	江原 襄陽 降峴 沙橋 47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초에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降峴面)에서 장세환(張世煥)을 주축으로 물치(物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었다.

4월 5일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을 규합, 이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벌여 대포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활동하였으며 이튿날 다시 양양읍에서 천2~3백 명의 시위군중과 시위를 전개하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향토지(양양문화원, 1976) 104 · 105 · 107면
양주지(양양군, 1990, 11, 30) 105 · 112 · 113 · 909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514			포상정보	
성명	김필선	한자	金弼善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903-05-23	사망년월일	1945-06-20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南門 45				
주소	江原 襄陽 襄陽 南門 45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말경에 개성(開城) 호수돈여학교(好壽敦女學校) 학생 조화벽(趙和璧)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동료인 김재구(金在龜)·김규용(金圭容)·김계호(金啓鎬)·김주호(金周鎬)·김봉운(金鳳運) 등과 함께 양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면사무소에 있는 등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기를 만들어 군중에게 배부하고 다섯 갈래의 길을 따라 읍내 서면, 손양면(巽陽面) 등에서 4,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일시에 장터로 진입하여 태극기를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1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2~615면
- 판결문(1919. 7. 3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74·975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1244			포상정보	
성명	김학구	한자	金鶴九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5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19-04-04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隆峴 砧橋				
주소	江原 襄陽 隆峴 砧橋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군 읍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양양의 3·1운동은 규모나 내용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다.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4월 4일 양양 장터에서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하여 양양의 3·1운동은 군내 각처로 뻗어 나갔다.

양양 읍내의 만세운동에는 인근의 서면과 손양면에서 농민들이 참가하여 계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김학구는 서면 상평리(上坪里)에 거주하면서 서면의 주민들과 함께 읍내 시위에 참가한 것이었다. 서면 상평리는 양양읍에서 15리 떨어진 서면의 면소재지였다.

서면의 주민들은 4월 3일 태극기를 제작한 뒤 의병출신의 박춘실(朴春實)의 지도 아래 거사당일인 4월 4일에 읍내로 진군하였다.

그리하여 읍내에서 합류한 각 면의 시위대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군청과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군수와 경찰서장을 위협하던 시위대 중 한 명이 일경의 칼에 의해 쓰러지자 무력시위로 돌변하였다. 그리고 저녁부터는 일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김학구는 일경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3~616·621·622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1408			포상정보	
성명	김형석	한자	金亨錫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주소	미상				

공훈록

강원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초 김영학(金永鶴)으로부터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취지와 목적을 듣고 동단의 지부인 양양군단(襄陽郡團)에 가입했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조직·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한 임시정부 지원단체로서, 양양군단은 강원도단의 산하 조직이었다.

대한독립애국단의 주된 활동은 임시정부의 선전 및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의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의 수행이었다.

양양군단에 가입후 그는 동년 10월 14일 이근옥(李根玉)을 동단에 가입케 했고 또 이석규(李錫圭)·김연수(金延洙)·문명섭(文明燮) 등을 이근옥과 함께 포섭하는 등 조직확대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1·993·996·1001~1004·1007·1016·1028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553			포상정보	
성명	김환기	한자	金桓起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888-03-02	사망년월일	1950-06-25	훈격	건국포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沙橋 75				
주소	江原 襄陽 降峴 積銀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양양군 적은리(積銀里)를 책임맡아 태극기를 제작하고 주민들을 규합하는 등 준비를 갖추어 4월 5일과 6일의 양일간에 걸쳐 도천면(道川面) 주민들과 합세하여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강현면 물치(物湍)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의 역사(양양군, 간행년도미상) 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
- 매일신보(1919. 5. 3)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8768			포상정보	
성명	노병례	한자	盧炳禮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903-03-18	사망년월일	1994-11-05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西面 龍川 206				
주소	江原 襄陽 南門				

공훈록

강원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양양 지역 만세시위의 본산인 임천리에서 이교학(李敎學)·이교성(李敎聲)·조화벽(趙和璧) 등과 더불어 만세시위를 꾀하고 동년 4월 4일 양양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하여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어 4월 6일과 9일에도 시위에 참가하여 피검되었으나 학생임을 감안, 석방되었다.

1925년 9월에는 함북(咸北) 무산(茂山)에서 상해임시정부(臨時政府) 특파원 박유덕(朴有德)과 회합, 국외망명을 기도하다가 피검되어 양양경찰서로 송치되었으나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후 박유덕이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한 것에 연루·피체되어 1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31년에는 양양농민조합(襄陽農民組合)을 결성하여 소작쟁의 및 농촌계몽에 힘쓰다가 조합원 130여명과 함께 피체되어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함흥형무소 가출옥보고서
동아일보(1933. 2. 10)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2·614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41044			포상정보		
성명	노상열	한자	盧尙烈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盧明俊 · 盧一石 · 盧尙烈 · 申白淳		성별	남	포상년도	2010
생년월일	1897-08-23	사망년월일	사망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上光丁					
주소	京城 苑 104					

공훈록

노상열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1921년 6월 전후 중국 길림성 훈춘(琿春)에서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1923년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925년 12월 귀국하여 조선공산 당에 입당했다.

1926년 1월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한 후 3월 조선일보 광주지국 기사를 지 내면서 고려공산청년회 전남 도(道)집행위원으로 당원 모집 및 조직 결성 등의 활동을 하였 다. 6월 일본 경찰에 수배되어 가택수색을 당했으나 피신했다. 8월 고려공청 중앙총국과 고 려공산청년동맹(서울파) 중앙위원회 합동위원회에 참석했다. 같은 달 통칭 '고려공청' 중앙위 원으로 선임되었다.

1927년 3월경 체포되어 1928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 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思想月報(朝鮮總督府 檢事局 : 1931. 7) 제1권 제4호 163면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8. 2. 13)
 1923年 4월에 南烏 琿春地方의 概況(陸軍省受領 密受 第234號 : 1923. 5. 10) 朝鮮軍參謀部發 朝特報에 관한 綴(1)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 성대경, 1996) 164면
 不逞鮮人 名簿 送付의 件(機密公信第 36號 : 1921. 7. 1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28)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1850			포상정보	
성명	문명섭	한자	文命燮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주소					

공훈록

그는 1919년 10월 중순 이근옥(李根玉)의 권유에 의해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양양군단(襄陽郡團)에 가입했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한 임시정부 지원단체로서, 양양군단은 강원도단의 하부조직이었다.

이러한 대한독립애국단의 주된 활동은 임시정부의 선전 및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의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년 10월 하순에 그는 이근옥(李根玉)·이석규(李錫圭)·김연수(金延洙) 등과 함께 상해(上海)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올라왔으나, 당시 서울의 본부와 연결이 되지 못하여 귀향하였다.

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다가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30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9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포상정보	
성명	문종석	한자	文鍾錫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9
생년월일	1896-08-02	사망년월일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현북면 말곡리 590				
주소	江原 襄陽 懸北面 말곡리 590				

공훈록

1919년 4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는 등 독립에 기여함.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每日新報(1919,5,3.)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1514			포상정보	
성명	박규병	한자	朴奎秉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7
생년월일	1889-01-05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현북 원일전				
주소	강원 양양 현북 원일전				

공훈록

1919년 4월 6일과 7일에 江原道 襄陽郡에서 太極旗를 제작하여 백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시위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조선독립선언서 소지 혐의로 구속된 實弟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懲役 1년 2월을 받음.

참고문헌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562			포상정보	
성명	박봉래	한자	朴鳳來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朴麟出	성별	남	포상년도	1998
생년월일	1894-11-01	사망년월일	1980-10-17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回龍				
주소	江原 襄陽 降峴 回龍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6일 양일동안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降峴面)·도천면(道川面)이 합동으로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김영경(金英經)·장세환(張世煥)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4월 5일 양면이 합동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각리에 책임자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제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사 준비를 진행시켰다.

박봉래는 그가 구장으로 있던 강현면 회룡리(回龍里) 지역을 맡았으며,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거사계획을 알리는 한편, 몇몇 마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거사 당일인 4월 5일 10시 경, 강현면민은 물치 장터로 모였고, 도천면민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들었다.

4월 5일 10시경, 강현면 군중 500여 명은 물치장터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시위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박봉래의 주도로 도천면으로 행진하여 갔다.

오후가 되자, 강현면·도천면 군중 천여 명은 합세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대포리주재소로 몰려가 일경의 사죄를 받아내는 등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6일 양면의 시위군중 1,200~1,300명은 다시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양양읍내로 행진하였다. 그런데 연창(連昌)에 다다랐을 때, 뜻하지 않게 일본 군대와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저지하는 군대를 뚫고 읍내로 들어가 경찰서로 몰려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서장이 저자세로 나오자, 결국 시위군중들은 독립만세만 부르고 해산하였다. 후에 일경은 시위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19년 4월 23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襄州誌(襄州誌編纂委員會, 1990) 105·110·113면
 郷土誌(襄陽文化院, 1976) 104·105면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17면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7면
 每日申報(1919. 5. 3)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337			포상정보	
성명	양익환	한자	梁益煥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897-07-06	사망년월일	1968-08-30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長山 238				
주소	江原 襄陽 降峴 長山 238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장세환(張世煥)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장산리(長山里)를 책임맡아 다수의 시위군중을 규합한 후, 물치(物溜) 장날을 이용하여 인근 마을인 손양면(巽陽面)·도천면(道川面)민 등 5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같은 해 5월 3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매일신보(1919. 5. 3)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3·1운동의 약사(양양군) 1·5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6~620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041			포상정보	
성명	오정현	한자	吳鼎鉉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88-07-04	사망년월일	1960-02-20	훈격	건국포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上光丁				
주소	江原 襄陽 縣北 上光丁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9일 양야군 현북면(縣北面) 기사문독립만세운동(其士門獨立萬歲運動)에서 문서연락을 담당하였다. 각 마을구장의 힘을 모아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일경의 무차별 총격에 대항하였으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어 마침내 시위가 중단되고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이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20. 3. 8 경성복심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3~626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55816			포상정보	
성명	윤재형	한자	尹在炯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伊東良太, 伊藤良太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926-06-21	사망년월일	1945-08-12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현남 남애 29				
주소	경남 통영 통영 대화 125				

공훈록

1944년 경남 통영군(統營郡)에서 통영공립수산학교(統營公立水産學校)에 재학 중, 일제의 패망과 조선 독립을 예견하면서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病保釋)으로 출옥한 직후 순국하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 8월 병역법을 개정 시행하여 1944년부터 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통영수산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재형은 학우들과 함께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시국(時局)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른바 근로봉사대(勤勞奉仕隊)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조만간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에 미군(美軍)이 상륙할 것이니 이때 조선인은 폭동을 일으켜 각 기관을 점거하고 미군에 협력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944년 6월 19일 교실에서 급우들에게 "적기(敵機 - 연합군 측 비행기를 말함)가 통영에 와서 폭탄을 수산학교에 투척하면 여름방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7월 초순에는 교실 칠판 위에 걸린 '천황(天皇)의 어진(御眞)과 궁성(宮城) 사진'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통해 급우들의 항일 의식과 민족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들은 교내 일본인 학생들에 의해 결국 일본인 교사나 가정으로 전달되었다. 1944년 7월 20일 동료 학생 30여 명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2~3개월 후에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8명은 같은 해 11월 10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 등으로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통영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1945년 2월 22일 열린 재판에서 윤재형은 이른바 보안법 위반 및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받았다. 당시 18세 미만의 학생은 인천소년형무소(仁川少年刑務所), 18세 이상은 김천소년형무소(金泉少年刑務所)에 수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동급생 허위균(許偉均)과 함께 김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45년 5월 22일 형집행정지로 출옥하였다. 곧바로 고향인 강원도 양양(襄陽郡) 현남면(縣南面) 남애리(南涯里)로 돌아갔으나, 해방을 사흘 앞둔 8월 12일에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1945년 2월 27일부로 통영공립수산학교의 학칙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료 학생들과 함께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刑事控所事件簿

統水六十年史(統水60年史編纂委員會, 1977) 121면

統水七十年史(統營70年史編纂委員會, 1988) 113면

이용규의 통영수산학교 학생운동의 건, 하반기 조사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73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2646			포상정보	
성명	이관진	한자	李寬鎭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3
생년월일	1862-09-18	사망년월일	1935-08-15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양양 감곡 335				
주소	江原 襄陽 襄陽 감곡 335				

공훈록

이관진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 감곡리(甘谷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4일은 양양의 장날이었고 아침부터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양양읍에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는 5개가 있었는데, 곳곳의 만세 군중과 장꾼은 주로 그 5개의 길을 따라 들어왔으며,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났지만 장터에 오는 도중 또는 장터에 와서 만세 군중으로 변하였다. 5개의 통로 중에서 서쪽 즉 임천리로 통하는 방면에서는 아침부터 만세 군중이 경찰과 대치하였다. 거마리·임천리의 군중과 의병 출신 박춘실(朴春實)과 노용수(盧龍秀)의 지도를 받은 서면 상평리(上坪里)와 북평리(北坪里)의 군중이 모였다. 이관진은 북쪽 길에서 감곡리 방면의 만세 군중을 이원도(李源燾)·이원희(李源喜)와 함께 지도하였다. 그리고 동편 낙산사로 통하는 신작로에는 조산리와 사천리 방면에서 최영덕(崔永德)·최영원(崔永原)·이정희(李貞熙) 등의 인솔로 모였으며, 남쪽 국도를 따라 손양면 가정리의 만세 군중이 함흥기(咸鴻基)의 인솔로 들어왔다. 또 서남쪽으로는 서면 용천리의 군중이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盧炳禹)와 최명옥(崔明玉)의 지도를 받으며 선두에는 보통학교 생도(生徒) 최선극(崔善極)과 노병례(盧炳禮)가 든 큰 태극기를 세워 들고 장터로 들어왔다. 곳곳마다 태극기를 들었고,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워 행진했으니, 만세 군중에게 완전히 제압된 경찰은 지금 군청 자리에 있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더구나 읍내와 부근의 남문리·군향리·구교리·서문리·성내리·청곡리의 주민은 아침부터 이미 만세시위에 들어가 있었다.

시위 후 체포된 이관진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每日申報(1919. 5.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13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6263			포상정보	
성명	이국범	한자	李國範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69-02-23	사망년월일	1931-10-08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獐				
주소	江原 襄陽 巽陽 扶蘇峙				

공훈록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과 강현면(降峴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지역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 인산에 참례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지니고 귀향한 이석범(李錫範)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그의 아우인 이국범과 아들인 이능렬(李能烈)을 앞세우고 쌍천학교(雙川學校) 졸업생을 동원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유학자로서 평소 일제의 강제병합에 분개하고 있던 중, 광무황제의 폭붕(暴崩) 소식을 듣고 군내 양반 유생들에게 양양읍 밖에서 요배식(遙拜式)을 거행하도록 하는 등 항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형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들은 이국범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 김영경(金英經)·장세환(張世煥) 등과 도천면과 강현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연 6일 동안 읍내 대포(大浦)·물치(物湍)·왕도(旺道)·기사문(其士門) 등지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倭政時代人物史料(3)
- 雪樵公碑文(1979)
- 東草市誌(東草市, 1991) 67~68면
- 判決文(高等法院, 1919. 10. 11)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7935			포상정보	
성명	이근옥	한자	李根玉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1
생년월일	1884-02-16	사망년월일	1959-12-28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土城 雲峰 280				
주소	江原 襄陽 土城 雲峰 280				

공훈록

강원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3·1독립운동 때 향리인 양양군 토성면 윤봉리에서 만세시위를 고무하는 격문 '충고동포(忠告同胞)'를 지어 각 마을의 게시판에 붙이는 등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섰다. 동년 10월초 김형석(金亨錫)의 권유에 의해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양양군단(襄陽郡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직후 김연수(金延洙)·문명섭(文明燮)·이석규(李錫圭) 등을 단원으로 포섭하였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임시정부 지원단체로서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하고, 다시 그 아래 군단(郡團)을 두었는데 양양군단은 강원도단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의 산하조직이었다.

동단의 활동은 주로 임시정부의 선전활동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동년 10월 하순에 그는 앞서의 동지 김연수·이석규·문명섭 등과 함께 상해(上海)로 넘어가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에 올라왔다. 이때 이들은 서울의 대한독립애국단 본부를 경유하여 상해로 갈 계획이었으나, 당시 신현구(申鉉九) 등 본부 단원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다니던 상황이었으므로 연락이 두절된 채 다른 동지들은 귀향하고 그만 혼자 서울에 체류하였다.

서울 체재중 그는 대동단(大同團)이 주도·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그외 선전물을 박화진(朴華鎭)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지참하고 내려와 강원도 고성(高城)의 건봉사(乾鳳寺) 등지를 다니며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7면
- 동아일보(1921. 3. 15)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30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60721			포상정보	
성명	이동순	한자	李東淳	운동계열	일본방면
이명	李河中	성별	남	포상년도	2003
생년월일	1909-07-02	사망년월일	1977-01-10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車馬 29				
주소	東京 牛?區 河田町 17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25년 3월 강원도 양양공립보통학교(襄陽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27년 1월 경성역 역부가 되어 근무 중 동년 5월 작업 중 열차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어 9월 해고되어 귀향하였다. 1928년에 공산주의자 김필선, 1929년에 무정부주의자 김한의 지도를 받았으며, 1931년 4월 일본 동경(東京)으로 가서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 등 무정부주의 출판물을 학습하기도 하였다. 1931년 8월에는 흑우연맹(黑友聯盟)에, 1932년 1월에는 아나키즘계 노동단체인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동년 7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위해 일본 2개 단체와 지부노동자자유연합(芝部勞動者自由聯合)을 결성하여 전협 계열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공동으로 대항하였다.

1934년 1월 양일동과 홍일(洪日) 등의 요청으로 무정부주의계 흑색신문사(黑色新聞社)를 경영하면서 '흑색신문(黑色新聞社)'을 발행하여 수 차례 검거와 구류를 당하였으며, 상해(上海)의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 간부인 이달(李達), 양자추(楊子秋) 등과 연락하여 1935년 3월 양자추로부터 밀송된 백정기(白貞基), 이강훈(李康勳), 원심창(元心昌) 등의 상해 유길공사(有吉公使) 암살미수사건에 관한 기사와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운동개황(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運動概況)' 등을 게재하였다.

1935년 3월 경 양자추로부터 투사(鬪士)의 파견을 의뢰받고 동년 7월 일본대학(日本大學) 사회과 학생 이종봉(李鍾鳳)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동년 9월 상해의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발행한 [뉴스]를 송부받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35년 10월 초순 경 자유연합신문사(自由聯合新聞社) 이등열태랑(伊藤悅太郎)의 권유로 일본무정부공산당(日本無政府共產黨)에 가입하여 동당 관동지방위원회(關東地方委員會) 식민지부(植民地部)에 소속되어 재일조선인 무정부주의계 3단체의 전선통일, 재일조선인유학생에 대한 대책, 조선내 무정부주의운동 재건, 상해동지들과의 연락, 식민지운동방침을 협의하고 당원 획득 활동을 하였다.

1935년 11월 일본무정부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경시청에 피체된 그는 1936년 3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동경형사지방법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근 반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韓國아나키즘運動史(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278 · 390 · 410 · 414 · 415면

일본무정부공산당관계검거자 신상조사서(형사국 사상부, 1936)

判決文(東京刑事地方裁判所, 昭和思想統制史資料 1卷, 1936. 4)

黑色新聞(1934. 9. 20)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3輯 470面

在日韓人아나키즘運動研究(김명섭,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6 · 155 · 169~171 · 199面

昭和特高彈壓史 朝鮮篇 6, 136~138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089			포상정보	
성명	이두형	한자	李斗炯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3
생년월일	1894-11-03	사망년월일	1919-04-09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西門 236				
주소	江原 襄陽 襄陽 西門 236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이래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해 듣고 동년 4월 3일 양양군 양양면(襄陽面)에서 이석범(李錫範)을 주축으로 양양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키로 한 독립만세 시위운동 계획에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 김필선(金弼善)·김주호(金周鎬)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성내리(城內里) 북문너머 상여대(喪輿臺)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시위를 준비하던 중 일경에게 피체되어 태형(笞刑)을 받았으며, 그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양양령상(대왕출판사, 1985) 30·31·34면
양주지(양양군, 1990, 11, 30) 106·110·115면
경주이씨세보(1959)
3·1운동의 략사(양양군, 1974) 2·5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556			포상정보	
성명	이원희	한자	李源熙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898-09-24	사망년월일	1935-09-10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甘谷 335				
주소	江原 襄陽 襄陽 甘谷 335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양양군 양양면(襄陽面) 감곡리(甘谷里)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인근 주민 수백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2757			포상정보	
성명	이재형	한자	李載炯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李東烈, 李東烈	성별	남	포상년도	2006
생년월일	1896-02-13	사망년월일	1961-05-28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道川 中道門				
주소	江原 襄陽 襄陽 林泉				

공훈록

강원도 양양군(襄陽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재형은 양양군 도천면(道川面) 도문리(道門里)에 거주하던 중 아버지 이석범(李錫範)의 지시를 받아 1919년 4월 4일 물치 장터와 대포주재소 등지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또 4월 6일 오후에는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재형은 1919년 4월 23일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은 후 원산형무소에서 1919년 10월 23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每日新報(1919. 5. 3)
李錫範公 抗日獨立運動紀實碑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76			포상정보	
성명	이재훈	한자	李載勳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李能勳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88-08-20	사망년월일	1951-04-24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道川 中道門區 602				
주소	江原 襄陽 道川 中道門區 602				

공훈록

1919년 4월 4일 고향인 양양군 도천면(道川面) 중도문리(中道門里) 이종국(李鍾國)의 집에서 태극기 2폭을 제작하고, 부락민에게 이튿날 봉헌면(峰峴面) 물치(物淄)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5일 물치시장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는 스스로 제작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지휘하여 인근의 대포(大浦)주재소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6일 하오 1시경에는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김원식(金元植)·이형우(李炯雨) 등과 함께 체포되어 그해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75~976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634			포상정보	
성명	이종국	한자	李鍾國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876-06-23	사망년월일	1940-03-29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道川 中道門 266				
주소	江原 襄陽 道川 中道門 266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야군 도천면(道川面) 중도문리(中道門里)에서 이석범(李錫範)·이종황(李鍾黃)·이종인(李鍾寅)·이능렬(李能烈)·김영경(金英經)·장세환(張世煥) 등과 함께 물치(物湍)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여, 각 리마다 책임자를 배치한 후 태극기를 만들도록 책임지워 준비를 서둘렀다. 물치 장날을 맞이하여 주민 800여명을 규합, 대포리(大浦里) 일경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강현면(降峴面)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대포리주재소로 향하여 시위행진하여 오는 500여명의 시위대열과 합세한 후 주재소를 공격하여, 기물과 공문서를 파기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양주지(양양군수, 1990. 11. 30) 104~110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7면
 매일신보(1919. 5. 3)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566			포상정보	
성명	이종업	한자	李鍾燁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6-07-23	사망년월일	1959-10-23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降仙				
주소	江原 襄陽 降峴 降仙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降峴面 降仙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道川面) 주민들은 합동으로 1919년 4월 5~6일 이틀동안 규모가 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본래 그는 박사집(朴士集)·이중순(李鍾淳) 등과 같이 친목계(親睦契)를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는 강현면 책임을 맡아서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4월 5일 강현면 내의 주민들을 규합하여 물치리(物淄里) 장터에 모여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수백 명의 시위군중은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난 뒤 대포리(大浦里) 주재소로 행진하여 도천면민과 합세하였다. 이 만세시위는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는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양양읍으로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후 7월 25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 2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17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563			포상정보	
성명	이철우	한자	李喆雨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2-04-16	사망년월일	1955-07-04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下福 417				
주소	江原 襄陽 降峴 下福 417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降峴面 下福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道川面)은 합동으로 계획하여 4월 5~6일 이틀동안 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곳 만세시위계획의 추진은 보다 철저하여 마을 단위로 책임자를 두었고 제각기 태극기를 만들어 만전의 준비를 했는데, 그는 하복리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19년 4월 5일 물치리(物淄里)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수백 명의 시위군중은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을 후 대포리(大浦里) 주재소로 행진하여 도천면민과 합세하였다. 이 시위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어 양양읍으로 향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는 등 그는 1천여명 만세시위대를 이끌며 선도적으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후 4월 1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42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74·97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1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7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633			포상정보	
성명	이춘재	한자	李春在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878-08-25	사망년월일	1929-02-26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道川 中道門 600				
주소	江原 襄陽 道川 中道門 600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도천면(道川面)에서 이석범(李錫範)·이종황(李鍾黃)·이종인(李鍾寅)·이능렬(李能烈)·김영경(金英經)·장세환(張世煥) 등과 같이 물치(物池) 장날에 모인 5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대포리(大浦里)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중 강현면(降峴面)에서 시위행진해 온 군중과 합세하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양주지(양양군수, 1990. 11. 30) 104~110면
매일신보(1919. 5. 3)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7992			포상정보	
성명	이학봉	한자	李學奉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1
생년월일	1882-01-15	사망년월일	1919-04-09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明池				
주소	江原 襄陽 縣北 明池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고향인 현북면(縣北面) 기사문리(其士門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의 발포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향토지(양양문화원) 105 · 107 · 108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2892			포상정보	
성명	이희택	한자	李喜澤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7
생년월일	1888-12-28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현북 상광정 171				
주소	강원 양양 현북 상광정 171				

공훈록

1919년 4월 9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참고문헌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8005			포상정보	
성명	임병익	한자	林秉翼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1
생년월일	1895-05-05	사망년월일	1919-04-09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中光丁				
주소	江原 襄陽 縣北 中光丁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소위 기사문(其士門)운동의 계획에 박원병(朴元秉) 형제·오세옥(吳世玉)·이응렬(李應烈)·오정현(吳鼎鉉)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의 원래의 계획은 양양읍에 가서 만세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그 지방의 원로인 김익제(金翼濟)가 읍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군중으로 하여금 관할 주재소를 습격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주재소를 향하여 행진하며 가로수 받침대와 장작·돌로 무장했다.

이미 주재소는 이 사실을 사전에 탐지하고 강릉에서 지원부대까지 동원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대한제국만세를 외치는 1천여명의 군중은 한국인 순사 이홍근(李弘根)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재소로 돌진하였다. 이때 일본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임병익을 비롯하여 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이종남(李鍾南)등 2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향토지(양양문화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626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465			포상정보	
성명	전원거	한자	全元舉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全元巨, 全遠鍾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67-12-24	사망년월일	1919-04-09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下光丁 297				
주소	江原 襄陽 縣北 下光丁 297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縣北面 下光丁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9일 현북면민들은 독자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본래의 계획은 박원병(朴元秉)이 독립선언서를 많이 제작하기로 하고 마을마다 태극기를 만들어 양양 장날인 이날을 기하여 양양읍에 가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병이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가 일제 관헌에게 발각되어 읍으로 가는 것이 저지됨에 따라 관할 주재소를 습격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는 하광정리 소재의 면사무소 주변광장에 모인 1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한편 주재소에서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전날 지원부대가 도착해 있었고 일군경은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서 군중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매복해 있었다. 1천여 군중은 주재소를 향하면서 독립만세를 일제히 불렀고 일군경이 마구 쏘아댄 총탄에 맞아 그를 비롯한 임병익(林秉翼)·홍필삼(洪必三)·황응상(黃應相) 등 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날의 운동을 '기사문 운동'이라 부른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鄉土誌(襄陽文化院, 1976年) 105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3~626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52589			포상정보	
성명	전창렬	한자	全昌烈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1
생년월일	1895-11-25	사망년월일	1972-10-20	훈격	건국포장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降仙 616				
주소	江原 襄陽 降峴 降仙 616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에서 양양군농민조합(襄陽郡農民組合)을 조직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신사회건설을 추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7년 12월 30일 양양군농민조합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양양군 내 여러 농민조합을 연합하여 통일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전창렬은 동 조합의 강선지부(降仙支部)를 이끌었다.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지부회관에서 조합원 이달봉(李達鳳), 최윤덕(崔允德), 이재길(李在吉), 손치국(孫致國) 등 1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는 한편, 신사회 건설과 연구 활동을 위해 강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야학을 설립 운영하고 기근과 소작문제, 농잠학교 설치 문제 등에서 지역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1932년 6월 4일부터 계속된 양양경찰서의 단속으로 총 300여 명의 조합원이 체포되었다. 이때 전창렬도 함께 체포되어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기까지 약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전창렬은 1939년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선탄장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1946년 설립된 사할린 조선인학교 학부형위원장을 지내다가 1972년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4. 6.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咸興地方法院 : 1934. 6. 22)
- 朝鮮日報(1934. 6. 16)
- 朝鮮日報(1932. 12. 4)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49			포상정보	
성명	조화벽	한자	趙和璧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여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5-10-17	사망년월일	1975-09-03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上旺道 116				
주소	江原 襄陽 襄陽 上旺道 116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녀는 양양군내의 감리교회에 많은 청년을 포섭하여 활발히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조영순(趙英淳) 전도사의 딸이다. 전국적으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개성 호수둔여학교(開城好壽敦女學校) 학생으로서 선배인 권애라(權愛羅) 등 수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나누어 준 뒤, 헌병대에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후 1925년 4월 18일 교직생활을 하던 중 유우석(柳愚錫; 柳寬順의 오빠)과 결혼하였는데, 이후 유우석의 가족을 모두 양양에 은신시켰고, 유관순의 동생인 관복(寬福)과 관석(寬錫)을 양육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2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35·610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10266			포상정보	
성명	지용기	한자	池龍起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池弘敏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67-03-16	사망년월일	1907-11-03	훈격	독립장
본적	강원도 양양(강원 춘천 서해작 금산)				
주소	미상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출신이다.

1907년 9월에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 잃어 가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이언용(李彦用)·이완채(李完蔡)·이인재(李寅在)·신창호(申昌鎬) 등과 더불어 거의(舉義)하여 창의대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60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강원도의 양양, 충청북도의 청주(淸州), 쌍호(雙湖) 및 경상북도의 송면장(松面場) 등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일본군 수비대 및 헌병대와 교전(交戰)하여 적군에게 타격을 입힌 바가 크다.

그 후 1908년 11월 3일에 일본군에 의해 격살(擊殺)당하매 장렬히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500·533·713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666·706면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127·151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727			포상정보	
성명	최인식	한자	崔寅植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崔重憲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91-09-09	사망년월일	1948-05-11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林泉里				
주소	江原道 襄陽郡 襄陽面 林泉里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양양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처남인 김명기(金明基)와 함께 힘을 모아 학자가 접근하기 힘든 서민사회에 조직을 펴는 한편, 양양보통학교 졸업생을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포섭하였다. 그가 직접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조화벽(趙和璧)이 3월말경 양양을 찾아와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4월 3일 김필선(金弼善)·김재구(金在龜)와 함께 옥양목과 백지에다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김규용(金奎容)과 함께 같은 마을 이교정(李敎貞)의 집에서 다시 태극기를 만드는 중, 이 작업광경을 본 군수 이동혁(李東赫)이 인쇄기와 재료를 빼앗아 가자, 계획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일단 나머지 인쇄물을 가지고 거마리(車馬里)의 이종태(李鍾台)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드디어 이튿날 아침 이종태가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오전 11시경 양양읍 시장에 이르러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1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74·975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6741			포상정보	
성명	최학길	한자	崔鶴吉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崔明玉	성별	남	포상년도	2010
생년월일	1875-04-18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西 龍川				
주소	江原 襄陽 西 龍川				

공훈록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용천리(龍川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최학길은 용천리 이장 노병우(盧炳禹)와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양양 장날, 노병우와 최학길은 이재명(李在明), 김기봉(金基奉) 등 수십 명의 용천리 주민을 이끌고 장터로 향하였다.

장터에 도착한 최학길 등은 양양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양양경찰서 경찰들이 총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총격으로 최학길, 노병우를 비롯하여 용천리 주민들만 8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최학길은 1920년 4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13~616면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4. 14)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199			포상정보	
성명	최한두	한자	崔漢斗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79-06-25	사망년월일	1928-08-22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舟 460				
주소	江原 襄陽 襄陽 舟 460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5일 양양군 손양면(巽陽面) 주리(舟里) 이장(里長)으로 있으면서 우암리(牛岩里) 이장 김진열(金振烈)·상왕도리(上旺道里) 이장 김종탁(金鍾鐸)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다짐하고 주민 300여명을 모았다. 그는 미리 태극기와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큰 깃발, 그리고 주리에서 가지고 온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기를 준비하여 시위대열의 선두에 세우고 뒤로는 농악대가 흥겨운 가락을 치면서 따라오게 하며 양양 장터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하여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76·97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0면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956547			포상정보	
성명	추교철	한자	秋敎哲	운동계열	국내항일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9
생년월일	1909-08-29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강현 물갑 381				
주소	강원도 양양 양양 남문				

공훈록

1928년 조선소년총연맹의 양양지부 및 양양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33년 6월 양양적색노농조합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기소유예됨.

참고문헌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5564			포상정보	
성명	추병원	한자	秋秉元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2
생년월일	1883-10-22	사망년월일	1941-05-10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降峴 間谷 103				
주소	江原 襄陽 降峴 間谷 103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장세환(張世煥)·김두영(金斗榮)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강현면내 각 마을에 연락책임을 맡아 다수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물치(物池) 장터에서 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인 4월 6일에도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34095			포상정보	
성명	한윤성	한자	韓允成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2014
생년월일	(1884-05-11)	사망년월일	미상	훈격	건국포장
본적	강원도 양양 현북 대치				
주소	강원 양양 현북 대치				

공훈록

1919년 4월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현북면사무소(縣北面事務所)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양군 현북면에서는 4월 7일과 9일 두 차례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4월 9일 시위는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區長)이 연합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한윤성은 구장 김종성(金鍾聲)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인솔하고, 현북면사무소에서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일경의 무차별 발포로 사망자 9명, 부상자 20명이 발생하여,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한윤성은 시위 후 체포되어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3. 8)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每日申報(1919. 12. 4)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82면
 국내 3·1운동(독립기념관, 2009) i 143-144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8862			포상정보	
성명	한용운	한자	韓龍雲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62
생년월일	1879-08-29	사망년월일	1944-05-09	훈격	대한민국장
본적	충청남도 홍성				
주소	미상				

공훈록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충청남도 홍성(洪城) 출신이며 불교인(佛敎人)이다.

처음에는 1894년(고종 31)의 동학혁명에 가담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1896년(건양 1)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으로 들어갔다.

한때 만주 간도성(滿洲間島省) 등을 다니며 광복운동을 하다가, 1905년(광무 9)에 인제(麟蹄)의 백담사(百潭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 후 출가 입산하여 백담사에 오는 애국 지사에게 조국없는 백성의 비애와 앞날의 광복운동에 대한 방책을 설득시켰다.

1910년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박탈하자,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군 군관학교(軍官學校)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로 유랑하다가 1913년 귀국하여 불교학원(佛敎學院)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이해 범어사(梵魚寺)에 들어가 불교대전(佛敎大典)을 저술하여, 대승불교(大乘佛敎)의 반야사상(般若思想)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1916년에는 서울의 계동(桂洞)에서 월간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서는데 힘썼고,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24일,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협의를 한 최린(崔麟)으로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듣고, 또 최남선(崔南善)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해인사(海印寺)의 승려인 백용성(白龍城)에게 이 계획을 알려, 불교도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민족대표로 서명할 인장을 위임받았다. 그는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독립간청서 또는 독립청원서로 명명하려 했으나, 독립선언서로 표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27일에는 다시 최린을 방문하여 스스로 민족대표자로 서명 날인하고, 백용성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장으로 서명 날인하여 주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모인 민족대표를 대표하여 그가 인사말을 함으로써 독립선언식을 끝내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1926년에는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여 저항문학에 힘썼고, 1927년에는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경성지회장

(京城支會長)을 겸임했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敎靑年會)를 조선불교청년동맹(朝鮮佛敎靑年同盟)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이해 월간지 《불교》를 인수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독립 투쟁사상 고취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35 · 187 · 3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66 · 262 · 266 · 576 · 79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330 · 338 · 714 · 752 · 753 · 7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 · 15 · 20 · 23 · 28 · 40-44 · 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273 · 291 · 2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8 · 239 · 255 · 1002 · 1717 · 171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292 · 294 · 341 · 840 · 841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88 · 97 · 100 · 103-147 · 148 · 174 · 225 · 238 · 48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96면
- 기려수필 235 · 413면 · 박은식전서(상) 51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67 · 39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307 · 309 · 85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 · 77 · 91 · 10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2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고등경찰요사 18 · 22 · 4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64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 8권 378 · 388 · 405 · 439 · 567 · 661 · 662 · 665 · 666 · 669 · 844 · 846 · 852 · 854 · 855 · 858 · 859 ·
 - 861-876 · 880-882 · 888 · 890 · 892 · 893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8087			포상정보	
성명	함흥기	한자	咸鴻基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1
생년월일	1895-03-25	사망년월일	1919-04-04	훈격	애국장
본적	강원도 양양 襄陽 栢坪 216				
주소	江原 襄陽 襄陽 栢坪 216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날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양양읍 장터는 태극기와 만세소리로 가득 찼으며 독립선언서가 거리마다 뿌려졌다.

낮부터 일부 지방 유지들이 체포자들의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경찰서와 군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만 하면 감금되어 그들조차도 나오지를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된 군중들은 경찰서와 군청으로 몰려들었고, 다시 몇 사람이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손양면(巽陽面) 가평리(柯平里) 이장이던 그도 경찰서장실에서 항의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화로를 들고 경찰서장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법주임(司法主任)이 칼을 빼어 그의 팔을 자르고 허리를 찔렀다.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넘어진 그는, 계속 굴하지 않고 경찰서장을 꾸짖다가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 이와같은 그의 소식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던 군중을 자극하여 격렬한 무장항쟁으로까지 번지게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향토지(양양문화원) 105 · 10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 · 615 · 620면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7364			포상정보	
성명	황선주	한자	黃璇柱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3
생년월일	1881-02-01	사망년월일	1961-07-07	훈격	대통령표창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大峙188				
주소	江原 襄陽 縣北 大峙188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함성이 계속되자 양양군 현북면(縣北面) 기사문리(其士門里)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4월 9일 주민들을 이끌고 현북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주재소를 향해 1,000여명의 군중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하다가 속칭(俗稱) [만세고개]에 이르렀을 때 일경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고 시위가 해산되었으며 그도 피체되었다.

그 후 11월 12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원(圓)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구류(拘留) 25일이 확정되기 까지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郷土誌(襄陽文化院, 1976) 103~108面
- 郷土誌(襄陽文化院, 1990. 11. 30) 112·11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3~626面
- 判決文(1920. 3. 8. 京城覆審法院)
- 襄陽郷土史 109·11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84面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6382			포상정보	
성명	황응상	한자	黃應相	운동계열	3.1운동
이명	없음	성별	남	포상년도	1990
생년월일	1874-07-01	사망년월일	1919-04-09	훈격	애족장
본적	강원도 양양 縣北 漁城田 223				
주소	江原 襄陽 縣北 漁城田 223				

공훈록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縣北面 漁城田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9일 현북면민들은 독자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본래의 계획은 박원병(朴元秉)이 독립선언서를 많이 제작하기로 하고 마을마다 태극기를 만들어 양양 장날인 이날을 기하여 독립선언서가 일제 관헌에게 발각되어 읍으로 가는 것이 저지됨에 따라 관할 주재소를 습격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는 하광정리(下光丁里) 소재의 면사무소 주변 광장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한편 주재소에서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전날 지원부대가 도착해 있었고 일군경은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서 군중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매복해 있었다. 1천여 군중은 주재소를 향하면서 독립만세를 일제히 불렀고 일군경이 마구 쏘아댄 총탄에 맞아 그를 비롯한 전원거(全元擧)·임병익(林秉翼)·홍필삼(洪必三) 등 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날의 운동을 '기사문운동'이라 부른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鄉土誌(襄陽文化院, 1976) 105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3~626面

10) 양양 3·1만세 운동 공로자 공격

(1) 주요인물 공격

① 이석범(李錫範: 1859년~1932년)

이석범 선생은 양양의 3·1만세 운동을 최초로 선봉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치열하게 전개토록 한 양양의 횃불이었다.

이석범 선생은 1864년 고종 갑신년 초시에 합격하고 1889년 감초일차(監初一次) 음의관(蔭議官)에 합격하였으며, 1896년 3월에 군부관동출주참모사(軍部關東出駐參謀士), 1898년 6월에 중추원이등의관(中樞院二等議官), 1904년 10월 군기창기수(軍器廠技手) 등 구한말 의정부에서 관직을 수행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통치에 통분을 금치 못하여 관직을 여한 없이 버리고 낙향하여 도천면 중도문리에 쌍천서숙(雙川書塾)을 설립하고 근방(近方)의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한학을 중심교재로 하고 겸하여 항일정신교육과 개화사상교육을 병행 하였다. 이때 이석범 선생으로 부터 수학한 인물로는 3·1만세 운동 강현면 주동자 장세환을 비롯하여 중도문리 김영경이 있으며 그 후의 인물로는 속초면장 박상희,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낸 김용식 등 거물 인사들이 있다.

1919년 1월 고종황제가 서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의 유림대표 이종만(李鍾萬)옹께서 양양의 유림들을 현산공원에 소집시키고 한성을 향한 망곡(望哭)제를 치르고 나서 이석범 선생이 총지도자로 위임받고 선발된 10명을 인솔하여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가하였다.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의 대한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독립선언서 1부를 입수하여 그 독립선언서를 버선 밑창 속에 나누어 깔고 그 버선을 신고서 일경의 경계망을 무사히 통과하여 일행과 같이 3월 20일 귀향하였다.

유림으로 부터 3·1만세 운동 실행의 일체를 위임받은 이석범 선생은 우선 동생 이국범과 아들 재훈과 중도문리 이종국으로 하여금 도천면의 만세운동 일체를 위임시키고, 양양면 임천리 이교완의 집에 양양 3·1만세 운동 지휘본부를 비밀리에 설치하고, 양양 장터에서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의 독립만세운동이 차질 없이 거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4월 3일 밤 마지막 점검 회의를 마치려는 순간에 당시 양양군수 이동혁이 앞장선 일경의 무리에 채포되어 바로 양양경찰서에 구금된 이석범은 피비린내 나는 4월 9일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의 독립만세운동 후 양양경찰서에서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으로 송치되어 그해 10월 8일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11월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8개월간의 옥중생활을 청산하였다.

이석범 선생은 1914년부터 3·1운동 이후 1920년경까지 도천면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범 선생의 장손 이진호가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3·1만세 운동 공훈신청을 하였다.

〈이석범과 양양경찰서장과의 일화〉

-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례한 사실을 안 양양경찰서장은 이석범을 초대 한 자리에서 -
서장 :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미연에 막아주겠는가?”

이석범 : “나로서는 방지할 힘이 없다.”

서장 : “귀하의 문중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지해 달라.”

- 만세운동 후에 양양경찰서장이 이석범을 초치한 자리에서 -

서장 : “귀 문중에서 선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석범 : “나는 그런 약속한 일이 없다.” 즉시 통역관을 향하여

“너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내가 언제 방지하겠다고 말하였느냐?” 호
통 친다.

서장 : “참으로 영웅이다.” 라는 일화가 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43 문서번호 : 771437 성명 : 이석범 쪽번호 : 587-590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10월 8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이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 판결 중 피고 이석범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석범은 무죄.

압수물건은 모두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유

피고 이석범(李錫範)이 원심 피고 김명기(金明基)와 함께 체제에 불만을 품은 조선인의 조선독립을 꾀한 독립만세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 2일 강원도 양양군 임천리 이교완(李敎完)의 집에서 최인식(崔寅植)라는 사람과 만나 함께 양양군 양양읍 등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조선 각 지방에서 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호응할 것을 모의하고, 최인식은 양양읍 남부(차마리 등)에 건너가서 각 주민의 선동을 맡고, 북부(논산리 등)는 김명기가 그 임무를 맡고, 동인은 4월 3일 장인원(張仁源)의 집에서 장인원에게 위의 취지를 전하고 장인원으로 하여금 양양군 적은리 기타의 주민들을 선동하게 하고, 최인식은 양양군 차마리 기타의 주민들을 선동함으로써 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러 차례 양양읍 기타의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해당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36조 제224조에 의하여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원 판결에서 위 공소사실을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유죄의 처단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공소는 이유 있다. 이에 동법 제26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② 함흥기(咸鴻基: 1895.3~1919.4.4)

함흥기 열사는 손양면 가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양양군의 기미 3·1만세 운동사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의로운 죽음으로 일제의 폭압에 온몸으로 항거한 열사이다.

1919년 24세의 나이에 손양면 가평리 구장으로 4월 4일 만세운동 당시 경찰서장실로 들어가 경찰서장에게 전날 임천리에서 태극기를 만들다 잡혀온 22명의 석방요구에 거절당하자 경찰서장을 꾸짖으며 화로를 집어 던지려 거세게 항의하다 일본 순사의 칼에 양팔이 잘리고 목에 칼을 맞아 현장에서 장렬하게 순국하신 대한민국 기미 3·1 독립만세운동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다.

함흥기 열사는 전 구장 신세묵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양양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으로 양양의 만세운동 주동자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고 이를 손양면 전체에 연락하여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친척 관계였던 현북면 상광정리 오세옥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현북면 주민들과도 긴밀히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하였다.

1919년 4월 1일 양양군 각 면 책임자들이 임천리 이교완의 집에 모여 4월 4일 양양장날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4월 3일 모의 사실이 양양군수에게 발각되어 만세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주모자급들이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계획대로 실행에 들어갔다. 장날 이었던 1919년 4월 4일 만세운동 김새를 사전에 알아차린 일경은 장터를 폐쇄하였다. 하지만 함흥기열사는 아침부터 손양면 사람들을 추동(推動)한 주민들과 양양장터로 향하는 행군대열을 선도하여 남대천 다리에 이르니 그곳에는 이미 일경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일경에 대치하다가 동운교를 건널 수 없게 되자 동운교 위아래로 분산되어 물을 건너 양양장터에 들어가 각 면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다가 군중을 인솔하여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서 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그리고 주도자 몇 명이 경찰서로 들어가 또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함흥기는 경찰서장실에 뛰어 들어가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 경찰서장실 안에 불이 타고 있는 화로를 들면서 사타쿠 경찰서장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법주임 아끼야마와 오오이시 두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일본도로 내리쳐 그의 양 팔이 잘려져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넘어진 그는 계속 굴하지 않고 경찰서장을 꾸짖다가 끝내 왜경의 칼에 목을 찢리며 순국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조선인의 기개를 떨쳐 보여준 의로운 죽음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 24세의 청년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권병연도 격한 감정을 못 이기고 경찰서로 뛰어 들어가 일본경찰의 칼에 목을 맞아 순국하였고, 이에 군중들이 격분한 가운데 상평리 구장 김학구 역시 경찰서로 뛰어들어 일경의 총에 난사당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함흥기, 권병연, 김학구 열사의 죽음은 만세운동을 벌이던 군중을 자극하여 끝내 격렬한 무력시위로 발전하게 했다. 일본경찰은 경찰서 복도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던 시신을 돌려주지 않고 열흘이 지난 후에나 가족에게 인도 되었다. 일본경찰은 함흥기 열사의 장례 때에도 동네 주민이 하관하여 시신을 묻으려고 할 때 관을 꺼내어 깨어버리며 행패를 부렸다고 전하는데, 이유는 장례식 때 동네 전 주민들이 모여서 울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후 가족들이 조용히 다시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1963년 손양면 출신의 만세운동 열사 함흥기, 권병연을 추모하는 비가 손양면 간리 언덕에 세워졌다.

또한, 2019년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손양면 주최로 2019년 3월 1일 손양면사무소에서 기념식과 함께 함흥기 열사의 추모비를 손양면사무소 앞마당에 건립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 표창을,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양양 3·1만세 운동 추모비

3·1만세운동 추모비 대한 이종우(李鍾宥: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고문) 글을 소개한다.

함흥기, 권병연 의사 추모비는 양양 현산공원에 1963년 3월 1일 건립 되었으나 1980년대에 손양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졌고, 다시 7번국도변으로 옮겨졌다.

1919년 4월 4일 석양이 질 무렵 양양경찰서장실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일본 경찰이 휘두른 일본도의 칼날에 가평리 구장 함흥기(당시 24세)에 이어 간리에서 살면서 엿장수를 하던 권병연(당시 28세 부인은 주막을 차리고 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감)도 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무참히 희생되었다.

함흥기, 권병연이 희생된 지 44주기인 1963년 ‘재건국민운동 양양군지부 손양축진회(회장 김주악(金周岳) 사무장 김시환(金時煥) 주관으로 손양면민 일동의 민의에 의하여 손양면 출신 함흥기, 권병연의 애국충정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3·1운동의사 두 분의 추모비를 제작하여 현산공원에 세웠다.’

그런데 1980년대 양양군에서 현산공원을 정리 할 때에 추모비를 철거해 버리는 것을 본 당시 손양국민학교 교장 최갑규(崔甲圭) 선생이 손양국민학교 관리기사 김봉호(金奉鎬)와 같이 손수래(인력거)에 실어 4km가 넘는 손양국민학교 교정 남쪽 모퉁이의 무궁화동산 한가운데에 추모비를 옮겨 관리하면서 애국 애향의 참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하였다.

그 후 1991년 10월 롯데건설에서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준공하니 권병연의 고향마을인 간리 고개 지금의 8군단 앞쪽 도로변에 잔디공원을 조성한 가운데에 옮겨 세워 기리고 있으나 추모비주변으로 다니는 행인은 없고, 80km이상으로 질주하는 차량 뿐이다.

○ 함흥기 열사 생가 철거시 유품

1917년 건축되어 2013년 철거과정에서 양양문화원이 입수하여 보관중인 상량문 내용.

[咸鴻基 烈士 上樑文]

維歲次丁巳二月乙未朔初三日丁酉運主咸鴻基敢昭告于

土地之神曰述夫 向陽背陰始卜吉於山水 人傑地靈 盖 別基新主 土木始營築勉三年之會議 於是好

上棟下宇盖取衆於乾坤 父堂子構 聖世逸民 瑞花滿發果叶一夜之夢徵

爰始爰謀得人力於築室 東挹鰲峰文章之魁奇不窮 文酒嘗與吾相論斐相公之綠野 山宜採水宜釣

善頌善禱獲神助於奠基 北拱蟹巖君子之育德可狀 花石每戒汝勿俱李德裕之平泉 原可農濕可業

得真樂於漁樵 壽考富貴質遐福於百年 聊爲短引 奇哉奇哉 瞻彼雪嶽 龍勢行遙 五垓又高逶迤一龍

有餘飽於衣食 松菊花筠宜可賞於四時 表揭新樑 主此襄陽 ○○○嶂 主基江陵回抱百餘里

漢江源出兩間集合諸流放于海 山川麗明挺其靈氣 阿郎偉拋樑東 太乙安期爲我說 自是天君降百神 獲野連脈鍾降真君 一點丹峰爲筆枝 清都不遠馭仙風 庭花院竹春無恙

呪祝不已 人口豐盛 畜足蔓遲 心欲新造 畏也此狀 今日此時蒙昧不淨之來人 伏惟俯鑑 星奇時合

福興雲會 五福咸臻 六害自蔑 問卜吉日 莫知吉凶 造新神主還安前日所臨方 荒○皆吉

○願上樑由去由來 阿郎偉拋樑下 秋穫春耕合有時 左仁門右義路 言以禮行以信

四德三功

地久鍾靈錫孝澈於不匱 大海所窮皆我田 相逢盡是神農者 行人皆遂君子 聖賢莫擇
小人間 皆遂於是

呪祝誠於今時 誠極於心心極誠於 神其饗之

發福我路九利 願期於神主喜來感發 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번역>

유세차정사이월을미삭초삼일정유운주함홍기감소고우

토지지신께 다음과 같이 아뢰나이다.

양을 향하고 음을 등지는 산수에서 비로소 좋은 날을 가려,

들보 올려 집을 지으니 건곤의 법도를 취하는 상이로다.

인걸은 지령으로 태어나니, 여기에 아버 집을 자식이 구축하는 도다.

송상하도다.

명당 터 새 주인은 성세의 일민으로, 가옥공사를 삼년간 의론하면서 힘 써 짓고, 상서로운 꽃 만발하는 하룻밤의 꿈과 같이 좋은 결과이루며, 여기에 이에 계획하고 도모하여 인력으로 집을 지었으니, 송축과 기도를 잘하여 신의 도움으로 터를 정하여 얻었으니, 동쪽에서 오봉이 읍하고 괴기한 문장은 무궁하리며, 북쪽에서 게바위가 받드니 군자의 덕을 기르는 형상이며, 시주(文酒)로 일찍이 우리들과 서로 논하던 비상공의 녹야에, 화석(花石)을 모두 경계하지 않는 이덕유(李德裕)의 평천(平泉)이며, 산이 마땅하여 채수하니 낚시도 의롭고, 들은 농사도 가하니 그 업이 가하며, 바다와 산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의식이 넉넉하여 항상 배부르며, 백년 오래오래 오복의 바탕에서, 사군자 사시 불만하며, 짧은 시 넉넉하지는 못하지마는, 새 들보에 드러내도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저 설악산을 쳐다보니, 양양은 주인이다, 용의 기세 멀리 뻗고, ○○○높은 산, 오대산의 높은 한 용이 꿈틀꿈틀 뻗어 내렸으니, 주인의 터는 강릉에서 백여리 돌아 안았구나.

양골에서 원출한 남대천은 바다로 흘러 모인다.

산천은 수려하고 그 영기 맑고, 진군이 하강하여 만종의 곡식을 거두는 들이 이어진다. 어영차 들보 머리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한 점 모란봉이 붓대가 되며, 태을 안기생의 위아설이 되고, 불원 청도에 선풍이 불어오며, 자시로 하느님의 백신이 내리시니, 정원은 갖은 꽃 대숲이 봄 같아 근심 걱정 없다. 주술을 멈추지 않으니, 복이 구름처럼

림 일고, 인구가 풍성하고, 오복이 모두에 이르며, 천천히 덩굴같이 넉넉히 쌓이고, 자연히 육해를 업신여기며, 새로이 지으려는 마음에, 길일을 점치며, 이 형상을 두려워하고, 길흉을 알아 미리 막으며, 오늘 이시에 부정한자 옴은 몽매하니, 새로 지은 신주께서 임하실 방위에 전일 편안히 오셨다,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기이하게 때에 합치니, 거친○○가 모두 길하며, ○원하는 상량의 가고 오는 유래는, 땅은 영원하듯 영기의 복은 맑은 효성과 같이 지극하다. 어영차 들보 아래 떡을 던지니, 대해의 끝까지 모두 내 전답, 봄에 밭 같고 가을에 거두어 드림 모두 때가 있고, 이는 모두 신농씨의 만남이며, 좌측 인문 우측 의로운 길, 행인은 모두 군자를 따르며, 언행 예의롭고 믿음이 있으니, 성현은 소인배도 가리지 않으며, 사덕과 삼공, 모두 이에 따르니, 지금에 정성으로 빌며 축원하나니, 나의 길에는 모든 이로움의 복이 일어, 지극정성의 마음과 마음으로, 신주에게 원함이 기쁨의 느낌으로 피어나도다. 신께서 흠향하시기를, 삼가 주과를 차려 놓고서 정성을 펴 경건히 고하나이다.

翻譯 又泉 李鍾寓

註.

花石 / 琪花瑤草와 奇巖怪石

平泉 / 唐 나라 名宰相 李德裕의 別莊

斐相公 / 大學 二.傳文 3.止至善에 有斐君子라는 句이 있는데

“의젓하신 군자” 라고 해석하였으니

의젓한 상공 즉 훌륭한 재상이라고 해석해도 좋으리라 봄.

③ 조화벽(趙和璧: 1895.10.17~1975.9.3)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 전도사 조영순(趙英淳)과 어머니 전미흠(全美欽) 사이에 무남독녀로 양양면 남문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경공부를 하였고, 1910년 16세에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남감리교 미션스쿨인 원산성경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1912년에는 원산 루씨여학교(樓氏女學校)로 진학하였는데 당대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 배화, 승의, 호수돈여학교 등과 함께 기독교 계통의 5대 명문사립 여학교였다. 그 후

개성 호수돈여학교 보통과와 고등과에서 수학하였다.

조화벽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의 물결이 개성으로 확산 될 즈음, 호수돈여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으로 비밀결사대원으로 어윤희, 권애라 등과 함께 3월 3일 개성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호수돈여학교 학생 대표들이 거리로 나가 만세운동을 펼치자 뒤이어 미리흠여학교와 송도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가세하여 개성의 만세운동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마침내 각 학교들은 3월 5일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던 조화벽은 일경의 삼엄한 경계를 피하여 몰래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경원선 열차로 원산을 거쳐 배편으로 고향인 양양 대포항에 도착했다. 이 때 일경의 검문을 받았지만 가방 안의 버선목에 숨겨놓은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았다. 조화벽의 만머느리인 김정애(金貞愛:전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대포항에 도착하자 일본 경찰이 소지품을 전부 압수하고, 관사로 끌고 가 신문을 하였는데 가방의 버선목 속에 감춘 독립선언서가 발각될까 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고 했다.

무사히 고향에 도착한 조화벽은 당시 양양감리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던 김영학 목사와 만났고, 청년지도자인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를 인계하고, 당시 유림의 지도자인 이석범 선생과 연결되어 1919년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하여 3·1만세운동을 계획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양양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매일 매일 “6개면 82개 동리에서 연인원 1만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라고 1923년에 발행된 『개벽지 42호』에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조화벽은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 호수돈여학교 고등과를 마치고 그 해 가을 충남 공주 영명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이 무렵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군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벌어진 만세운동 현장에서 유관순(柳寬順)의 아버지 유증권과 어머니 이소제는 일경의 총탄에 현장에서 살해되었고 유관순은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또한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柳愚錫)도 같은 날 충남 공주장터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공주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조화벽은 황인식 교감 집에 하숙을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유관순의 두 동생 인식(仁錫, 13세)과 관석(冠錫, 8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갈 때 없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또한 유우석의 옥바라지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영명학교 교사였던 임영신(任永信)과 함께 상해임시정부의 군자금(軍資金)을 십일조(十一條)를 통하여 보내기도 했다.

1923년 유우석과 혼인하였고, 1925년 개성 호수돈여학교 교사를 거쳐 1927년에는 원산 진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산 여성기독교청년회(YWCA) 부회장과 해원상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또한 남편 유우석은 원산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지만 항일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1932년 남편 유우석이 잠시 해외로 망명하자, 조화벽은 고향 양양으로 돌아와 1926년도에 기 설립한 정명야학원을 주간부 정명학원(貞明學院)으로 변경하여, 1935년 4월 8일 주간부 신입생 70명으로 개원해 1938년 3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정명학원은 가난하여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피폐한 농촌의 학생을 모아 문맹을 퇴치하는 민족교육을 실천하였으며, 1944년 폐교될 때까지 13년 동안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37년 11월에는 양양부인상회 발기인 모임에 이사로 참여하는 등 여성으로써 사회활동을 지속했다. 이때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어머니를 12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삼형제를 길렀으며, 유우석 고모인 유정숙은 강현면 사천리에서 거주하였고, 두 동생들도 양양에서 결혼시켰다. 그 후손들이 아직도 양양에서 살고 있다.

드디어 1945년 해방이 되자 양양은 38도선 이북으로 갈라져 공산치하에 들어가자 월남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에 살면서 미아중앙교회에서 여 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79세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신앙심으로 살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시아버지 류중권, 시어머니 이소제, 시조은아버지 류중무, 시누이 류관순, 남편 유우석, 시조카 류예도, 5촌 시조카 류제경, 외조카 한필동, 가족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이에 조화벽은 춘천의 윤희순 의병장, 철원의 광진근 지사와 함께 강원도 3대 여성

독립운동가로 꼽힌다.

또한 나라를 빼앗기자 1910년 12월에 모든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우당 이회영의 안사람 이은숙(李恩淑) 여사와 27년간이나 임시정부에서 안주인 역할을 한 정정화(鄭靖和) 선생과 함께 유관순 집안의 며느리로서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조화벽은 항일독립운동사에 양양이 낳은 근대 선각여성이다.

- 다음은 유관순 열사의 고모인 유정숙 여사의 거주지를 조사한 내용을 실는다.

〈 유정숙(조화벽 지사의 시고모) 거주지 조사 내용 〉

조화벽 지사의 시고모(媿姑母)인 유정숙이 양양읍 월리에서 거주하였다는 예기를 듣고 월리 거주 김택중씨를 찾아가 현지 조사에 임함.

○ 일 시 : 2018.10.24. 13:00~17:00

○ 장 소 : 양양읍 월리, 양양읍 사천리

○ 조사자 : 김양식, 김광영 연구원

○ 피 조사자

- 김택중 : 76세, 월리 거주 주민

- 김택기 : 72세, 유정숙 거주지 주택 소유자(전 월리 주민)

- 박상형 : 64세, 전 양양군의회 의장, 현 사천리장

▶ 김택중 : 어려서부터 유관순 열사와 그 가족들이 살았다고 하는 집이 현 자신의 집 앞(남쪽) 함석집이며, 옛날부터 예수집으로 불려 왔다고 함.

▶ 김택기(유정숙 거주 주택 소유자)

- 당 72세, 전화: 033-672-0245

- 지번 : 양양읍 월리 142번지(안산 2길 62) 158평

- 김택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정숙 부부가 살던 초가집을 허물고 아버지(김원호)가 지금의 집을 짓기 시작하여 중학교 1학년 때 준공 하였다고 함.

- 아버지는 일정 때 전 양양읍장을 지내신 최성호씨와 철도국에 근무하셨으며, 유정숙 부부가 지금 우리집터에서 살았다고 하며 일본경찰의 후환이 두려워 자세한 이야기를 꺼리셨으며 집 번지도 우리 집과 거리가 먼 월리 150번지라고 각종

기록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유정숙의 남편은 대학 교수인지 고위층이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 박상형

- 현재 속초에 살고 있는 유정숙이라고 알고 있는 분은 유정숙이 아니고 유정숙의 딸 최순영(32년생)이며 아들 기진(당65세가량)이 속초에 거주 한다고 하며, 유정숙의 남편은 경찰이었는데 사별을 하고 사친으로 재혼을 하여 아들 기진을 두었으며 본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순영의 동생의 아들 최선조(당 60세 가량)는 현재 암 투병 중으로 10.25 퇴원 한다고 하며 최기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 개인별 공적(가나순)

○ 강산여(康山汝)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60대를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강춘실(姜春實)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는 4월 7일과 9일 사이에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7

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 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탄로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윤 등이 협의하여 부근의 원일전리·장리·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 운동'이라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반침대를 뽑아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군과 경찰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강춘실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고을주(高乙柱)

양양군 도천면 논산리 사람이다. 그는 당시 구장으로서 김주철·황명찬·박명원 등 다른 구장들과 함께 1919년 4월 8일 논산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들은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한 농민과 어린이들을 이끌고 대포리 주재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부월리 앞에서 면사무소의 회계서기 김우규가 만류하여 그곳에서 만세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일로 태형 90대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9면

○ 김경도(金敬道)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일과 6일 양일 동안 주청리 주민을 이끌고 도천면과 강현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하였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물치장터에 모인 군중은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높이 외쳤다. 오후에는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다시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4월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지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을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 벌이고 저녁에 해산하였다. 그는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법 강릉지청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김경숙(金敬淑)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 주민의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이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 시위였다.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 하에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났지만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가서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의 지도를 받으며 서면 용천리 군중과 함께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 높여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 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 김경숙도 이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 김규용(金圭容)

당시 19세. 양양군 양양면 서문리 사람이다. 1919년 4월초 최인식·김재구·김계호·김필선 등과 함께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김필선이 근무하던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성남동 뒤에 있는 곳집에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또 때마침 3월 삼짱날이라 삼짱날의 율계를

가장하고 이교완·이건충의 집 등 몇 곳에서 수십 명이 모여 대량의 태극기를 만들고, 한편 다른 마을로 보내기도 하며 만세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일이 탄로나 이건충의 집에서 만들던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김종태의 집으로 옮겨 밤새 계속 준비하였다.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읍으로 통하는 5개의 도로를 따라 각 지역담당 지도자들의 지휘아래 장꾼을 가장한 군중들이 수천 명 모여 계획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니 장터는 태극기와 만세소리로 가득 찼고 독립선언서가 거리마다 뿌려졌다. 어둠이 깔리자 낮에는 숨어있던 경찰이 어둠을 이용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였으므로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부상자도 수없이 많았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된 후 1919년 5월 31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2, 613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6면

○ 김대광(金大光)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오전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계속 시위하니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을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을 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619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김대선(金大先)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들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그는 김두영·박제범과 함께 물치리의 주민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물치장터에 모인 군중은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오후에는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을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을 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 김두선(金斗善)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김주호·김봉운·김주열과 함께 읍내에서 아침 일찍부터 읍 부근의 주민을 지도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면

○ 김두칠(金斗七)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4월 7일과 9일 사이에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 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탄로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근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 운동’이라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그는 어성전리의 구장으로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세운동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를 뽑아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군과 경찰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면

○ 김봉구(金奉九)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는 4월 7일과 9일 사이에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 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탄로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근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 운동’이라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를 뽑아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군과 경찰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김봉구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김봉도(金鳳道)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4집 976면

○ 김봉운(金鳳運)

양양군 사람이다. 1919년 4월초 그는 김필선 · 김재구 · 김규용 · 김계호 · 김주호 등과 함께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김필선이 근무하던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성남동 뒤에 있는 곳집(상여보관처)에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또, 매마침 3월 삼진날이라, 삼진날의 율계를 가장하고 이교완 · 이건충의 집 등 몇 곳에서 수십 명이 모여 대량의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다른 마을로 보내기도 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일이 탄로나 이건충의 집에서 만들던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김종태의 집으로 옮겨 밤새 계속 준비하였다.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읍으로 통하는 5개의 도로를 통하여 각 지역담당 지도자들의 지휘아래 장꾼을 가장한 군중들이 수천여명

모여 계획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니 장터는 태극기와 만세소리로 가득 찼고 독립선언서가 거리마다 뿌려졌다. 어둠이 깔리자 낮에는 숨어있던 경찰이 어둠을 틈타 총을 쏘기 시작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부상자도 수없이 많았으며, 또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2면

○ 김석희(金錫熙)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유학자 박원병·박규병 형제와 감리교회의 청년 오세옥·이응렬 그리고 임병익·오정현 등이 힘을 모아 추진한 소위 '기사문운동'에 마을 구장으로서 참가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4월 9일 주민을 인솔하여 하광정리 면사무소에서 1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공격하기 위하여 주재소로 향하였다. 주재소로 행진하며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민국만세'를 일제히 부를 때 경찰의 발포로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김승식(金昇式)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오전에는 강현면의 물치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로피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계속 시위를 하니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

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을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을 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619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김암이(金岩伊)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60대를 선고 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619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김영경(金英經)

양양군 도천면 사람이다. 그는 강현면의 장세환과 함께 1919년 4월 5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중도문리 일대의 주민을 선동하며 계획을 추진하였다. 4월 5일 대포리에 모인 도천면민을 지휘하여 만세를 부르고 오후에는 강현 면민과 합세하여 헌병주재소 주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했다. 이어서 6일에는 양양읍으로 가서 제지하는 경찰을 물리치고 경찰서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다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매일신보 1919. 5. 3.

○ 김원식(金元植)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의 방에서 이능렬·이형우와 함께 태극기 2폭을 작성하고 5일 봉현면 물치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후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5일 정오 물치 시장에서 수백 명의 군중을 지휘하여 태극기를 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후 약 20정 거리인 도천면 대포 경찰주재소 부근에 이르러 다시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음 6일은 양양읍으로 가서 오후 1시경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1919년 6월 14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5집 975·976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김응옥(金應玉)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는 4월 7일과 9일 사이에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 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탄로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근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이라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를 뽑아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군과 경찰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김응옥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김익렬(金益烈)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양양읍 장날을 기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마을 구장으로서는 운동을 추진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9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양양 장터로 가려고 면사무소 주위에 모여 일단 만세시위를 벌인 뒤 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주재소를 공격하기로 하고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대한제국만세’를 부르며 행진 중 경찰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1919년 11월 12일 함흥 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84면

○ 김재구(金在龜)

당시 20세.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사람이다. 1919년 4월초 최인식·김재구·김계호·김필선 등과 함께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김필선이 근무하던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성남동 뒤에 있는 곳집(상여 보관처)에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또 때마침 3월 삼진날이라 삼진날의 율계를 가장하고 이교완·이건충의 집 등 몇 곳에서 수십 명이 모여 대량의 태극기를 만들고, 한편 다른 마을로 보내기도 하며 만세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일이 탄로나 이건충의 집에서 만들던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김종태의 집으로 옮겨 밤새 계속 준비하였다.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읍으로 통하는 5개의 도로를 따라 각 지역담당 지도자들의 통솔아래 장꾼을 가장한 군중들이 수천 명 모여 계획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니 장터는 태극기와 만세소리로 가득 찼고 독립선언서가 거리마다 뿌려졌다. 어둠이 깔리자 낮에는 숨어있던 경찰이 어둠을 이용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체포되었다. 김재구는 1919년 경성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2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5집 974·975면

○ 김중대(金鍾大)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현북면 만세운동에 박원병·오세옥·이응렬 등과 함께 참여하여 연락을 담당하였다.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과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현병 주재소로 가 만세를 부르며 공격하였다.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벌금 30원의 판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면,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83면

○ 김주열(金周烈)

양양군 양양면 율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김주호·김봉운·김두선과 함께 읍내에서 아침 일찍부터 읍 부근의 주민을 지도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2권 614면

○ 김주철(金周哲)

양양군 도천면 논산리 사람이다. 그는 당시 황명찬·박명원·고을주 등 다른 구장들과 함께 1919년 4월 8일 논산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들은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한 농민과 어린이들을 이끌고 대포리 주재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부월리 앞에서 면사무소의 회계서기 김우규가 만류하여 그곳에서 만세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 일로 태형 90대를 받았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2권 619면

○ 김주호(金周鎬)

1919년 4월초 김필선·김재구·김규용·김계호·김봉운 등과 힘을 모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면사무소의 등사관을 이용해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하였다. 4월 4일 아침부터 양양읍내와 부근의 남문리, 군향리, 구교리, 서문리, 성내리, 청곡리 주민을 동원하여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점심때가 되어서는 만세군중이 더욱 불어나 1천여 명이 넘는 군중과 종일 만세를 부르고, 저녁때부터는 돌과 몽둥이를 들고 군청과 경찰서를 때려 부수는 등 무력항쟁을 하였다.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2권 612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4집 976면

○ 김태선(金泰善)

1919년 4월 5, 6일 이틀간 이국범·이능렬·김영영 장세환 등이 추진한 양양읍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김원식과 침교리의 주민동원을 책임지고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하였다. 5일 주민을 이끌고 물치장터에서 강현면 전체에서 모인 군중과 독립선언식을 갖고 만세를 부른 후 오후에는 대포리로가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만세를 불렀다. 6일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양양읍으로가 만세를 불렀다. 1919년 4월 21일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9년 5월 1일 옥천동 권오훈의 집에서 결성된 강릉농업학교 독서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독서회는 ① 사회과학 및 일반서적을 습득하여 교양을 높인다. ② 일제 식민교육정책에 반대한다. ③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독립을 쟁취한다는 강령을 중심으로 매주 모임을 갖고 토론회를 열었으며 뜻있는 날에는 애국 전단을 요소에 붙여 민중의 민족적 자극을 촉진하였다. 1933년 6월에는 평소 한국학생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교사와 교사의 배척문제를 주도하여 전교생이 동맹휴학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69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1~123면

○ 남순극(南淳極)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의 지도를 받으며 서면 용천리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남순극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면

○ 노병우(盧炳禹)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으로서 최명옥과 함께 용천리의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

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노병우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616면

○ 노용수(盧龍秀)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박춘실과 함께 서면 상평리와 북평리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서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면

○ 문달문(文達文)

양양군 양양면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

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태형 60을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문종희(文鍾熙: 1902~1919.4.9)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 기념탑의 사망자 명단 등 현재까지 기록상 문종상(文鍾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8년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문종상은 1912년 출생(1919년 당시 8세)하여 1979년까지 생존하였으며, 문종상의 형 문종희는 1902년 출생으로 남편문씨 족보에 1919년 4월 9일 현북면 만세운동 당시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 일경이 발포한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여, 기존의 만세고개 사망자가 문종상이 아닌 문종희로 밝혀졌으므로 2018년 11월 독립유공자 신청(문종희)을 하였음.

다음은 기사문리 만세운동 중 왜경에 의해 피살된 문종희가 문종상으로 잘못 등재되어 현재까지 유공자로 선정(행세)되어 온 사실을 바로 잡고자 그의 후손들로부터 조사한 자료를 소개한다.

양양군에서는 2000년 3월 1일 만세고개에 3·1만세운동 유적지를 조성하고 기념탑 조형물을 세웠는데, 당시 사망자 9명의 명단 중에 문종상(文鍾祥:현북면 말곡리)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당시 아들 문철수(文哲洙:양양읍 구교리 거주 72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18년 3월 1일 충렬사 3·1운동 기념식장에 참석한 문철수는 무엇인가 잘 못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2018년 10월 23일 본 연구원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① 문철수(文鍾祥의 子)의 인터뷰

○ 본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 이름은 문철수(文哲洙)이며, 1947년 12월 10일생으로 우리 나이로 일흔 두 살이고, 양양군 손양면 우암리에서 출생하여 손양초등학교(손양면 소재)를 졸업하고, 현재는 양양군 양양읍 구교 2리 에서 살고 있습니다.

- 문종상(文鍾祥)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 ▷ 제 아버지이며 3남 1녀 중 2남입니다.
- 아버지의 생년, 몰 연월일과 아버지는 몇 형제였는지요?
 - ▷ 아버지는 1912년 10월 15일 현북면 말곡리에서 출생하셨고, 1979년 3월 7일 양양 읍 구교1리 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6형제 중 막내인데 제일 큰아버지는 문종석(文鍾錫), 둘째는 종각(鍾珪), 셋째는 종희(鍾熙), 넷째는 종하(鍾夏), 다섯째는 종열(鍾烈), 여섯째가 제 아버지로 종상(鍾祥)입니다.
 - 그리고 아버지 여섯 형제 중 후손은 저 밖에 없고 큰아버지들의 후손도 현재는 한분도 없습니다.
- 아버지(鍾祥) 형제분들의 1919년 3·1만세운동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1919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만세운동 때 아버지의 연세는 1912년생으로 8살이었으며, 종희(鍾熙) 큰아버지는 19세였고, 종석 큰아버지는 23세었다고 하는데 요, 당시 아버지는 어린나이에도 형님들을 따라 만세운동 대열 후미에 따라갔다고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였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기사문리 고개를 넘자 언덕 아래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지고 난리가 나서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근처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 날이 어두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 날이 어두워지자 아버지는 막내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저기에 쓰러져있는 많은 시신 중 큰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가마니에 둘둘 말아 지계에 지고 오셔서 대치리 산에 매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후일 저도 종희 큰아버지의 산소를 가본 적이 있어 묘지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어 많이 훼손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종희 큰아버지는 만세고개 만세운동 중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으며, 종석 큰아버지는 만세고개 만세운동 후 일본경찰에 잡혀서 함흥 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을 하셨다고 하며, 그 후 일본 경찰이 무서워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중국 하얼빈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3년쯤 살다 우리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 오셨고, 종석 큰아버지는 하얼빈에서 사시다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후손이 없다고 합니다.
- 아버지가 만세고개 기념탑에 사망자로 기록된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 ▷ 제가 농사일에 바쁘고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금년 2018년 3·1절 날 충렬사 기념행사에 갔다가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김양식님과

만세운동 관련 대화중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만세고개 만세운동 중 일경의 총에 맞아 사망하신분이 아버지 문종상이 아니고 문중희 큰아버지였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 ▷ 저는 아버지로부터 만세운동을 할 무렵 아버지의 연세는 8살로 어린 나이였고, 당시 19세인 중희 큰아버지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희 큰아버지 묘소도 제가 알고 종석 큰아버지는 함흥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 하얼빈에서 살다 돌아가셨으니까요.
- 집에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물품이 있는지요?
 - ▷ 아버지께서 만세운동 당시에 사용했다고 하는 태극기와, 책자, 조선팔도 지도에 초서로 쓴 지도, 아버지께서 받은 여러 상장 등이 커다란 박스에 꼭 채워져 있었는데, 지난 80년대 쯤 폭우로 집이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버렸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 아버지로부터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보고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 ▷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양양군에서 3:1절 행사 때 마다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고, 행사에 가시면 자주 상을 받아 오셨는데 큰 박스에 보관 하다가 폭우에 젖어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우며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아버지 형제 세분이 만세운동 현장에 계셨는데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분이 계시는지요.
 - ▷ 아버님은 생전에 표창을 여러 번 받았는데 훈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후손이라고는 저 밖에 없고, 그동안 먹고살기 힘들어서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라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안타깝습니다.
-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 ▷ 양양문화원에서 지역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만났으니, 이제라도 기사문리 만세고개 만세운동이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대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네, 지금까지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 10. 23

조사자 :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김양식, 김광영

② 문복수(文鍾熙 조카) 인터뷰

1919년 4월 9일 현북면 기사문 만세운동은 동년 4월 4일부터 일어난 양양 3·1만세 운동 중 마지막 날이자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현북면 군중은 양양 장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계획하고 하광정리에 있는 현북면사무소 앞에 모였다.

당시 현북면 각 마을에서 모여든 만세군중은 한창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부녀자는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도 주먹밥을 싸가지고 와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기사문리 관고개(만세고개)를 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감지하고 미리 잠복 중이던 일경(군)이 일제히 사격을 하자, 순식간에 군중의 선두에서는 신음소리와 함께 현장에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쓰러지면서 피바다가 되었다.

양양군에서는 2000년 3월 1일 만세고개에 3·1만세운동 유적지를 조성하고 기념탑 조형물을 세웠는데, 당시 사망자 9명의 명단 중에 문종상(文鍾祥:현북면 어성전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후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본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제 이름은 문복수(文福洙)이며, 1962년 12월 14일생으로 우리 나이로 57살이고,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에서 출생하여 현북초등학교와 현북중학교, 강릉농공고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에서 농사일을 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 문종석(文鍾錫), 문종희(文鍾熙)와는 어떤 관계이며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 큰 댁 큰아버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문종석 큰아버지는 만세운동 때 징역살이를 했다고 어렵פות이 들었으며, 문종희 큰아버지는 만세운동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 남평 문씨 족보 초보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문복수가 제출하는 남평 문씨 족보 초보를 받아 복사 하다.)

○ 이 족보 초보는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초보에 甲午年(1954년)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1954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가 현재 82세인데 아직 살아 계시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병제(秉濟) 할아버지가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 족보 초보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 네, 초보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서, 2016년 1월에 양양문화원을 찾아가서 해석해 주실 분을 요청하여 번역을 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화원에서 한시(漢詩)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종우 한시교실 강사)을 소개해 주셔서 그 선생님께 부탁을 하여 번역본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 네, 저희 조상님들에 대하여 저희는 한 일이 없는데 저희를 대신하여 깊이 조사를 해 주셔서 조상님들의 공적을 알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지금까지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1. 13

조사자 :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김양식, 김광영

○ 박경화(朴京化)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의 지도를 받으며 서면 용천리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에 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박경화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 박관홍(朴寬弘)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

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오전에는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고, 도천면 군중을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계속 시위하니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피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은 쓰지 않고 만세시위를 끝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61~61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박명원(朴明元)

양양군 도천면 논산리 사람이다. 그는 당시 구장으로서 김주철·황명찬·고을주 등 다른 구장들과 함께 1919년 4월 8일의 논산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들은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한 농민과 어린이들을 이끌고 대포리 주재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부월리 앞에서 면사무소의 회계서기 김우규가 만류하여 그 곳에서 만세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 일로 태형 90대를 맞는 고초를 겪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9면

○ 박성문(朴成文)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화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평 90대를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박순범(朴淳範)

양양군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오전에는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정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고, 도천면 군중을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계속 시위하니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리갈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은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을 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박왕근(朴旺根)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을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박용규(朴容圭)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박규병·이성윤과 함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 3백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7일 아침 주민을 인솔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서면 용천리와 양양면 임천리로 행진하며 만세를 부르고 양양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군대와 경찰이 완강히 저지하므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을 향하여 감금 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1919년 4월 21일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3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박용기(朴容琦)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

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윤 등이 협의하여 부근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 운동’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그는 원일전리의 구장으로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세운동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만세운동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를 뽑아 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 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하기 시작하여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면

○ 박의병(朴義秉)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의 지도를 받으며 서면 용천리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박의병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 박재룡(朴在龍)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을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박제범(朴濟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들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5일 오전에는 강현면의 군중이 물치 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고, 도천면 군중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계속 시위하니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은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을 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는 김두영·김대선과 함께 물치리의 주민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 박춘실(朴春實)

양양군 서면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노용수와 함께 서면 상평리와 북평리 부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서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 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또 4월 6일과 7일 상평리의 만세운동도 주동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 운동은 4일 만세시위에서 피살된 김학구의 장례식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으로 6일 장례식을 치르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원통히 불렀고, 7일은 면사무소에 쳐들어가 면장을 규탄하며 건물을 때려 부수는 등 격렬히 시위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 621면

○ 박태석(朴太錫)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을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방덕홍(方德弘)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을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성광호(成廣鎬)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

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을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신세묵(辛世默)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함흥기와 함께 가평리의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면

○ 심한준(沈漢俊)

양양군 강현면 중북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그는 김창렬과 함께 중북리의 주민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 오문환(吳文煥)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오문환도 이 때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오세관(吳世權)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오세관도 이 때 부상을 당

하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오세옥(吳世玉)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원일전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유학자 박원병 형제와 이용렬·임병익·오정현 등과 함께 현북면의 독립운동을 계획하여 양양 장날인 9일 양양읍에 가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던 박원병이 발각되어 양양 경찰서에 구금되자 박규병·박용규·이성윤 등은 7일 원일전리·장리·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양양읍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4월 9일의 만세운동은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그대로 추진되었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소위 '기사문운동'이란 것으로 양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만세시위였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읍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바꾸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채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를 뽑아 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 주채소에 이르러 '대한 제국 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하므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이 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에 벌금 30원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4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84면
매일신보(1919. 12. 4)

○ 오세풍(吳世豊)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윤 등이 협의하여 부근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

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오세풍도 이 때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 우길록(禹吉錄)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 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대를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윤명중(尹明鍾)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 · 박용규 · 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


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반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11월 12일 함흥 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에 벌금 30원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84면

○ 윤순범(尹順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 윤형집(尹亨集)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했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며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오전에는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 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세하여 만세 시위하니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은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을 펴고 저녁때 해산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

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61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이경근(李敬根)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이능우(李能雨)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하였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높이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

읍으로 가서 다시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서 넣어 걸머지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을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 벌이고 저녁에 해산하였다. 그는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법 강릉지청에서 징역 1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61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이상우(李相雨)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이국범과 이능렬이 추진하였는데, 그들은 4월 5일 강현면 물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각 마을에 책임자를 두어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4월 5일 오전에는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장터에 모여 강현면 사무소와 장터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오후에는 강현면민이 대포리 주재소로 가서 이미 모여 있던 도천면민과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여 사죄하자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으로 가서 다시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6일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서 넣어 걸머지고 양양읍에 모여 손양면의 군중과 합세하였다. 만세군중은 기세가 더욱 올라갔으나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무력을 쓰지 않고 만세시위만 벌이고 저녁에 해산하였다. 그는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법 강릉지청에서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61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7면

○ 이선택(李善澤)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윤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에 벌금 30원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84면

○ 이원도(李源燾)

양양군 감곡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양양면·서면·손양면 민들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趙和璧)을 통해서 교회 청년 김필선(金弼善)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짐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이관진(李寬鎭)·이원희(李源喜)와 함께 감곡리 방면의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북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3면

○ 이정희(李貞熙)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주민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 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최영덕(崔永德), 최영원(崔永原)과 함께 조산리와 사천리 방면의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동쪽 낙산사로 통하는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90대를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면

○ 이종남(李鍾南)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종남도 이 때 부상을 당


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이형우(李炯雨)

양양군 강현면 하북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이능렬·김영경·장세환이 주도하여 추진한 물치 장날의 독립만세운동에 구장으로서 참가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6월 14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집 975·976면

○ 장세환(張世煥, 1892년~1937년)

장세환은 강현면 적은리 63번지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그는 6척 장신에 풍채가 좋고 인물이 출중하였고 웅변에 능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했다. 1913년 유학자 이석범이 서울에서 돌아와 도천면 중도문리에 쌍천서숙을 설립하자 서숙에 입학하여 몇 십리 길을 걸어 다니며 신학문을 배웠다. 또한, 이석범 으로부터 국내정세에 눈을 뜨고 애국의 마음을 굳게 다지고 배일사상을 품게 되었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석범이 양양 유림의 대표로 서울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중도문리 마을로 돌아온 후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과 모의하여 각 면과 각 마을의 책임자를 정하고 본인은 강현면 전체의 책임을 맡아 만세운동 조직을 하였다. 이때 유학자는 물론 기독교의 청년들도 계획에 참여시켰다.

물치리 김두영, 박제범, 김대순이 인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강선리는 전달원·윤순범·이종엽, 하북리는 이철우·이형우, 중북리는 김창열·심한준, 간곡리는 추병원, 장산리는 양익환, 회룡리는 박봉제, 사교리는 김원식·김진선·김철기, 적은리는 김환기가 마을의 인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1919년 4월 3일 양양 임천리에서 양양의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이석범을 위시한 대표 22명이 구금되고, 4월 4일은 양양장터에서 3·1만세운동으로 함흥기 등 희생자가 발생하였지만 강현면의 계획대로 4월 5일 물치 장날을 이용하여 장세환이 강현면내 각 마을의 지도자들을 독려하여 많은 장꾼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물치리는 김두영·박

제범·김두선·오일영과 함께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태극기를 높이 들고 물치장터로 모여들게 하였다. 중북리는 심한준과 김창열을 대표로 하고 강선리는 윤순범과 이종엽을 대표로 기독교인은 전달원이 감리교 교인들을 장터로 모이게 하였다. 물치장터에 모인 군중은 장세환을 대표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오후에는 그 기세를 이어서 물치 장터에 운집한 강현면 시위대는 도천면(현 속초시) 중도문리 김영경, 부월리 이종순, 대포리 박사집이 인솔하여 물치장터로 모여든 도천면 군중들과 합세하여 장세환이 선두에서서 대포 주재소로 가서 “일본은 물러가라!”고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니 일본인들은 겁을 먹고 돌아가겠다고 사정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쫓겨 갔다.

사람들은 정말 일본인들이 쫓겨 가면 독립이 되는 줄 알고 기세가 높아지게 되었다. 6일에는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걸머메고 대포주재소를 공격하려던 군중들은 인원이 증가하여 1천 2백 여 명으로 늘어났다. 양양읍으로 가서 읍내의 관청을 습격하려 하려고 양양 시내에 이르자 당국에서 증원된 일본헌병들에 의하여 연창리에서 저지당하게 된다. 주동자 장세환은 선두에 섰던 6명의 시위대와 함께 무자비한 구타와 폭력을 당하고 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만세운동의 주동자 색출에 의하여 장세환은 체포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구류되었다가 함흥으로 이관되어 함흥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 후 구한말 서재필, 윤치호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전국적인 기독교청년단체인 웹엠택년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뜻이 맞는 청년 박상희(朴祥喜)·김형식(金亨植)·최우집(崔禹集)·최인식(崔寅植)·박종명(朴鍾溟)·이원희(李源熙)·오현영(吳顯泳)·최희국(崔熙國) 명의로 발기하여 1921년 2월 18일 양양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양양웹엠택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양양웹엠택년회 창립총회에는 70 여명의 청년회원이 등록하였으며 회장에는 박상희 부회장에는 장세환이 피선되어 삼엄한 일제의 감시 하에서 활발하게 청년 유학 지원, 전도 사업 노력, 토론 및 강연회 개최 등 청년운동을 전개하였었다. 이후에 웹엠택년회는 관동학우회의 순회 강연단 활동을 지원했으나 일제로부터 허가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고 벌금을 처분 받는 등 탄압을 받았다.

웹엠택년회활동을 전개하던 장세환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10년간 강현면장을 지

내면서 항일정신이 스며있는 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제의 수탈정책에 의하여 강현면민의 민생고가 심해가는 것을 보고 1936년 가을 강현면 농민들로부터 수탈한 공출 벼 [수확 후 일제가 강제로 소작인으로부터 수탈하는 일종의 농지세] 가리를 일제당국 모르게 농민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대신 벳짚을 쌓아 위장하고 밤에 불을 질러 태워 버렸다.

공출한 벳를 벳짚가리로 위장하여 불태운 사건으로 장세환은 경찰에 체포되어 함흥 지방형무소에 송치 수감되었다.

가족이 면회에서 피투성이의 비참한 꼴을 보고 온 후, 1937년 6월 26일 감방에서 사망하여 당년 46세로 시신이 되어 고향 적은리 마을 옛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장씨 문중에서는 재판 없이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몇 차례 항소했으나 일제는 받아 들리지 않았다.

장세환은 후손이 없으므로 양양문화원에서 2018년 8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 · 617면

○ 전달원(全達元)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주민이 연합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 정홍엽(鄭泓燁)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 · 박용규 · 이성윤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

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반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정홍엽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진원팔(陳元八)

양양군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유학자 박원병·박규병 형제와 감리교회의 청년 오세옥·이용렬 그리고 임병익·오정현 등이 힘을 모아 추진한 소위 '기사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서 1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공격하기 위하여 주재소로 향하여 행진하며 가로수반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주재소에 이르렀다. 주재소는 이미 이 사실을 탐지하고 강릉에서 지원부대까지 동원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1천여 명의 군중은 한국인 순사 이흥근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제히 '대한 제국 만세'를 외쳤다. 이때 일본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그는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최선극(崔善極)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의 지도를 받으며 선두에서 대형 태극기를 들고 서면 용천리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

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면

○ 최영덕(崔永德)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최영원·이정희와 함께 조산리와 사천리 방면의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동쪽 낙산사로 통하는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면

○ 최영원(崔永原)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 말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최영덕·이정희와 함께 조산리와 사천리 방면의 주민을 인솔하여 양양읍 동쪽 낙산사로 통하는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면

○ 최항식(崔尙植)

양양군 양양면 임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동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주동자들은 4월 3일 삼진날의 율계를 가장하여 수10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다른 마을에 연락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4일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 장터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그는 김종태·김필선과 함께 거마리와 임천리의 군중을 이끌고 양양읍 서쪽방면의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가다가 경찰과 대치하여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때에 양양읍내 교회 청년이 1백여 명의 군중을 지도하며 시위를 시작하자 양양읍 변두리에서 경비하던 경찰병력이 읍내로 몰려가 만세군중은 5개의 통로를 따라 장터로 몰밀듯 들어가니 온 장터가 만세군중으로 가득 찼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면

○ 한원팔(韓元八)

양양군 서면 용천리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 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 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 하였다. 그는 당시 구장이던 노병우와 최명옥의 지도를 받으며 서면 용천리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서남쪽 길을 따라 장터로 들어갔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한원팔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 함병원(咸秉元)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 · 박용규 · 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반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함병원도 이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홍금석(洪今錫)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운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난 후 양양읍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반침대를 뽑아 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제국만세’를 일제히 외치며 시위하였다. 이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홍금석도 이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3면

○ 홍대갑(洪大甲)

양양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3월말 경 조화벽을 통해서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김필선을 비롯한 교회의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시위였다. 4일 각 마을의 군중은 책임자의 인솔아래 양양읍으로 들어가는 5개의 중요한 통로를 따라 양양장터로 모여 들었는데, 이들은 집을 떠날 때는 장꾼으로 떠나서 장터에 가는 도중 또는 장터에 도착하여 만세군중으로 변하였다. 만세군중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거리마다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울분에 찬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식구끼리 교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낮에는 쫓겨 숨어있던 경찰이 총을 쏘

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태형 60대를 선고받고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4~6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집 979면

○ 홍필삼(洪必三)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유학자 박원병·박규병 형제와 감리교회의 청년 오세옥·이응렬 그리고 임병익·오정현 등이 힘을 모아 추진한 소위 '기사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서 1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 주재소를 공격하기 위하여 주재소로 향하여 행진하며 가로수반침대, 장작, 돌 등을 들고 주재소에 이르렀다. 주재소는 이미 이 사실을 탐지하고 강릉에서 지원부대까지 동원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1천여 명의 군중은 한국인 순사 이흥근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제히 '대한 제국 만세'를 외쳤다. 이때 일본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그는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 황명찬(黃明燦)

양양군 도천면 논산리 사람이다. 그는 당시 구장으로서 김주철·박명원·고을주 등 다른 구장들과 함께 1919년 4월 8일의 논산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들은 집집마다 한명씩 동원한 농민과 어린이들을 이끌고 대포리 주재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부월리 앞에서 면사무소의 회계서기 김우규가 만류하여 그 곳에서 만세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 일로 태형 90대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9면

○ 황중칠(黃中七)

양양군 현북면 사람이다. 현북면에서는 1919년 4월 7일과 9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7일의 운동은 9일로 계획되어 있던 현북면 전체의 만세운동이 미리 발각됨으로 인해 박규병·박용규·이성윤 등이 협의하여 부군의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주민만

을 모아 300여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소위 '기사문운동' 이라고 하는 4월 9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양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4월 9일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양양읍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하였다. 군중은 길가의 가로수 받침대를 뽑아 들고 혹은 장작 돌 등을 들고 하광정리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 주재소에 이르러 '대한 제국 만세'를 일제히 외쳤다. 이 때 미리 와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일제의 군인과 경찰이 발포하므로 9명이 사망하였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황중철도 이 때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치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6면



IV. 양양 3·1만세 운동의 의의



IV. 양양 3·1만세 운동의 의의

-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만세운동의 성지가 되어 군민의 자긍심은 양양의 발전과 화합에 토대가 되었다.
- 3·1독립운동은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이었지만 양양은 각 면 단위와 각 마을 단위로 책임자를 정하여 유기적 구성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 양양은 유림의 고장답게 양양의 유림들은 조선왕조의 치욕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였다.
-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설득보다는 당위성을 강조 하였다.
- 외부 세력의 영향이 아니라 각 마을 단위로 구장을 중심으로 진행 하였다.
- 신문명의 학교와 종교가 한 축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 10대 어린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 양양은 배타적인 고장이다. 배타적인 고을에서 감리교회 등과 만세운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양의 문화로 자리하였다. 만세운동 이 후 기독교는 양양의 아동들에게 신문명을 교육하였다.
- 여성인 조화벽은 감리교인으로 양양 여성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로 꼽히고 있으며, 근대 선각자 여성이다.
- 만세운동은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여 현산청년회,일혁청년회,신간회,농민조합 등을 결성하여 1923년 양양농민조합사건의 토대가 되었다.

- 6개면 82개 마을에서 년 인원 15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만세운동은 현산학교,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이 남궁억 선생의 영향으로 민족사상과 양양인의 자부심을 고취하였다.

- 신분, 종교,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 되어 단합된 양양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V. 결론



V. 결론

양양은 우수한 문화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을이다. 고대사회부터 자연의 풍요로움과 기후가 온화하여 풍속이 순박하고 낙천적이고, 문학과 예술을 숭상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해 왔다.

정명 600년의 역사 깊은 고장으로 동북아 최고의 선사 유적지가 있고,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다. 오늘날은 동해의 중심지역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통일을 위한 중심인 양양에는 우수한 불교문화와 유적이 전해오고 있다. 불교의一心으로 하나 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다. 화랑의 중심수련장으로 화랑교육에서 알 수 있듯이 의리와 충절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장, 관광의 고장으로 예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양양은 고요하면서도 열정적인 고을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는 양양인의 전통과 역사와 풍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세운동은 양양인의 정당한 주장으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신분, 계층, 종교, 남녀 노소 관계없이 하나 되어 민족자존과 양양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일어난 항일저항운동으로 양양인의 숭고한 정신이다.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1919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1주일 동안 7개면 1백 32리 중 6개면 82리에서 4천 6백 명이 참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1만 50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저항운동으로 12명이 순국하였고, 172명이 체포되어 75명이 옥살이를 하였다. 그리고 많은 지사들이 태형이나 장독(杖毒)으로 죽고 심한 고통으로 일생을 보내기도 하였다.

양양의 만세운동은 유림과 마을 구장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초기에 일경은 항복을 하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또한 양양의 교육기관인 현산학교와 쌍천서숙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만세운동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하였다. 그리고 만세운동 이 후 신문명을 교육하여 양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양양인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양양 만세운동은 충절과 의리의 고장답게 가장 치열하였다.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보여준 진수였다. 전 군민이 하나 된 만세운동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민족 자존심과 양양인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양 군민의 단합된 모습은 양양인의 새로운 역사와 군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록

1. 강원도장관 보고문
 - 1) 전화보고문
 - 2) 서면보고문
2. 투옥인사 신상기록
3. 화보





1. 강원도장관 보고문



1) 전화보고문

- 가) 양양군 대포
- 나) 양양읍내, 서면사무소
- 다) 현북면 하광정리
- 라) 서면사무소, 기사문리

2) 서면보고문

- 大正8년(1919년) 5월 14일 (江秘第七三七號)
- 가) 기사문리 검거자 374명, 자수자 211명
 - 나) 5월 9일 양양읍내 남문리, 율리

293

候方々於年買來之請矣。之んりはラ惣務退
教せしり尚同郡並此、孫南ノ西面ノ長ハ勤極
不使ノ非

四、播磨郡由緒傍ニ内備國祿ヲ立テ其ノ下ニ
郡守ヲ教之レ、及人ヲ解散セシメ、邑内住民ハ
時局ニ依テナラズク邑内ニ放火スル事ノ端
半ヲ為シ

(五)

電話報告

九月十日二十時三十分

貴佐江原道長官
文信内務部七官

事項

一 襄陽郡邑内ニ七日午後二時群衆約二百名
來訪シ名ヲ以テ郡守及警察署長ヲ請フ

解_{ナシ}散_{ナシ}

二 通山郡庫底ニ七日午後八時約二百名集會内ニ
銃剣ヲ握ルハ名無ク面事務所ヲ焚キ七時後子
ヲ破壞スルヲ果行セシニ信一止メテ為免解
散セシメ果民ノ負傷四ヲ出セテ負傷者八人
送ニ於テ後藤中尚右群衆ハ郡面談久ク

殺害スレト脅迫シ居ル

三七日夜襄陽郡西面事方所^ノ白名ノ累民來
就窓^ノ子^ヲ破壞^レ面^ニ成^ル欠^ニ并^シ累^ノ行^ヲ胆^ヲ
而^シテ重要^ニ甚^ク未^レハ^ハ中^ニ郡^ノ表^ニ條^々ヲ^施シ
一時^ノ白^名事^方ヲ^中止^シテ^一旦^ニ後^事方^ヲ南^始免^ヤ
左^不明^也

四七口江陵市場ノ南^市ヲ^停止^シテ^一旦^ニ機^方ヲ^去テ^一
十^名ノ^群軍^方ヲ^年ヲ^略、^名ノ^以テ^一郡^守ヲ^殺害^ス若^ク
長^流勅^解教^セル^也

五^口管内^林況^ハ、^伊山[、]襄^陽、^平康[、]通^山、^蒙内^高不^穩
ノ^形勢^力、^生ル^七漸^次靜^平ノ^約也^上左^ノ張^約

二年

右

總督
政務總監

學務長

平一

電話報告

四月十日午前十時接

發信者 江原連長官

受信者 內務部長官

事因

一 橫城邑內、於四月一日發生暴徒不束、鮮人商估、
暴徒、脅迫、依令全部閉店、郡署及令連
所長、懇請、依令七日、全部閉店、

二 原州郡富商、健全面、此方面民約二百名、四月
八日午九時、附近山上、篝火、焚之、
一 萬歲、高唱、依令、主謀者八名、逮捕、午前

明洋學堂

二時開教マシナリ 爲之ト同時、原州歩衛隊
ヲシテ若干名出動セリ

三 通川道内、於テ四月九日午前九時、公主普通學
校生徒及其他十名、韓國旗ヲ打振、道内
ヲ横行セシムル事ヲ謀リ、八名ヲ逮捕セリ
尚本件ノ學校生徒、自発的ニ、非スレバ他ヲ煽動
者ニ依リテ、自動セシメ、如ク目下取調中ナリ

四 襄陽郡一縣此面、下光下里 耶蘇教徒ヲ中心
トシテ、六、七名、四月九日午前十時、棍棒及鉄ヲ
携ヘ、万歳ヲ高唱シ、其士門、警署官駐在
所ニテ、龍水ヒ果行ケル時、皆ニ江陵歩衛隊ヨリ

未^レル歩兵五名ト共^ニテ^テ 發砲鎮壓^ニ 努^メテ
暴民死者九名ト出^シ外、負傷者若干不見
父^トル^ニ 不明

在 鉄索即乃文面附近ニ於^テ 天道致^シ 徒^ラ 中心トス
約七百名ノ暴民四月八日午前一時乃文面事
務所^ニ 一鼓^ニ 水^ヒ 万歳ヲ唱^ハ、フ、^リトノ報告
ニ依^リ 若橋里^{私道} 堂^出 張^解 散^命セ^シ 志
セヤリシヲ以^テ 發砲セリ 總等ニ更^ニ 俾^目 面、馬
橋面長ニ通知シニ面合同シ大舉^テ 右橋里分遣
所^ヲ 龍^水 口^ト スル形跡^{アリ}

之ト同時、鉄索分隊及安峽隊^直 所^ニ 堂^出 兵
リ鷹^後 ノ為^ニ 出^テ 発^シ 也^ニ 其^後 情^報 接^セ 也

兩 羊 懸 昏 野

電話報告 四月十一日午前十時半接

江原通長官

内務部長官

總督

政務總監

總務局長

内務局長

一 襄陽郡 西面事務所、重要書類、陸

援以來、郡廳、收容ニタル、其ノ後形勢

平穩ニ帰リ、面長以下、平常通執務居レリ

目下、状態ニ「雨ニ日中」、送還ニ得ル

シ

二 四月九日、襄陽郡、縣北面、其ノ門、警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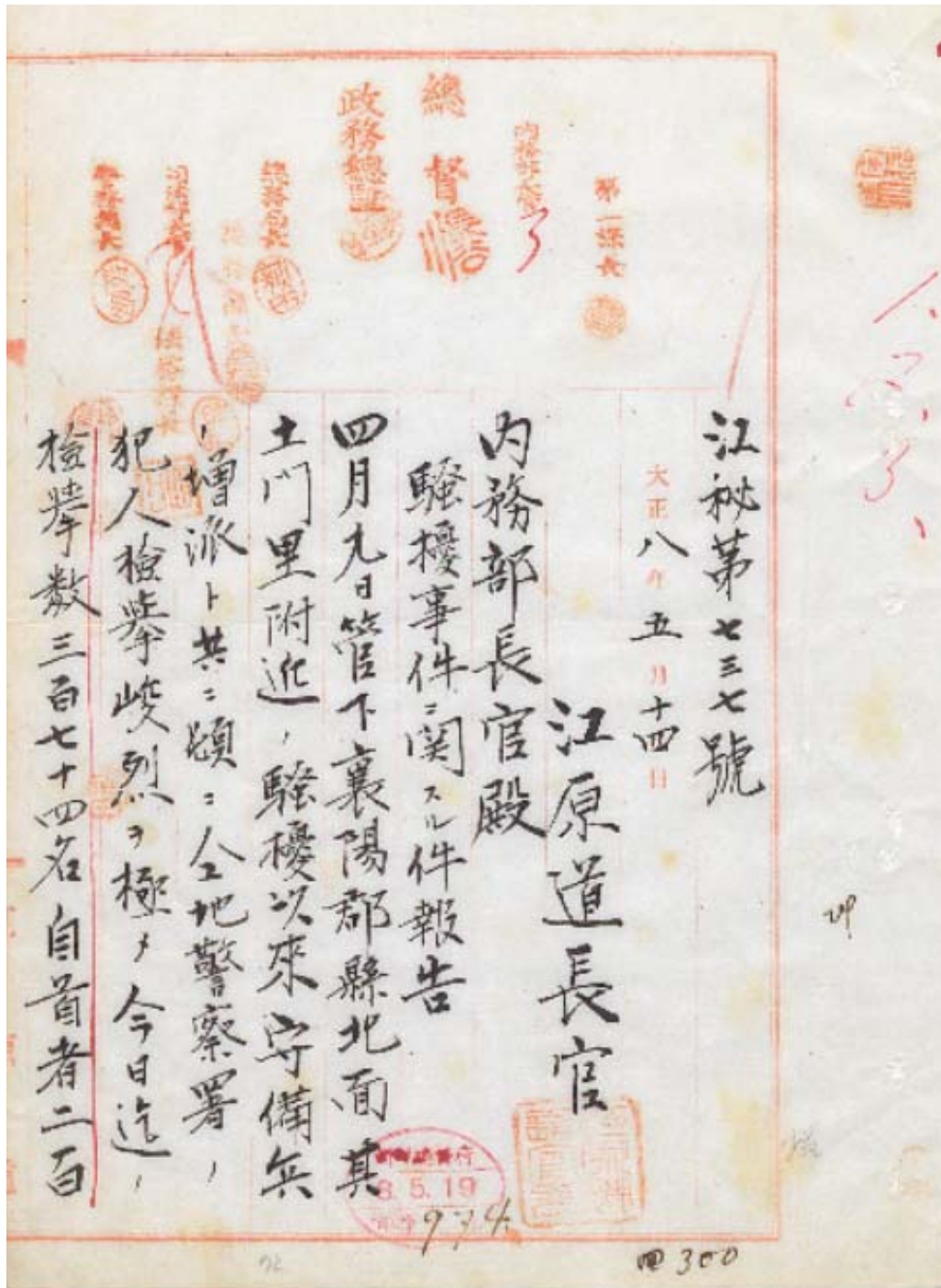
官配在所、ヲ警戒ニシル、局長、面長ヲ警

直スルニト甚シク、面長「セロヲ得ス」一時、事務

ヲ中止シ 隨雜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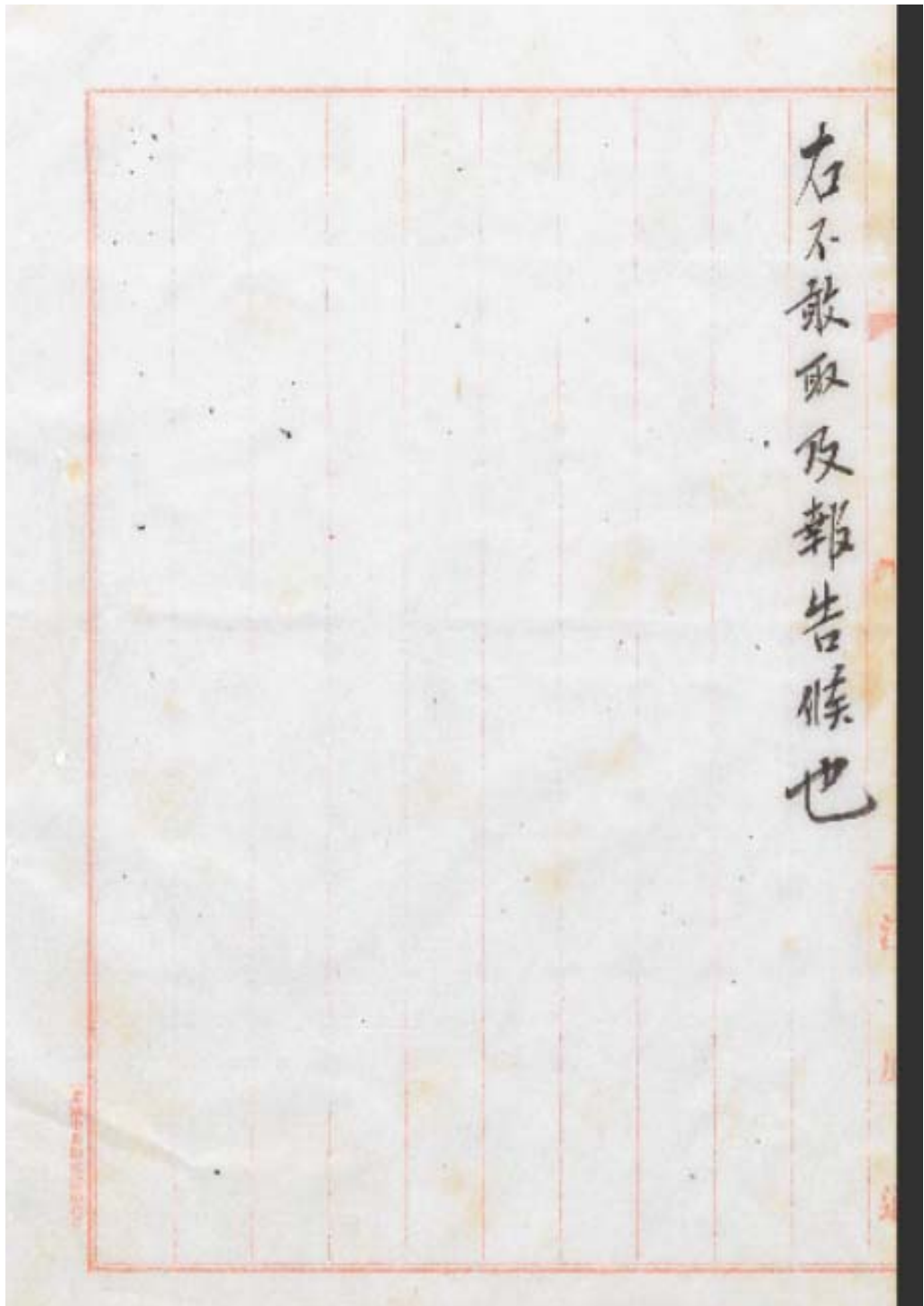
二 俾川郡邑中ニ於テ四月十日午前四時天酒
救護ヲ中心トスル給ニ有テ 群集万歳ヲ連
呼橫行セシメ況漸ニ休ヲ 無事 同致ス

2) 서면보고문



十一名、多^ニ達^シ爲^ニ人心競^ハタルモノアリ
各警^テ借^テ其^ノ家^ノ穡^ニ從事^シ去^ル皇太
子殿下御成年式當日、如^ク國旗、揭揚
數頓^ニ增加^シ邊僻^ノ地^ニ至^ル迄殆^ト毎戸
其^ノ翻^々タル^ヲ見^ル又當地警察署、施行^セ
ル春季清潔法及種痘、如^キモ之^ノ例年^ニ比
シ著^シキ良成績^ヲ擧^ゲ就中、檢^査峻^嚴
ナリシ地方程可^ナリシカ如^ク尚過日揚^口襄陽
線三等道路、改修夫役工事ヲ施行セル際、
如^キ應^役成績^頗ル良好^コシテ而^カモ其^ノ

勞役振眞摯早出晚退所期以上ノ進行
ヲ見タル等民心ノ情態ヲ察シ得ヘシ然レト
モ未タ亢奮状態ヨリ醒覺セサル者ヤリラモ
ル五月九日襄陽面邑内南門里及月里里民
總角チミンカクヲ交ヘ三十八名附近林野内ニ於テ薪採
取中萬歳マンサイヲ高唱シタル事實アリ目下拘
引取調中ナルカ彼等ハ萬歳ヲ唱ヘタル
ニ非スシテ遊戯中打球ノ勝鬨ヲ奏ケタ
ルニ過キスト申立テ居レルモ適以テ及感カシ
有シ居レルヲ察シ得ヘシ





2. 투옥인사 신상기록



1. 권언식 (본적 :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2. 김경화 (본적 : 양양군 사현면 광석리)
3. 김계호 (본적 : 양양군 양양면 청곡리)
4. 김재한 (본적 : 양양군 현북면 도리)
5. 김종대 (본적 :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6. 김창환 (본적 :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7. 오정현 (본적 :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8. 이학규 (본적 :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
9. 최학길 (본적 : 양양군 서면 용천리)
10. 한용운 (본적 :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満期免假出獄	大正九年四月八日	市立監獄	市立裁判所	大正九年三月八日	大正九年三月八日	禁錮	懲役	傷身強盜	市立監獄
備考						職業	農		
						前科	犯		

氏名	權慶植	年齢	40	生日	1904年11月19日	指紋番號	44447
身長	5尺9寸	特徴				No.	12488



권연식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 其 事 由	出 獄 年 月 日	執 行 監 獄	言 渡 裁 判 所	刑 ノ 始 期	言 渡 年 月 日	刑 名 禁 錮 懲 役					罪 名
滯 期 假 出 獄	大 正 九 年 九 月 九 日	監 獄	多 摩 地 下 法 院	大 正 九 年 九 月 九 日	大 正 九 年 九 月 九 日	禁 錮 一 年 懲 役	保 有 持 護 及 其 他 刑 罰	西 班 牙 職 業 學 生	江 南 區 雲 陽 郡 沙 比 里 廣 善 寺 住 持 金 八 郎	江 南 區 雲 陽 郡 沙 比 里 廣 善 寺 住 持 金 八 郎	
考 備							前 科	犯			

氏 名	年 齡	生 日	指 紋 語 號
金 敬 和	24	1916年7月16日	878111
身 長	特 徵	尺 寸 分	No. 878111



김경화



號番紙原口手	檢舉官署	刑務所	出年月日	入年月日	刑期	刑名	罪名	刑近式 刑前他式	職業	年齡	住所	生地	本籍
口手			昭和 年 月 日	昭和 年 月 日	年 月 日		治安維持法違反		教員 分身 常民 長身 五尺三寸一分	明治三十六年 一月一日生	京城府 豐志洞 八里村	江原道 襄陽市 襄陽面 靑谷里村	江原道 襄陽市 襄陽面 靑谷里村
徵特地徇律			昭和 年 月 日	昭和 年 月 日	年 月 日								



김계호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刑名				
滿期 假出獄	壹九年七月十一日	在...監獄	東京...法院	壹九年三月八日	壹九年三月八日	禁錮 一年二月 懲役	江東... ...
考備						科前				
...						...				

氏名	金在漢	年齢	26 2022年2月19日生	指紋番號	No 841768 24968
		身長	1尺6寸2分		
		特徴	後頭部=産物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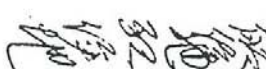
김재한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満期免状假出獄	大正九年八月八日	大正九年八月八日	東京府高等法院	大正九年二月八日	大正九年二月八日	禁錮	八月	懲役	傷害法違反
備考						職業	農		
前科									
東京府立第一高等學校									江京 東陽郡 精北 直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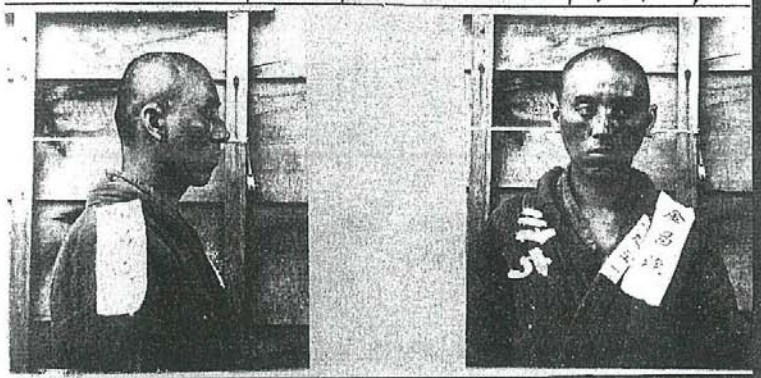
氏名	年齢	出生	指紋番號
金 鐘大	50	1901年5月23日生	21335
	身長	5尺5寸7分	No. 33/36
	特徴		



김종대

項 事		刑 受			身 分	住 所	出 生 地	本 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隨 期 假 出 獄	大正九年四月十八日	西大川 監獄	新加坡法院	大正九年三月九日	大正九年三月九日	禁錮 八月	懲 役	保未結達文
考		備			科	前	功	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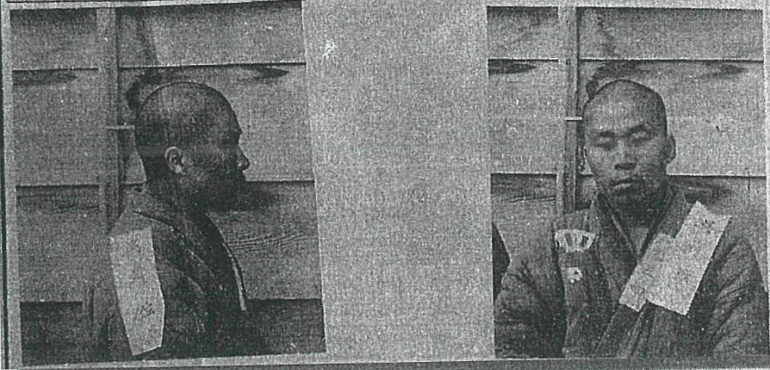
氏 名	年 齡	49 年 3 月 2 日 生	指 紋 番 號
金昌煥	身 長	1 尺 4 寸 9 分	11174
	特 徵		NO. 31169



김창환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刑名					
清期恩免假出獄	大正九年二月十八日	西本監獄	市立第一法院	大正九年二月十八日	大正九年二月十八日	禁錮 懲役	常	〃	〃	江蘇 襄陽 鄭縣 北角 三下區	
備考							職業	農			
備科前							犯				
吳世海											

氏名	吳世海	年齡	49/11年1月4日生	指紋番號	
		身長	5尺2寸2分	No	4465-1
		特徵	唇新=母姓刑		35734



오정현

氏名	李 鶴 奎		異名		指紋番號	5 6 6 6 7 7 5 7 6 6			
年齡	明治 25 年 8 月 11 日生				手口番號	第		號	
身分	職業	米穀商	身長	尺 米 寸 分	特徴番號	第		號	
本籍	江原	縣	襄陽	市	道川	町	南	村	276 番地
生地	江原	縣	襄陽	市	道川	町	南	村	番地
住居	江原	縣	襄陽	市	道川	町	南	村	番地
最近	罪名	治安維持法違反			其他前科	檢 舉			
	刑名刑期	懲役禁錮 1 年 6 月 日			一 犯				
	官該官署	京城覆審法院							
	入所年月日	昭和 8 年 3 月 27 日							
	出所年月日	昭和 9 年 9 月 25 日							
刑務所名	西大門 刑務所 支所								
檢舉官署	道 警 察 署								



昭和 8 年 6 月 29 日 西大門刑務所 於 刑 務 所 保 存 取 照 4 小 第 22690 號

이학규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 其 事 由	出 獄 年 月 日	執 行 監 獄	言 渡 年 月 日				
滿 期 假 出 獄	大 正 九 年 七 月 一 日	西 方 內 監 獄	大 正 九 年 九 月 九 日	平民	職業 無 任 事	保 安 法 違 反	江 南 道 富 陽 郡 西 院 里 明 正 三 邑 江 南 道 富 陽 郡 西 院 里 明 正 三 邑
考 備				科 前		犯 罪	
<p style="text-align: center;">(Handwritten signature)</p>							

氏 名	年 齡	48 年	4 月 18 日	指 紋 番 號
羅 特 吉	身 長	1 尺 4 寸	8 分	11874
0112	特 徵			No. 54450




최학길

#22

會同居住官職龍吟寺
 白相 奎 八月廿五年
 平安南道平康府順安面上里在籍
 同面滿井生居住平康基督教醫院
 會務務
 安世 桓 七月廿五年
 全羅北道益山郡土山面松嶺里在籍
 京畿道平康府北洞居住無職
 林 至 九月廿五年
 京畿道副政都都府面京町在籍同面

咸鏡南道元山府南洞在籍居住
 基督教南監理派牧師
 鄭 春 洪 五月廿五年
 中畿道京政府水保町在籍居住
 基督教南監理派牧師
 中 錫 九月廿五年
 江原道襄陽府通川郡積壤里在籍
 京畿道平康府桂洞居住僧侶
 韓 龍 雲 七月廿五年
 中畿道京政府鳳凰洞在籍同府妻

0661

#23

宋 鑛 九月廿五年
 全羅北道全羅南道望道面望道里在籍
 京畿道平康府水町居住無職
 鄭 魯 提 五月廿五年
 平安北道是州府南面南陽里在籍居住
 元中央學校教師
 玄 相 九月廿五年
 英海道谷山郡谷山面赤城里在籍
 居住兼
 李 景 雲 七月廿五年

北平町居住基督教南監理派傳道師
 金 智 煥 五月廿五年
 京畿道平康府三角町在籍居住
 書籍出版業
 崔 南 善 三月廿五年
 同道同府崇三洞在籍同府天然洞
 居住基督教長老派長老
 成 台 水 十月廿五年
 全羅南道丹陽郡水北面南山在籍
 居住元中央學校長

0662



한용운



3. 사진 자료



- 1) 독립운동 관련시설
- 2) 독립운동 관련 추모비
- 3) 주요 만세운동 장소
- 4) 독립운동가 옛집 및 터
- 5) 기사문리 만세고개 유적지 관련자료
- 6) 조화벽 지사 관련자료
- 7) 남궁억 선생 현산학교 관련자료
- 8) 독립운동가 훈·포장 및 신문기사 자료
- 9) 독립운동 관련 연극자료
- 10) 독립운동가 묘역
- 11) 독립운동가 후손 및 친인척 조사(면담)자료
- 12) 양양 3·1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자료

1) 독립운동 관련시설



3·1운동 기념비 (현산공원)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 6일간 양양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3·1운동 현장에서 희생되거나 투옥된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10월 3일 동아일보사와 양양군협찬회가 건립하였다. 오른손에는 독립선언문을 감싸고 왼손에는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있다.



만세고개 기념비(현북면 기사문리)

양양 3·1만세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마지막 날인 1919년 4월 9일 이곳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 현북면 만세군중들이 기사문주 재소로 진군하던 중 일제의 총탄에 9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비는 당시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게 알리고자 양양3·1만세운동유적비건립추진위원회에 의해 2000년 3월 1일에 조성되었다.

충혼탑 (현산공원)

일제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열사 22위와 송고한 뜻을 기리고자 1966년 6월 6일에 건립되었고, 1989년 6월1일 화강석으로 보수하면서 탑상부는 만세를 부르는 형상으로 조형하였다.

이 탑은 그 외 북한 공산정권 통치하에 있을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공애국지사 106위, 한국전쟁당시 북진 중에 순국한 양양출신 군경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187위의 영령들이 함께 배향되어있다.



충렬사 (군행리)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희생된 순국선열들에 대한 34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이들의 송고한 애국정신 기리기 위해 매년 3월1일 이곳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 독립운동 관련 추모비



함흥기 권병연 추모비 (당시 현산공원)

1963년 3월 1일 현산공원에서 함흥기 권병연 추모비를 건립 한 후 추모행사에서 당시 김영도 양양군수가 분향을 하고 있다.



함흥기 권병연 추모비 (현 손양면 간리)

최초(1963년) 현산공원에 건립하였다가 손양초등학교(1980년) 교정으로 옮긴 후 다시 현 간리 고개(1991년) 도로변에 옮겨 세웠다.



이안성 선생 항일독립운동 기념비 (임천리)

1944년 춘천농업학교 2학년(16세) 재학 중에 일본 천황과 조선총독부 등의 일본 수뇌부에게 조선의 청장년의 강제동원, 식량 등 물자를 강제공출, 학생의 강제노역중지 등 10개항의 일제통치반대 항의문 발송한 애국투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



함흥기 열사 추모비 (손양면 하왕도리)

양양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일 손양면사무소 앞에 건립한 함흥기 열사 추모비



조선해방기림비 (강현면 중복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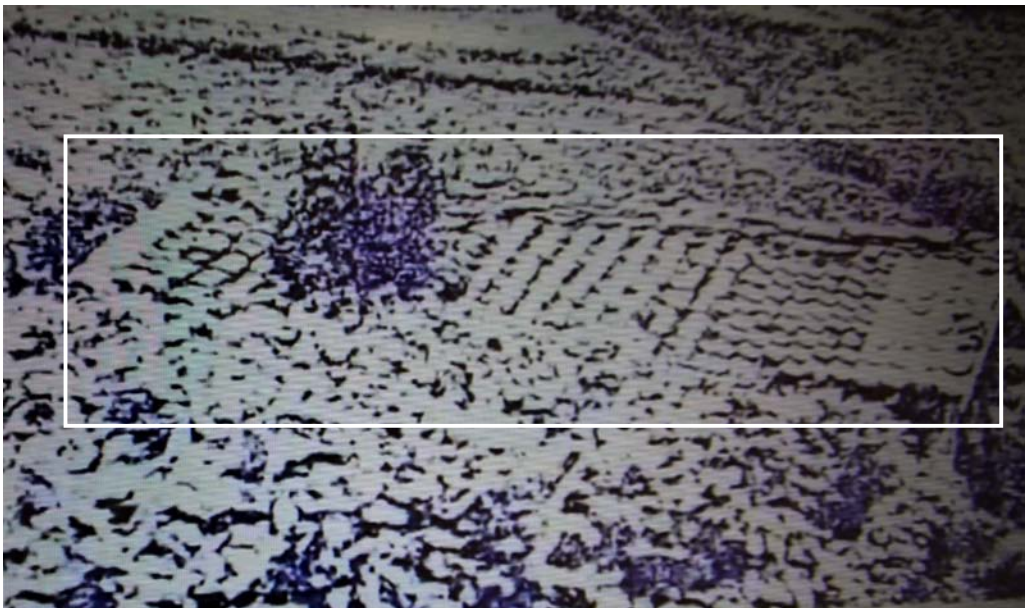
일제의 황포와 만행에 시달렸던 마을사람들이 조선 해방을 기념하여 1945년 8월 15일에 세운 기념비

3) 주요 만세운동 장소



현 임천리 마을

이석범 선생은 유림 10명과 함께, 고종 인산에 참여 후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와, 문중 이교완의 집에서 머물면서, 양양 3·1만세운동을 계획한 마을로서, 4월 3일 군수 이동혁에게 탐지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주모자 22명이 체포되고, 인쇄기 및 태극기 374매가 압수되었던 마을이다.



옛 성내리 곳집

조화벽이 벽선목에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양양감리교회 청년회 김필선 등과 인적이 드문 성내리 47번지 뒷산에 있는 곳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는데, 이때 조화벽도 86매를 만들었던 장소이다.



현 거마리 곳집

1919년 4년 3월 임천리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다 발각되자 거마리 김종태 집으로 본부를 옮긴 다음 김종옥 집 뒤에 있는 곳집에서 밤새도록 태극기를 제작했던 장소.



옛 양양시장 모습

양양 장날이던 1919년 4월 4일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군중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4000여명이 집결하여 만세를 불렀던 장소.



襄陽警察署庁舎

옛 양양경찰서 터

1919년 4월 4일 함흥기, 권병연 열사는 일본경찰의 일본도로, 김학구 열사가 일본경찰의 총탄에 의하여 순직한 장소.



옛 남대천 목교

1919년 4월 4일 손양면 만세군중이 일본경찰의 저지를 물리치고 건넜던 다리.



당시 동운교 자리

손양면 만세군중이 남대천 목교를 지나 이 동운교(현재 양양산림조합 앞 교차로 지점에 있었던 다리)를 경유하여 양양시장과 양양경찰서로 진입하였던 다리.



옛 강현면 모습

4월 5일~4월 6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옛 강현면 모습.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물치 장터

물치 장날이던 4월 5일 500여명의 만세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으며, 4월 6일에도 양양읍내 장터로 집결하는 양양, 손양, 서면 만세군중과 합세하기 위하여 모였던 장소.



당시 대포 주재소 터

4월 5일 물치장터에 운집했던 강현면 만세군중과 도천면민이 합세한 약 1000여명의 군중들이 일본경찰의 굴복과 사죄를 받았던 장소.



당시 도천면 사무소 터

당시 양양군 도천면 사무소는 대포항에 소재하고 있었다.



김학규 장례만세운동을 한 장소였던 현 서면 사무소

1919년 4월 6일 서면의 농민들이 4일 경찰서 앞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김학규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일제에 반항하여 장례만세운동을 한 서면사무소 터의 현 서면 사무소.



일본군경이 저지선을 설치한 장소였던 현 연창리 삼거리

일본 헌병과 경찰이 저지선을 새끼줄로 설치하고 통행을 제지하던 터로 4월 6일 강현면과 도천면 양양면 800여명의 만세군중이 양양읍내 집결지를 향하여 행진 중 연창리 대미소 앞에서 일군경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지선이던 새끼줄을 끊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집결지인 양양장터로 향했던 장소.



당시 기사문리 주재소 터 자리

4월 9일 현북면주민 1000여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관 고개(만세고개)를 넘어 이 기사문주재소로 행진하다가 일본 수비대에게 충격을 받았다.



일본 수비대 병력이 매복하였던 장소인 현 기사문리 관 고개

4월 9일 기사문리 관 고개(만세고개)에서 일본 수비대의 헌병과 경찰이 매복하여 총격을 가하여 만세군중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건현장.



옛 낙산사 원통보전(대정원년 1912년)

낙산사에 주소를 두고 3·1독립만세 운동의 민족대표인 만해 한용운선생의 민족정신에 감응한 낙산사 스님들이 4월 7일 오후 8시에 범종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오봉산 정상에 올라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대한독립을 염원하였던 법당.



옛 양양 감리교회 모습(1956년)

당시 양양감리교회 5대 목사인 김영학과 조영순(조화벽 지사의 부친) 전도사에게 항일정신과 자주독립에 필요성 등의 신앙지도를 전수받은 김필선을 위시한 교회청년회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던 터의 옛 감리교회.

4) 독립운동가 옛집 및 터



함홍기 열사 옛 생가 (손양면 가평리)

1919년 4월 4일 양양경찰서에서 일본경찰이 휘두른 일본도에 의하여 순직한 함홍기 열사의 옛 생가.



권병연 열사 집터 (손양면 간리)

1919년 4월 4일 양양경찰서에서 일본경찰이 휘두른 일본도에 의하여 순직한 권병연 열사의 집이 있었던 자리.



이교완 집터 (양양읍 임천리)

만세운동 당시 이석범 선생이 머물며 3·1만세 운동 계획을 모의한 집터



김종태 집터 (양양읍 거마리)

4월 3일 피신하여 만세 운동을 모의 계획한 임시 본부 터



이종국 집터 (당시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물치장터 에서 사용한 태극기를 제작한 장소.



당시 쌍천서숙 (당시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4월5일~4월6일 강현면 물치 만세운동과 대포주재소 앞의 만세운동은 강현면민들과 도천면민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일상불란하게 행동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쌍천서숙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5) 기사문리 만세고개 유적지 관련자료



기사문리 3·1만세운동 유적지

양양 3·1만세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마지막 날인 1919년 4월 9일 이곳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 현북면 만세군중들이 기사문리 주재소로 진군하던 중 일제의 총탄에 9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유적지는 당시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게 알리고자 양양3·1만세운동유적비건립추진위원회에 의해 2000년3월1일에 조성되었다.



유적비 동상



유적지 만세운동 기념행사 모습



3·1만세운동 기념식장에서 헌화하는
이석범 선생 증손자 이건호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서 헌화하는
함흥기 열사 증손자 함상균



기사문리 유적지에서 군 장병들에게
3·1만세 운동 교육하는 모습

당시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
3·1만세 운동 모습을 담은
기사문리 마을 벽화



6) 조화벽 지사 관련자료



사진 3.개성 호수돈여학교(사진제공 : 심옥주 소장)

조화벽 지사의 개성호수돈여학교
(출처:국립여성사 전시관)



양양 정명학원 1회 졸업생 (1)
(출처: 국립여성사 전시관)

양양 정명학원 2회 졸업생 (2)
(출처: 국립여성사 전시관)





양양 정명학원 7회 졸업생 (3)
(출처: 국립여성사 전시관)

▲ 양양 정명학원 제7회 졸업기념.
1944.3.25.
※ 자료 출처 : 기증자 김정애

조화벽 지사와 남편 유우석의 소품
(출처: 국립여성사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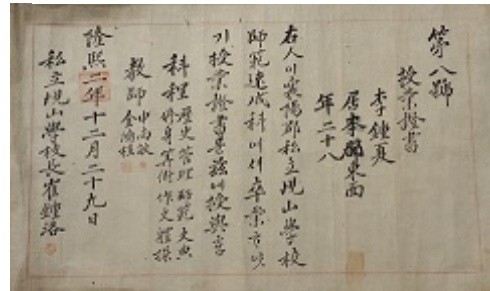
7) 남궁억 선생 현산학교 관련 자료



남궁억 선생 동상 (양양초교)



현산학교 졸업증서
(1907년, 교장 남궁억, 졸업생 이종하)



현산학교 사범과 졸업증서
(1908년, 교장 최종락, 졸업생 이종하)



옛 현산학교 (현 양양도서관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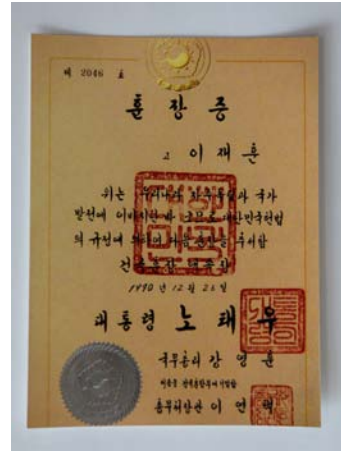
8) 독립운동가 훈·포장 및 신문기사 자료



함흥기 열사 건국훈장 (1919년)



이국범 지사 훈장증 (2005년)



이재훈 지사 훈장증 (1990년)



이재형 지사 표창장 (2006년)



이석범 선생 관련 기사 (1)
(설악신문)



이재형 지사 표창장 (2006년)



김경화 지사 판결연도 관련기사 (매일신보, 1920년 4월 6일)

9) 독립운동 관련 연극자료



3·1만세운동 재연 (1)
(제37회 양양문화제:양양극단)



3·1만세운동 재연 (2)
(제37회 양양문화제:양양극단)



함흥기 열사전 (3)
(제37회 양양문화제:양양극단)



물치 만세운동 재연 (1)
(제5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양양극단)



물치 만세운동 재연 (2)
(제6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양양극단)



3·1만세운동 재연 조화벽 전
(현북중학교:양양극단)

10) 독립운동가 묘역



이석범 묘역 (양양읍 화일리)



함흥기 묘역 (손양면 가평리)



김학구 묘역 (강현면 침교리)



이국범 묘역 (대전국립현충원)



이재훈 묘역 (대전국립현충원)



이관진 묘역 (양양읍 거마리)



이원희 묘역 (양양읍 거마리)



이원도 묘역 (양양읍 거마리)



김영학 묘역 (대전국립현충원)



김종태 묘역 (양양읍 거마리)



임병익 묘역 (현북면 증광정리)



김창렬 묘역 (강현면 중북리)



김주열 묘역 (양양읍 월리)



노병례 묘역 (양양읍 거마리)



김종성 묘역 (현북면 대치리)



전원거 묘역 (현북면 하광정리)



황선주 묘역 (현북면 대치리)



김사만 묘역 (강현면 정암리)



김두영 묘역 (강현면 물치리)



최영덕 묘역 (양양읍 감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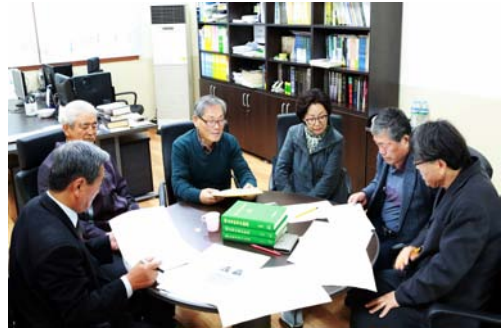


김철기 묘역 (양양읍 감곡리)

11) 독립운동가 후손 및 친인척 조사(면담)자료



조화벽 지사 관련 고양시 국립여성사
전시관 답사



이석범 선생 증존자 이건호, 이건하
가족 면담



이석범 선생 증존자 이건호 면담



문중상 자손 문철수, 문복수 면담



쌍천서숙 터 조사 (중도문리마을회관)



조화벽 지사 시고모 유정숙 친척
최선도 내외 면담

조화벽 지사 시고모 유정숙 관련
김택기 면담

12) 양양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자료



양양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양양군의회 앞)



양양 3·1만세운동 재현행사 1. (양양군청앞 4거리)



양양 3·1만세운동 재현행사 2. (양양군청앞 4거리)



양양 3·1만세운동 재현행사 3. (양양군청앞 4거리)



양양 3·1만세운동 100주년 한시백일장 모습(1)



양양 3·1만세운동 100주년 한시백일장 모습(2)

참 고 문 헌

- 『擇里志』 이중환
『新增東國輿地勝覽』 아세아문화사, 1973
『太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8
-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양주지』 양양군수, 1990
『양토지』 양양문화원, 1976
『향토지』 양양군교육장, 1968
- 『한국독립운동사Ⅱ』 국사편찬위원회, 1986
『강원도3·1운동』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49~2008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2010~2013
『독립운동판결문자료』 국가기록원, 2014
『강원도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국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보고서6) 2010
- 『양양 “얼” 기미만세운동』 양양문화원, 1998
『매곡일기』 속초문화원, 2007
『태백의항일사』 조동걸, 1977
『한국여성독립운동사』 박용옥, 1987
『조선독립운동, 원서방』 김정명, 1967
『불굴에 얼 - 한서 남궁억 선생의 생애』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사업회, 1960
- 『3·1운동 때 지방민의 참여문제 - 양양과 강릉의 경우』 춘천교육대학논문, 조동걸, 1971
『양양지방3·1만세운동의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철휘, 1991
『일제하 양양지방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양섭, 1997
『열사 유관순가의 항일여성운동』 강원도 독립운동가 조화벽지사 중심으로 광복 70주년 추모 학술강연회, 2015.12.17.
《독립운동판결문편,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편》 국가기록원
《일제강정기편, 대한제국편》 국사편찬위원회

양양 3·1만세 운동이 일어 난지 어언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양양인들은 일본 군경의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에 참여 하였다.

당시 양양군 7개면 중 6개면 82개 마을에서 유림, 기독교인, 불교인, 천도교인, 농어민, 어린학생에 이르기 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연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여 6일간 치열하게 일어났다. 이는 현재 양양에서 살아가는 양양인 들의 애국충정(愛國忠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큰 사건이었다.

3·1만세 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양 3·1만세 운동사를 편찬하면서 당시 양양인의 함성을 생각하며 그 분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생생하게 담아내려고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의 3·1만세 운동 자료와 발표된 논문과 유공자들의 유품과 유적지를 어렵게 찾아내어 사진들을 책자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양양 3·1만세 운동 당시 만세군중의 선두에서 또한 마을의 지도자로 활동한 분들 중 61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2018년 10월 23일 까지), 지금까지 안타깝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70여 명이 넘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3·1만세 운동 후 8·15해방 될 때까지 26년간을 일제의 감시 속에 사는 동안 공훈을 세우고도 일제의 감시와 형벌이 두려워 고문과 태형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말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다. 양양 3·1만세 운동 후 100년이 흘러 자료들은 손실되었고 그 당시의 증언을 듣기가 쉽지 않았다.

또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의 9명이 순국하였는데 4명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양 충렬사에 모셔진 만세고개 희생자 중 문종희가 그의 동생 문종상으로 잘못 모셔져 있어 문종희로 바로 밝혀 놓았다.



우리 연구원의 소망은 책의 출간을 통해, 양양의 정체성과 만세운동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명한 학자들의 양양만세운동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 개최등을 바탕으로 양양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양양 3·1만세 운동사 편찬에 증언을 해주신 유공자 후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일동





양양 3·1만세 운동사

-
- 편 찬 : 양양문화원
 - 기 획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 집 필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 고 문 - 이종우
 - 소 장 - 이철수
 - 연구원 - 김재환, 김양식, 김광영, 김준호
 - 감 수 :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양언석
 - 발행일 : 2019년 8월
 - 발행처 : 대양프리컴

비매품

